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32-01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2

· 사회성발달영역
· 정서발달영역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32-01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2

· 사회성발달영역
· 정서발달영역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연구책임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의향 (한국보육진흥원 국장)
심미경 (인제대학교 교수)
유희정 (광주대학교 교수)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원경 (서울청사한빛어린이집 원장)
안현숙 (안산삼성어린이집 원장)
정혜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수진 (한국보육진흥원 대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최혜영 (창원대학교 교수)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손승희 (대전청사새롬어린이집 원장)
유주연 (CJ키즈빌어린이집 원장)
민미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CONTENTS

제1부. 총 론 • 1

Ⅰ.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 3
01. 개발의 필요성 ····· 3
02. 개발의 목적 ····· 4

Ⅱ.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 배경 ····· 5
01. 보육교사 지침서 개발과정 ····· 5
02. 선행연구 분석 ····· 7

Ⅲ. 보육교사의 요구 분석 ····· 15
01. 문제행동 지도 실태 ····· 15
02. 보육교사의 요구 ····· 21

Ⅳ. 보육교사 지침서 구성 체계 ····· 31
01. 총론 및 각론 개요 ····· 31
02. 총론의 구성 ····· 31
03. 각론의 구성 ····· 32

제2부. 각 론 : 기본생활영역 • 37

Ⅰ.「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 ····· 39
01.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39
02.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43
03. 기본생활영역 교사 지도 방안 ····· 44

Ⅱ.「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47
01. 이유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47
02. 젖병을 떼지 못하는 경우 ····· 49
03.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 51
04. 편식: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54
05. 편식: 과자 등 군것질만 먹는 경우 ····· 57
06.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 59
07.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 62
08.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 65
09. 스스로 먹지 않는 경우 ····· 67
10. 식사예절이 부족한 경우 ····· 69
11.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71
12.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 77
13. 소변을 참다가 자주 옷에 실수하는 경우 ····· 81
14. 어린이집에서 잠자기 어려워하는 경우 ····· 84
15. 씻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86
16.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91
17. 지나치게 청결한 경우 ····· 95
18. 계절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경우 ····· 97
19.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지 못하는 경우 ····· 101
20. 스스로 옷이나 신발을 입고 벗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104
21.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 106
22.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109
23. 차례를 지키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 114
24.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 115
25. 어린이집 버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거나 의자에 앉아 있지 않는 경우 ····· 119
26.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 122

제3부. 각 론 : 신체운동발달영역 • 127

Ⅰ.「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129
0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129
02.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 134
03.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135

Ⅱ.「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137
01. 걷지 못하는 경우 ····· 137
02.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고 항상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 ····· 140
03. 엄지, 검지를 쓰지 않고 크레파스를 손 전체로 잡는 경우 ····· 144
04. 숟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 146
05. 블록을 3개 이상 쌓지 못하는 경우 ····· 148
06. 다리 힘이 약하여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 ····· 151
07. 점핑(jumping) 등과 같은 대근육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 154
08. 팔의 힘이 약해 공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 ····· 157
09. 계단, 정글짐과 같은 기구에 오르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 ····· 160
10. 가위를 사용해 도형 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 ····· 164
11. 동작이 너무 느린 경우 ····· 166
12.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불안정하여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이 ····· 168
13.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 171
14.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임이 없는 아이 ····· 174
15.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 177
16.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 180
17. 코를 자주 파고 킁킁거리는 아이 ····· 182
18. 소리를 잘 못 듣는 아이 ····· 184
19.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 ····· 186
20. 두통을 자주 호소하는 경우 ····· 187
21. 심한 변비 ····· 189
22. 잦은 소변(빈뇨) ····· 192
23. 비만인 경우 ····· 193
24. 체격이 심하게 왜소한 경우 ····· 197

제4부. 각 론 : 사회성발달영역 • 209

Ⅰ.「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211
01.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211
02.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218
03.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지도 방안 ····· 219

Ⅱ.「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227
01. 무는 경우 ····· 227
0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 230
03. 할퀴는 경우 ····· 233
04. 놀잇감을 던지는 행동 ····· 236
05. 놀잇감을 뺏는 경우 ····· 237
06. 짜증내는 경우 ····· 240
07.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 243
08. 자기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 246
09. 때리는 경우 ····· 248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 251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 255
12. 떼쓰는 경우 ····· 257
13. 지기 싫어하는 경우 ····· 260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 263
15. 힘 조절을 못하는 경우 ····· 266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 268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 270
18. 부끄러움이 많은 경우 ····· 272
19. 의존적인 경우 ····· 275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 277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 278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282
23. 반항하는 경우 ····· 284
24. 고자질하는 경우 ····· 288
25. 거짓말 하는 경우 ····· 290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 291

제5부. 각 론 : 정서발달영역 • 295

Ⅰ.「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297
01.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297
02.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 304
03. 정서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305

Ⅱ.「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311
01.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 311
02. 교사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 314
03.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 318
04.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 319
05.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 322
06.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 324
07.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 326
08.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 329
09.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 332
10.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 334
11.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 338
12.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 341
13. 잘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 344
14.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 346
15.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 349
16.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 352
17. 강박 성향을 가진 경우 ····· 353
18.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 356
19.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 358
20.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 360
21.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 363
22. 정서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 366
23. 분노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 368
24.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 370
25. 이후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372

26.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375
27.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 376
28. 환경 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 378
29.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 380
30.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 하는 경우 ····· 382

제6부. 각 론 : 언어발달영역 • 389

Ⅰ.「언어발달영역」문제행동 지도 ····· 391
01.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391
02. 언어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395
03.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397

Ⅱ.「언어발달영역」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399
01. 또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 399
02.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401
03. 또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404
04. 또래와 달리 의사표현(표정·몸짓·언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 407
05.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 411
06. 또래에 비해 자신이 만들어낸 어휘(음운적 신어) 사용이 빈번한 경우 ····· 414
07. 또래에 비해 주로 한 단어말로 의사표현 하는 경우 ····· 416
08.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기나 소리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 419
09.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 421
10. 또래에 비해 그림책이나 인쇄글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 423
11. 또래에 비해 쓰기도구 및 사용(끼적이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 ·· 426
12. 아기식 발음으로 말하거나 알아듣기 힘들 만큼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 428
13. 말할 때 말소리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 431
14. 지나친 군말사용이나 말더듬 현상으로 말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 433
15. 또래에 비해 대화 및 이야기 나누는 상황에서 맥락·지시·주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 436
16. 또래에 비해 주변 글자 및 책 읽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없는 경우 ····· 438

17. 또래에 비해 문학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440
18. 또래에 비해 사용 어휘수가 매우 적은 경우 ····· 442
19. 또래에 비해 언어적 의사표현이 매우 적은 경우 ····· 444
20.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 하지 않는 경우 ····· 446
21. 또래에 비해 말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운 경우 ····· 449
22. 초보적 쓰기를 통한 표현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 ····· 451
23.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경우 ····· 453
24.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말만 하려는 경향이 심한 경우 ····· 455
25. 유행어 및 비속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 457
26. 불필요한 말대꾸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 459
27. 또래에 비해 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경우 ····· 462
28. 또래에 비해 쓰기를 위한 도구 사용에 관심이 없거나 도구 사용이 매우 미숙한 경우 ····· 464

제7부. 각 론 : 인지발달영역 • 473

Ⅰ.「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 475
01.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 475
02. 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 477
03. 인지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 479

Ⅱ.「인지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 481
01. 성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 ····· 481
02. 물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 ····· 483
03. 낯선 사람에게 쉽게 안기고 따라가려는 경우 ····· 485
04. '까꿍'하면 고개를 돌리는 경우 ····· 487
05. 새로운 사물이나 놀잇감을 제시해도 관심 없거나 피하는 경우 ····· 489
06. 대상의 영속성이 생길 연령에서 놀잇감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 경우 ····· 491
07. 팔, 다리(또는 소리)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을 모방하지 않는 경우 ····· 493
08. 영아에게 물건이나 놀잇감을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탐색하지 않는 경우 ····· 495
09. 또래와 비교하여 지연모방이나 상징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 497
10. 교사나 또래의 놀이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 499
11. 끼적거리기 단계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 ····· 500

12. 익숙한 모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 502
13. 일상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504
14. 촉각으로 물건을 구분하여 알아맞히지 못하는 경우 ····· 507
15. 간단한 동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509
16. 소개된 활동의 순서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 ····· 511
17.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 513
18. 질문하는 맥락에 관계없이 대답하는 경우 ····· 516
19.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행동이 산만한 경우 ····· 518
20. 동화를 들을 때 동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 521
21. 간단한 지시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 ····· 523
22. 역할놀이때 정해진 역할을 표현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 525
23. 놀잇감을 정리할 때 뒤섞어서 정리하거나 다른 영역에 정리하는 경우 ····· 528
24. 자신의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바꿔가는 경우 ····· 530
25. 또래에 비하여 수세기를 못하는 경우 ····· 532
26. 자기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여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534
27. 이야기의 내용을 순서대로 회상하지 못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 536

참고문헌 ····· 539

부 록 ····· 540
부록 1. 인지발달지표 ····· 540

제4부. 각 론 : 사회성발달영역

Ⅰ.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01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사회성발달에 대한 이해

- 사회성이란 한 개인의 사회 적응 정도나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말함
- 애착이 특정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뜻한다면 사회성은 보다 다양한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
- 사회성발달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성의 정도는 대부분의 장애진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국립특수교육원, 2009)

1) 시기별 발달과업

- 영아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
  - 애착관계의 형성이 잘 이루어진 아동들은 부모와 격리되거나 낯선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이후 긍정적인 사회성발달의 토대가 됨
- 유아기에는 또래관계, 긍정적인 또래집단 경험이 주요한 발달과업
  - 3~5세경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며 또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임
  - 또래집단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 자기 이해, 집단 의식을 기를 수 있음

- 또래집단 경험은 유아의 입장을 배려하는 성인과의 경험과 달리 다양한 갈등상황을 수반하지만, 이는 지적·정서적·사회적발달에 필요한 탈중심화 촉진

*** 영아기 사회성의 특징***

- 주양육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이후 발달의 토대가 된다.
- 영아는 감각을 사용하여 기초적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기 시작한다.
- 집단양육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 18개월 이후부터 술래잡기나 주고받기와 같은 상호적 역할이 가능하다.
- 공통의 관심거리가 있으면 단순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언어습득과 표현기술이 발달하며 성인이나 또래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를 보인다.

*** 유아기 사회성의 특징***

- 여러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한다.
- 자기중심적이다.
- 놀이가 활발해해지지만 자아가 발달해가고 자기주장이 생긴다. 따라서 또래끼리 잘 싸우게 된다.
- 성역할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다.
- 극놀이와 집단의 놀이를 즐긴다.
- 평행놀이가 감소하고 협동 놀이가 증가한다.
- 친구와 함께하는 긍정적이 경험의 반복이 중요하다.

자료: 최명선 외,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 돕기, 201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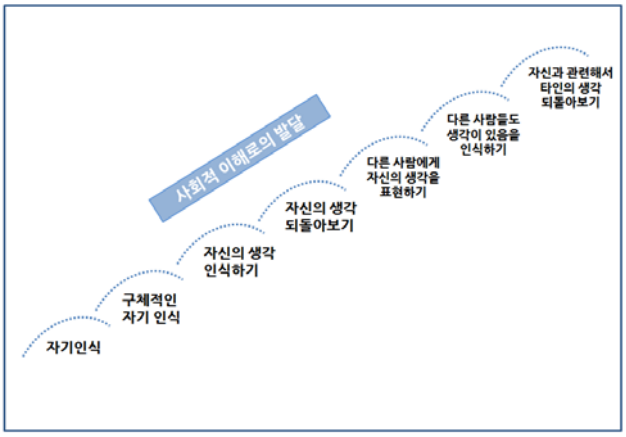
2) 사회적 이해와 자아개념발달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뿌리는 사회적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아동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Lewis & Carpendale, 2004)

-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
- 사회성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개념발달을 지원해야 함

자기인식과 사회적 이해

-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존재, 외부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아를 이해하는 것



자료: 박경자 외,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2009); Marjorie J.,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6th ed., 2009

[그림 Ⅰ-1-1]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있어 자기 인식에서 사회적 이해로의 발달

자아개념

- 유아가 자신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 짓는 속성, 능력, 태도, 가치를 조합하여 (Shaffer, 2006)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게 됨
- 12개월~24개월: "나는 엄마를 소리를 지르게 만들 수 있어!"
  -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됨
  - 언어능력이 발달하며 자신에 대해 더 잘 생각하게 되며, 초기에는 주로 나이나 성(性)과 같은 속성으로 자신을 구분 ("나는 두 살")
- 만 2세~3세: "나는 언니가 있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 자신을 매우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용어로 정의
- 만 4세~5세: "나는 철수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 자신의 특성을 예전 혹은 또래와 비교하여 정의

자아존중감

-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며 자신의 가치, 능력, 통제에 대한 평가의 결과
  - 가치: 나는 날 좋아해/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 능력: 나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나는 잘 못 해
  - 통제: 선생님은 내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 주실꺼야

- 영유아기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행동과 실제 자신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음
-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자기조절

- 아동이 사회적 기대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는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자기조절능력과 관련
- 옳고 그른 행동이나 친사회적 기술에 대해 가르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사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Marjorie, 2009)

나. 사회성발달영역에서의 문제행동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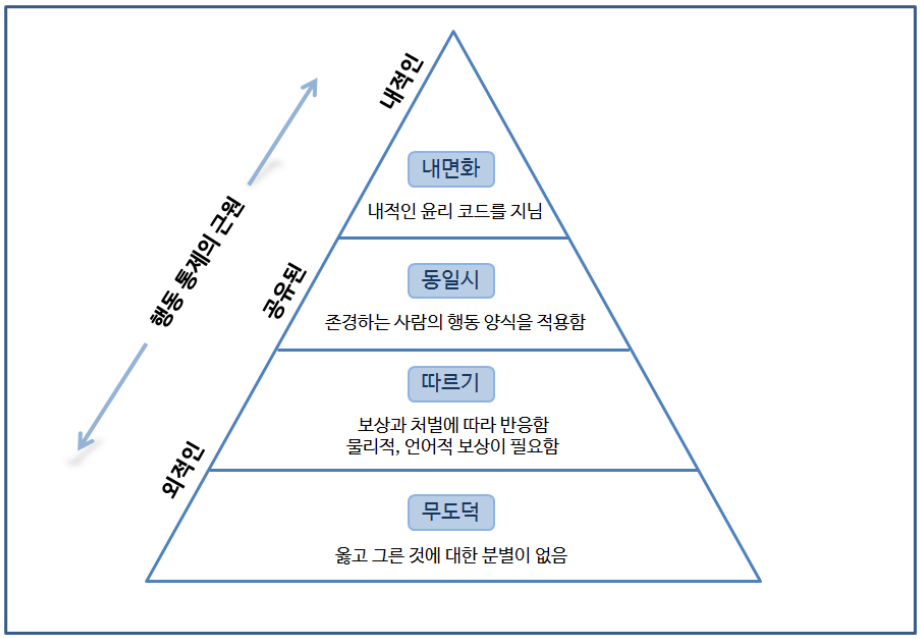
1) 원인 I: 아동관련 요인

인지적인 발달 특성 상 자기중심적임

- 발달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임
-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나 성인의 지시에 잘 반응하지 못함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부족

- 사회관계는 유아가 자기 정서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 있으며, 이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발달과 관계됨
- 미숙한 정서 조절능력으로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움
-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부족으로 공격성 표출
  - “어릴수록 직접적 행동으로 공격성을 표현한다”
- 어릴수록 신체적 공격성이나 물리적 공격성이 두드러짐



자료: 박경자 외,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2009); Marjorie J.,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6th ed., 2009

[그림 Ⅰ-1-2] 자기 조절의 발달(Marjorie, 2009)

사회적 기술의 부족

- 대인관계 행동들· 자신 관련 행동들· 학업 관련 기술들 · 자기주장 행동· 또래 수용· 의사소통 기술 부족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

- 유아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나 충동적 행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심리적인 불균형을 줄이지 못하면 짜증의 증가, 적대적인 태도 증가, 주위 산만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함

낮은 자아존중감 및 위축된 자아로 인한 의사 표현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이 낮을 시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어 표현에 두려움을 느낌

2) 원인 II: 부모 및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강압적 태도
  - 부모가 지나치게 유아를 통제하여 유아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짐
- 부모의 과잉보호
  - 과잉보호를 받은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수 있음
  - 또는, 과잉보호로 인해 스스로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으로 될 수 있음
-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 또는 묵인
  - 유아의 공격행동을 웃어넘기거나 어리광으로 받아주거나 묵인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
-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만 부모가 유독 반응을 보임
  -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유아가 공격적 행동을 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보이면 유아는 성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

-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비난, 협박, 윽박지름 등 부정적인 언어경험 제공으로 인한 학습
- 유아에게 의미 있는 성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델링
  - 성인이 유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유아의 생각이나 무시하는 경험
  -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애정철회를 자주 사용한 경험
- 성인의 부정적인 상호방식이 유아에게 주었던 강력한 영향, 통제의 경험을 학습하여 또래에게 사용하게 됨

3) 원인 III: 환경적 요인

충분한 수의 놀잇감, 충분한 놀이 공간 및 활동 시간 제공 부족

-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부족으로 소유로 인한 갈등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모양·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 시 소유로 인한 갈등 발생

- 충분한 놀이공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의 부족

-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쉴 수 있지 않을 시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균형감이 깨어짐

부정적인 양육환경

- 일관적인 양육자가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음
  - 돌보는 사람이 일관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됨
-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환경 제공 부족
  -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 및 감정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하게 반응함을 통해 영아는 사회에 대한 신뢰, 자존감 등을 형성할 수 있음

02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

〈표 Ⅰ-2-1〉 사회성발달영역 사례목록

구분	번호	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무는 경우	A. 공격행동
	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3	할퀴는 경우	
	4	놀잇감을 던지는 경우	
	5	놀잇감을 뺏는 경우	
	6	짜증내는 경우	
	7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B. 위축/단절
	8	자신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유아	9	때리는 경우	A. 공격행동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12	떼쓰는 경우	
	13	지기 싫어하는 경우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15	힘 조절이 안되는 경우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B. 위축/단절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18	부끄럼이 많은 경우	
	19	의존적인 경우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C. 기타 갈등유발행동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23	반항하는 경우	
	24	고자질하는 경우	
	25	거짓말하는 경우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03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지도 방안

- 사회성발달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은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볼 수 있음

- 영유아들이 집단생활을 하며 겪는 갈등상황을 긍정적인 교육의 기회로 바라보기
  - 갈등은 집단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임. 유아들은 갈등에 직면해 봄으로써 실제 삶과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유익함(Crosser, 1992, p.28)[12)]
    - 갈등상황을 없애고,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는 영유아를 벌을 주는 등 갈등을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는 새로운 시각 갖기
    - 갈등은 감정 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의 힘을 경험할 있는 기회
  - 갈등은 교사에게도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됨
    - 갈등은 교사에게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단계와 스스로 논쟁을 해결해 가는 유아의 능력에 대한 통찰 제공

- 갈등상황 지도는 갈등상황에서의 즉각적 개입 및 갈등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으로 구분함

가. 즉각적 개입: 문제행동 발생 상황에서 교사가 즉시 개입

- 문제행동으로 인해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즉시 개입

-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영유아의 마음을 우선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동시에 행동에 대한 제한과 적절한 대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 지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갈등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상호작용 4단계

상호작용 단계 1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 모든 갈등상황에서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함. - 감정이 격양된 상태일 때는 먼저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안아주기 ■ 등 토닥여주기 ■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기

12) Crosser, 2. (1992). Managing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Young Children, 47(2), 23-29

	- 영아의 감정과 상황을 읽어주기 ■ 간결한 말로 상황을 표현해주기 ■ 등 토닥여주기 ■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기
상호작용 단계 2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생긴 상황임을 인식시키기 - 각자의 입장을 말할 기회 주기 -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친구의 행동 의도를 읽어주기
상호작용 단계 3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하게 말하기 - 필요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상호작용 단계 4	적절한 대안 방법 찾기
	- 서로 해결방안을 제안해보기 -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적용하기

-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4단계는 갈등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만 적용해도 됨. 즉, 1단계, 2단계, 또는 3단계 까지만 적용할 수 있음

나. 예방적 접근: 문제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

- 문제행동으로 인한 갈등상황 발생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
- 수용적이고 공감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함
-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소에 바르게 행동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모델링과 설명을 통해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 나누기, 차례 지키기, 경쟁을 게임으로 받아들이기 등 친사회적 기술을 놀이 활동 및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향상시키기
- 일과시간 구성, 놀잇감의 수, 공간 배치, 놀이 환경 등 환경을 개선하기
-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기

1) 자아존중감 향상

- 수용적이고 공감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함

- 감정 조절이 어려운 유아들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유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의 높은 자존감 형성 돕기
  -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지하기

-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 교사가 경청하는 모델 보여주기
    - 안아주기
    - 등 토닥여주기
    - 고개를 끄덕이며 안아주기
  - 교사가 상호존중하는 태도 보여주기
    -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 영아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 영아의 감정이나 행동 반영하기
    - 나-전달법으로 교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모델 보여주기
    - 영아가 한 행동이나 일을 격려하기

- 유아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그림책 등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 제공
  - 언어표현이 보다 능숙한 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공
  - 감정의 표현을 통해 타인이 느끼게 될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기
    - 역할놀이, 창의적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
    - 베토벤의 '운명', 슈베르트의 '마왕' 감상하며 느껴지는 기분을 신체로 표현하기

-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대처 기술 지도하기
  - 비언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 유아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다른 언어적 속성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함
- 교사는 유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몸짓을 하고, 교사 자신의 정서와 행동 역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의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해소할 기회 제공하기
- 위축되거나 부정적 정서는 대놓고 표현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러한 태도를 무시하기보다 좀 더 건설적인 대처 방식을 갖도록 지도해야함

❖ 일과에 휴식시간을 포함하기
- 스트레칭, 긴장 풀기, 근육 이완, 호흡을 이완하기 위한 운동과 같이 일정한 시간마다 모든 또래가 함께 참여하는 휴식 시간을 계획함

2) 자기조절력 증진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소에 바르게 행동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모델링과 설명을 통해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하기

❖ 분명한 규칙 마련하기
- 유아들 스스로 규칙 정하기
- 다양한 교실활동을 통해 규칙 설명하기

❖ 규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기
- 교실의 규칙에 대한 유아의 생각, 느낌 이야기 하는 시간 갖기
- 토의를 통해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 의논하기

관심을 끌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하지 않도록 지원

❖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 영아가 부정적인 컨디션을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신체적·정서적 컨디션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 주기

❖ 영아의 잘못된 표현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기
- 맥락은 다양하지만 영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중 많은 경우는 관심끌기이므로, 과하게 온정적으로 혹은 과하게 훈육적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공격 행동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음

- 교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영아가 스스로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

자기조절 기술 배워 나가도록 돕기

- 영아는 주변 성인의 반응이나 모델링을 통해 자기조절 기술을 배워나감
  - 잘못된 행동이라고 심하게 훈육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성인이 '안 돼!'라고 반응한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음
  - 행동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한 훈육을 반복할 경우 아이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음
- 유사한 행동을 거듭 할 때 성인이 반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영아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나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
  - 성인의 여유있고 반복적인 안내를 통해 영아는 자기주장과 자기조절 기술 배울 수 있음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놀이 활동 계획하기

- 집단생활을 장시간하는 영아들을 위해 음악감상이나 스트레칭과 같이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
- 돌 전후의 영영아의 경우 마사지와 같은 스킨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기저귀 갈이와 같은 일상적인 돌봄 시간에 교사가 일대일로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는 것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됨

3) 사회적 기술 향상

나누기, 차례지키기, 경쟁을 게임으로 받아들이기 등 친사회적 기술을 놀이 활동 및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향상시키기

친사회적 행동 모델링: 나누기

- 아직 또래의 의도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영아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나 간식 등을 나누어 주며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
- 영아들이 또래와 나란히 놀이하고 있거나 자신의 놀잇감을 선뜻 건네주는 상황을 보면 교사가 이를 읽어주고 지지하며 긍정적 행동 강화

'나누기' 경험하기

- 좋아하는 또래에게 영아가 애착을 갖는 놀잇감이 아닌 것부터 또래에게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 자기중심적인 영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므로 일상적인 용품이나 간식 등을 나누는 경험을 할 기회 제공

대물다툼 상황을 예방하기: 차례 정하기

- 수량을 늘릴 수 없고 많은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컴퓨터 영역·피아노 등)라면 유아에게 순서를 지키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회로 이용
- 차례 정하기 방법
  - 모자에서 이름표 꺼내기(모든 유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
  - 번호표(원하는 친구만 참여하게 함)
  - 시간을 제한하는 자명종 시계나 모래시계 비치
  - 차례 정하기를 통해 사회적기술·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으며 차례 정하는 과정을 놀이보다 더 즐길 수도 있음
- 차례 지키기는 통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대물다툼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의 신뢰를 느끼게 할 수 있음

놀이경험에서 경쟁성 지도

-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승리를 조절
- 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말로 표현
- 유아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지 않기
- 특별한 기술이나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게임이 아닌 운에 의해 승부가 나는 게임 방법을 정해 지나친 경쟁성 줄이기
- 유아들이 지나친 흥분이나 경쟁성을 보이면 흥분을 가라 앉히도록 돕기

4) 환경개선하기

일과시간 구성, 놀잇감의 수, 공간 배치, 놀이 환경 등 환경을 개선하기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물리적 환경 구성하기

-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놀잇감을 다양하게 구비하기 보다 모양·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0-1세 영아 10명이 지내는 학급에 4개의 흥미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면, 흥미영역당 4명(학급별 아동수/흥미영역 * 1.5)의 영유아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수량의 놀잇감이 충분함의 기준

◆ 충분한 놀이공간 확보
- 영아는 자신의 놀잇감,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옆 또래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잦음
- 개별적인 놀이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영역간의 동선을 고려하여 환경구성

◆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 제공
- 일과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계획하여 영아들이 여유를 가지도록 함

또래나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제공

◆ 만2세 영아의 경우 비슷한 활동을 각자하는 평행놀이를 즐김.

◆ 점차 또래와 교류하는 놀이·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슷한 기질이나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끼리 가까이 있게 하거나 교사가 놀이에 초대
- 교사가 '또래 친구'의 역할을 하며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해하며 놀이에 개입함
- 두 아이가 각자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교사가 놀이과정이나 영아의 행동을 큰 소리로 묘사해주어 아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 줌

일과 중 영아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보육실 내 휴식공간 마련하기
- 다른 영아의 움직임이나 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 구성
- 어린 영아는 혼자 휴식 취하기를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므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쿠션이나 봉제 인형 등으로 아늑하게 구성

◆ 일과의 균형성 확인하기
-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정적·동적인 활동을 균형있게 배치
- 영아의 경우 피로감이 극에 달할 때까지 이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미리 교사가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일과 운영시 활동과 활동 사이 전이시간을 충분히 가져 교사가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필요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함

5) 부모와 협력하기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 이해시키기

-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기
  - 영아의 기질에 맞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공감하기

- 유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스트레스 정보 공유하기
- 부모의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시키기

- 일관적인 양육자가 보살핌을 제공함
  - 돌보는 사람이 일관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됨
-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환경 만들기
  -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 및 감정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하게 반응함을 통해 영아는 사회에 대한 신뢰, 자존감 등을 형성할 수 있음

문제행동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도방법 알려주기

Ⅱ.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01 무는 경우

만 1세/ 여아
영아가 가지고 놀던 모형 컵을 책상 위에 두고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교구장으로 이동한다. 그 때 다른 친구가 책상 위에 있던 컵을 만지고, 그 모습을 본 영아를 빠르게 달려와 친구의 팔을 물며 컵을 세게 잡아당긴다. 친구가 소리를 지르자 '내꺼야!' 하며 얼굴을 밀치고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 분석

- 자신이 원하는 컵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고는 자신도 놀라서 움
- 아직 어려서 집단생활에서 필요한 '놀잇감 나누어 쓰기'가 어려움
- 놀잇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름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의 경우 성인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무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음
- 돌 전후의 영아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며 무언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를 느껴 또래를 물거나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자신에게 필요한 놀잇감을 뺏기기기 싫어서 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한 영아의 마음을 읽어준 뒤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상호작용을 함

-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읽어주기
  - 영아를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두 아이를 우선 각각 안아준다.
  - 영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놀고 있는 컵을 친구가 가져가는 줄 알았나보네.”
    - “친구가 놀잇감을 만지는 게 싫었구나.”
    - “친구가 옆에 오는 게 싫었구나.”
    - “친구를 물고 밀치고 나선 너도 놀랐구나.”

-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교사가 밀친 행동에 집중하여 일방적인 가해자-피해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함
  -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생긴 것에 초점
  - 공격 행동으로 인한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물어서 친구가 아프겠다.”
    - “소리를 질러서 친구가 놀랐겠다.”
  - 친구 행동의 의도를 읽어주기
    - “친구가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놀고 싶어서 컵을 만질 수도 있지.”

- 상호작용 3단계: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 단호한 태도로 전달하되 영아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함
    - 감정은 공감해주되 영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한함
    - 낮은 목소리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전달
    - “친구가 가져가더라도 물거나 때려서는 안돼.”
    - 교사가 자신의 손가락을 입 위에 얹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임.

- 물린 친구의 아픔을 상기시키기
  - (물린 상처를 보여주며) “물면 친구가 아파.”
- 무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조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나-전달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시키기
  - “친구에게 내가 놀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렴.”

2) 예방적 접근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에 성인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격 행동을 하기도 함. 무는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교사의 주의를 끌어냈다는 측면에서 무는 행동을 강화하여 지속시킬 수 있음. 따라서 평소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줌

- 영아의 말과 행동을 적극 반영하기
  -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 영아의 감정이나 행동 반영하기
- 영아의 감정에 공감하기
  - 영아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발달적으로 아직 ‘나누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집단생활에서 필요하므로 나누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주기
  - 아직 또래의 의도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영아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나 간식 등을 나누어 주며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
- 나누는 행동을 할 때 격려하기
  - 영아들이 또래와 나란히 놀이하고 있거나 자신의 놀잇감을 선뜻 건네주는 상황을 보면 교사가 이를 읽어주고 지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강화
  - “우와~ 같이 하니까 재밌겠다.”
  - “친구 하라고 빌려줬구나. 고마워!”

물기 예방하기

- 돌 전후의 영아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며 무언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를 느껴 또래에게

물거나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 평소에 잇몸이 간지러워 놀잇감이나 인형을 무는 경우에도 물지 않도록 얘기하기
- 치아발육기 등 물어도 되는 것을 주어 영아의 욕구를 수용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언어적인 설명과 함께 교사가 행동으로 보여줌.
- 자신의 입장을 언어로 표현하는 동극 활동 활용하기

구강기 영아의 특성 이해하기

- 생후 1년 전후의 구강기
  -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중 제 1단계는 생후 1년 전후까지의 구강기
  - 이 단계에서는 입과 구강 부위에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몰려 있음
  - 손가락이나 젖꼭지를 빨거나 입에 닿는 것을 무는 것과 같은 구강 활동이 영아들에게 쾌감을 주게 됨
  - 이 시기 구강을 통한 쾌감을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 발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착 형상이 일어나므로 영아의 빨고 무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이 요구됨

02 교사를 밀쳐내는 경우

만1세/ 남아
출근하는 엄마와 바쁘게 등원하느라 영아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실에 떠밀리듯 들어왔다. 교사가 "○○야, 어서와~" 하고 인사하며 안으려 하자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리가!" 하고 소리를 지른다.

가. 원인 분석

엄마와 헤어져 기분이 나쁜 것을 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대신 표현함

때리는 행동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

- 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함.
- 때리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인지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이 부족함.
- 영아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행동임
- 언어표현 능력이 미숙하므로 때리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속상하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

엄마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남

-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마친 후라도 영아들의 경우 그 날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등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함
- 등원 시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면 일과 내내 힘들어하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등원과 맞이하기에서 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요구됨

공격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던 이전의 경험은 공격성을 강화시켜 영아가 습관적으로 공격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엄마와 헤어져 기분이 나쁜 것을 교사를 때리고 밀치는 행동으로 표출

영아의 마음을 먼저 읽어준 뒤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상호작용을 함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기분을 알아주기

- 교사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함
  - "엄마가 빠~이하고 가셔서 속상하구나. 선생님이 안아주는 것도 싫고."
  - "엄마랑 헤어지는 게 속상해서 화가 났구나"

상호작용 2단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마음 전하기

- "선생님은 ○○이 달래주고 싶어서 안으려고 한거야. ○○이 기분 나아지게 도와주고 싶어서."

상호작용 3단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친 행동 제한하기

- 아직 언어표현 능력은 미숙하나 언어를 이해 능력은 이보다 훨씬 우수함
- 12~18개월 된 영아는 타인이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단서를 이해하고 공감적인 표현과 반응을 보일 수 있음
- 영아의 눈을 바라보며 교사의 상황과 마음을 '나 전달법'으로 분명하게 전달
  - "때리면 선생님이 아파."
  - "○○이 때리니까, 선생님은 속상하고 아파"
  -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되는 거지."
  - "싫을 땐 소리치지 않고 싫다고 말하는 거야."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다른 방법 찾기

- "어떻게 하고 싶니?"
- "○○이 참고 기다릴테니 엄마 늦지 말고 오시라고 하자."
- 아이를 부드럽게 쳐다보며 잠시 그대로 둠

2) 예방적 접근

등원시 엄마와 헤어지더라도 여전히 엄마의 지속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등원과 맞이하기를 일관적으로 함

- 엄마가 시간여유가 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다 가면 영아는 매일 그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행동(울기, 떼쓰기, 공격적인 행동하기 등)으로 관심 끌기를 시도하게 됨
- 등원시 충분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생활을 격려하는 인사를 나눈 뒤 교사에게 맡기도록 함
- 일정한 등원 순서를 통해 엄마는 가고 자신은 남아서 어린이집에서 논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도록 지도함

공격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던 이전의 경험 때문에 영아가 습관적으로 공격행동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행동을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서 공격행동을 강화하지 않기

- 영아의 잘못된 표현 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기
  - 맥락은 다양하지만 영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관심끌기 이므로 과하게 온정적으로 혹은 과하게 훈육적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공격 행동을 오

히려 강화시킬 수 있음

- 교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영아가 스스로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

일상생활에서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아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공격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 영아가 부정적인 컨디션을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신체적·정서적 컨디션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 주기

03 할퀴는 경우

만2세/ 남아
○○이는 간식을 먹기 위해 교사 옆에 앉는다. 또래가 ○○이 옆자리에 앉자 '아니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어 얼굴을 할퀸다. 교사가 또래를 얼른 떼어놓자 ○○이는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 분석

교사의 개별적인 돌봄을 원하는 상황에서 또래를 방해가 된다고 여김

- 18개월경이 되면 동생이나 또래와 같은 경쟁자에게 자신의 애정대상을 빼앗겼거나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질투정서가 나타남
- 또래에게 교사의 관심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동생이 태어나 부모님의 보살핌이 줄어든 상황 등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
- 집단생활을 하고 있지만, 발달적으로 아직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할 수 있음
- 기질적으로 예민하여 또래가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력 부족

- 또래가 그저 간식을 먹으려고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
- 또래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려거나 교사의 관심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상황을 해결한 사회적 기술 부족

- 또래의 행동이 싫을 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 모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교사의 개별적인 돌봄을 원하는 상황에서 또래를 방해가 된다고 여김

상호작용 1단계: 감정 반영하기

- 영아들의 전형적인 발달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는 영아를 앉아서 달래면서 할퀸 영아의 마음 읽어주기
  - "(등을 토닥이며) 아퍼서 어쩌나~. ○○가 **이가 곁에 앉는 것이 싫었나보네."
- 할퀸 영아의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와 속상한 기분 읽어주기
  - "(울고 있는 영아를 토닥이며)○○가 선생님이랑만 있고 싶었구나."
  - "갑자기 친구가 옆에 앉아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 "친구를 할퀴고는 ○○이도 혼날까봐 걱정이 되서 우나보네."

상호작용 2단계: 친구의 입장 설명하기

- **도 간식 먹으려고 왔는데 ○○가 할켜서 놀라고 아프겠다."
- "**이는 ○○가 왜 그러는지 모를 거야."

상호작용 3단계: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히 알려주기

- 할퀴기와 같은 공격 행동은 학습되기 쉬우므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 됨을 알려줌
  - "곁에 오는 것이 싫어도 친구를 할켜서는 안돼."
  - "그렇게 하면, 친구가 아파"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방법 제시하기

- 영아의 언어적발달수준에 맞추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함
  - "불편할 땐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 영아가 진정이 되면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간식을 먹어야 함을 설명
  - "○○처럼 친구들도 배고파서 이렇게 같이 앉아 간식 먹어야 돼."

- 같이 먹는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돕기
  - "우리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노래를 같이 부르며 죽을 식혀볼까?"

2) 예방적 접근

■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만2세 영아의 경우 비슷한 활동을 각자하는 평행놀이를 즐김
- 점차 또래와 교류하는 놀이·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슷한 기질이나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끼리 가까이 있게 하거나 교사가 놀이에 초대
  - 교사가 '또래 친구'의 역할을 하며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해하며 놀이에 개입함
  - 두 아이가 각자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교사가 놀이 과정이나 영아의 행동을 큰 소리로 묘사해주어 아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 줌
  - "○○이는 죽이 뜨거워서 후후 불고 있구나. □□야, 우리도 불어보자."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영아의 손톱 상태를 가정과 연계하여 매일 확인

- 할퀴기, 꼬집기 등은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미숙한 영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공격행동임
- 특히 영아의 손톱은 얇아서 더 날카로우므로 일상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함

■ 할퀴기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공감 후에 행동기준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먼저 행동을 제지한 후에 공감해주는 순서로 바꾸어 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는 때로 훈육자의 첫 번째 긍정적 반응으로 자칫 제지의 전달이 불충할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행동 반복될 경우에는 보다 단호한 제지 반응을 먼저해 줄 필요가 있음. 먼저, 즉각적으로 손을 잡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친구를 할퀴면 안돼",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친구를 할퀴면 안돼는 거야." 제지를 먼저하고 나서 "속상했구나. 그래도 할퀴면 안돼"라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함.

■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접근의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제지를 한 후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함.

04 놀잇감을 던지는 행동

만 1세/ 남아
주변의 놀잇감을 별 이유 없이 장난삼아 던진다. “친구가 맞으면 아프다”, “놀잇감 망가진다.” 하면서 행동을 제지해도 “던질 거야.”라고 하면서 보란 듯이 던지기를 계속한다. 교사가 던지지 못하도록 팔을 잡으면 교사를 발로 차며 공격한다.

가. 원인 분석 (이론적 근거 포함)

-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도 재미삼아 던질 수 있음
-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던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반복적으로 던지고 싶어할 수 있음
  -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임
- 던지고자하는 욕구를 제지하자 계속 하고 싶어거나 속상해서 공격행동을 보임
- 발달적으로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가 형성되기 않는 시기임
  -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못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던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재미삼아 던질 수 있음
- 상호작용 1단계: 감정 반영하기
  - 영아들의 전형적인 발달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임
  - 던지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을 반영함
    - “○○는 던지는 것이 재미있나 보네.”
    - “재미있는데 선생님이 못하게 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때리는 구나.”
    - “하고 싶은걸 선생님이 못하게 하니까 속상해서 선생님을 때리는 거니?”

상호작용 2단계: 다른 입장을 설명하기

- "던진 걸 친구가 맞으면 아파."
- "놀잇감이 망가지면 가지고 놀지 못해."
- "선생님은 친구가 맞을까봐, 놀잇감이 망가질까봐 걱정이야."

상호작용 3단계: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히 알려주기

-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임을 알려주기
  - "재미있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놀잇감을 던지면 안돼."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활동 찾아주기

- 던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던지기 놀이 기회주기
  - 콩주머니 던지기, 스카프 던지기, 헝겊 공 던지기

2) 예방적 접근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조절하도록 격려하기

- 차거나 때리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상하고 화나게 한다고 알려주기
- 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때 격려하기
  - 교사의 권유나 설명을 받아들여 던지기를 중단하면 진심으로 격려해주기

05 놀잇감을 뺏는 경우

만 2세/ 남아
놀잇감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고, 친구가 가진 놀잇감도 자주 뺏는다. 또래들이 같이 놀이하고 있으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다.

가. 원인 분석 (이론적 근거 포함)

친구와 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친구 놀잇감을 빼앗거나 놀이를 방해할 수 있음

- 친구가 가진 놀잇감을 자신도 가지고 놀고 싶어서 뺏는 것일 수도 있음

- 친구 것을 빼앗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발달적으로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임으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몰입되어 있음

- 놀잇감 등 물건을 나누거나 요청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놀잇감을 혼자 소유하려고 함
  -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 소유에 대한 갈등이 90~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Hay,1984)[13]
  - 물건 나누기는 또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교사는 영아가 또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이영 외, 2006)[14]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친구와 놀고 싶거나 또는 그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할 수 있음

-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욕구 인정해주기
  - "친구가 갖고 놀고 있는 놀잇감을 너도 가지고 놀고 싶구나"
  - "친구와 같이 놀고 싶니?"

- 상호작용 2단계: 친구의 입장 설명하기
  - "친구가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네가 가져오면 빼앗는 거야."
  - "친구 것을 빼앗으면 친구가 속상해."
  -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를 불편하게 하면 친구들이 짜증나서 같이 놀자고 안해."

- 상호작용 3단계: 용납 되지 않는 행동 설명해주기
  - 잘못에 대해 지적할 때 아이가 아니라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

13) Hay,D.F.(1984). Social Conflict in early childhoo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1, 1-44
14) 이영, 김온기, 우현결(2006). 영아 놀이, 서울: 다섯수레

- 다른 사람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행동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알려주기
  - "놀고 싶다고 친구가 놀고 있는 놀잇감을 가져오면 안돼."
  -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소리 지르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친구들 놀이를 방해하는 거야."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알려주기

- "친구한테 나도 놀아도 되니 하고 물어보자."
- "돌아가면서 같이 놀자고 하자, 너 놀 동안 '기다릴게'라고 얘기해보자"

2) 예방적 접근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물리적 환경 구성하기

-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놀잇감을 다양하게 구비하기 보다 모양·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0-1세 영아 10명이 지내는 학급에 4개의 흥미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면, 흥미영역당 4명(학급별 아동수/흥미영역 * 1.5)의 영유아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수량의 놀잇감이 충분함의 기준
- 충분한 놀이공간 확보
  - 영아는 자신의 놀잇감,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옆 또래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잦음
  - 개별적인 놀이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영역간의 동선을 고려하여 환경구성
-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 제공
  - 일과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계획하여 영아들이 여유를 가지도록 함
  - "친구가 아직 다 안 놀았대. 우리가 조금 기다리자."

'나누기' 경험하기

- 좋아하는 또래에게 영아가 애착을 갖는 장난감이 아닌 것부터 또래에게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 자기중심적인 영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나누는 것은 거부하므로 일상적인 용품이나 간식 등을 나누는 경험을 할 기회 제공

자기조절 기술 배워 나가도록 돕기

- 영아는 주변 성인의 반응이나 모델링을 통해 자기조절 기술을 배워나감
  - 잘못된 행동이라고 심하게 훈육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성인이 '안 돼!'라고 반응한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음
  - 행동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한 훈육을 반복할 경우 아이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음
- 유사한 행동을 거듭 할 때 성인이 반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영아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나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
  - 성인의 여유있고 반복적인 안내를 통해 영아는 자기주장과 자기조절 기술 배울 수 있음

06 짜증내는 경우

만2세/ 여아
아빠 품에 안겨 잠이 덜 깬 채로 등원한 영아는 교사에게 안긴다. 교사가 휴식영역의 매트에 눕히자 울먹이며 피곤한 기분을 표현한다. 옆에서 놀이를 하던 또래가 다가오자 큰 소리로 '하지 마!' 하고 소리 지른다. 또래가 옆에 앉자 영아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발버둥을 치고 또래의 몸을 밀며 '저리가!' 한다. 교사가 진정시키려 해도 영아는 '아니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에 보이는 놀잇감을 잡아 또래에게 던진다.

가. 원인 분석

피곤하여 소리치고, 밀치고, 던지는 등 공격행동을 함.

수면부족 등 피로로 인한 짜증

- 영아의 월령이 어릴수록 배고픔, 수면 등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컨디션에 민감하게 영향 받음

친구가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친구가 매트에 올라오는 것을 자신의 쉼터를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빼앗기기 싫어서 친구에게 소리치고 울고 던짐.

신체적,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모름

- 자신이 왜 불편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
- 울며 짜증을 내거나 물건을 던지고 주변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

쉴 수 있는 장소 마련이 부족한 환경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수면부족 등 피로로 인해 짜증이 난 상태에서 다가오는 친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음.

상호작용 1단계: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읽어주기

- 먼저 던진 놀잇감에 친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기
- 영아를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영아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은 안아주기, 등을 쓸거나 토닥여주기 등이 있음
  - 영아에 따라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영아의 상태를 지켜보며 진정되기를 기다림
- 영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이가 자다가 깨서 기분이 안 좋구나.”
  - “친구가 옆에 오는게 귀찮나보네.”

상호작용 2단계: 상황 설명하기

- “친구는 ○○이랑 같이 놀고 싶었대”
- “친구도 놉고 싶데”

상호작용 3단계: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기

- 짜증나거나 방해받기 싫더라도 소리치거나 밀치거나 때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설명함.

상호작용 4단계: 바람직한 행동 설명하기

- "친구에게 나 지금 기분 안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자."
- "매트에서 조금 더 쉴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마련하기

- 각자 누울 수 있도록 공간 구분해주기
- 매트를 각자 하나씩 마련해주기

2) 예방적 접근

일과 중 영아가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보육실 내 휴식공간 마련하기
  - 다른 영아의 움직임이나 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공간 구성
  - 어린 영아는 혼자 휴식 취하기를 거부하거나 어려워하므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쿠션이나 봉제 인형 등으로 아늑하게 구성
- 일과의 균형성 확인하기
  -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정적·동적인 활동을 균형있게 배치
  - 영아의 경우 피로감이 극에 달할 때까지 이를 자각하지 못하므로 미리 교사가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일과 운영시 활동과 활동 사이 전이시간을 충분히 가져 교사가 영아의 개별적인 요구나 필요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놀이 활동 계획하기
  - 집단생활을 장시간하는 영아들을 위해 음악감상이나 스트레칭과 같이 신체적 긴장과 피로를 이완시키는 활동을 계획하여 실시
  - 돌 전후의 영아의 경우 마사지와 같은 스킨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기저귀 갈이와 같은 일상적인 돌봄 시간에 교사가 일대일로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는 것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됨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영아가 바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공격적인 행동이 줄일 수 있음

- 짜증이 난 상태에서는 친구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기 힘듦.
  따라서, 상황을 이해시키기 보다는 우선 잠시 혼자 두는 것이 좋음.
- 피곤을 풀어주는 이완놀이 활동 활용하기

부모협조 요청 및 정보 제공하기

- 부모님에게 영유아의 가정 내 수면시간 확인
  - 영아기 권장 수면시간은 돌 이전 영아가 14~15시간, 12개월~36개월 영아가 12~14시간임(국제수면학회, 2013)
  - 부모 위주의 생활패턴을 가진 가정의 경우, 영아의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영아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 수면이 두뇌 및 정서발달에 끼치는 영양, 일과에서보이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 구하기

07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만 1세/ 남아
엄마의 등 뒤에 숨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영아는 엄마가 나가자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블록을 꺼내 놀이한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 둘 친구들이 등원하자 영아는 놀이를 멈추고 교사에게 다가가 안긴다. 일과 중에도 영아는 교사의 주변을 맴돌고 교사에게만 반응을 보인다.

가. 원인 분석

처음으로 겪는 집단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함

- 주 양육자인 부모와 떨어져 낯설고 생소한 환경인 어린이집에 혼자 놓아지는 경험은 영유아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불안감을 갖게 할 수 있음
- 이 시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또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함.

교사를 애착대상인 엄마의 전이대상으로 느껴 교사에게 매달림

-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서 애착전이대상(교사) 역시 자신과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

- 또래보다는 교사에게만 관심을 가짐

- 집단생활의 긴장에서 오는 불안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

- 또래관계 맺기가 어려움
  - 아직 상호간에 의사표현이 서툴다보니 관계나 놀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움
  - 만2~3세경까지는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혼자서 놀거나 또는, 자신이 참여하지는 않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는 방관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임[15)]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집단생활에서 오는 긴장이나 불안감을 적절히 표출하기 못하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아직 어려움

- 자신의 불안감으로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상호작용 1단계인 감정 수용하기 까지만 적용함

- 영아의 불안감 수용하기
  - 엄마를 대신해서 안아서 토닥거려줌
  - 불안감 반영하기
    - “엄마가 가셨네. 끝나고 다시 오실거야.”
    - “친구들이 아직 낯설구나.”
    - 안기는 영아를 잠시 토닥여 주기

2) 예방적 접근

-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적응 돕기
  - 부모에게 영아가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감 이해시키기

15) 황희숙 외(2008).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학지사

-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초기 적응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제공하기

- 소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놀이 제시
  - 형태 변형이 쉬운 밀가루 반죽, 점토, 종이 등을 제공하여 함께 하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제공
  - 다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 “00이는 빵을 만들었네. 우린 그릇을 만들었는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등원시 엄마와 헤어질 때 인사를 나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데려오기
- 엄마를 대신할 물건을 가정에서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기
  - 발달적으로 엄마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을 느끼는 시기임으로 가정에서 영아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놀잇감 등을 가져오는 것도 도움이 됨

적응프로그램 기간 동안 일관적인 부모님의 협조 요청하기

- 일관적인 등, 하원 시간 지키기
  - 영아는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일이 끝난 뒤 나를 데리러 올 것임을 이해하게 됨
-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 형성하기
  - 부모가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 못하고 불안해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음

하원 후 가정에서 온정적인 시간 보내기

- 기분이나 건강 상태도 또래와 어울리기를 시작하는 영아에게 중요한 요인
- 가정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 부탁하기

08 자기의 관심에만 몰두된 경우

만 2세/ 남아
다른 또래들이 바깥놀이를 가기 위해 출입문 앞에 줄을 선다. 영아는 창문 앞에 서서 커튼 끝자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다. 커튼이 움직일 때 마다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거나 배시시 웃는다. 교사가 다가가 '00이 뭐하고 있어?' 물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00아, 다른 친구들이 모두 00이를 기다리고 있네' 교사가 말하자 영아는 다시 커튼을 잡고 들며 입으로 '뜨끄뜨끄뜨끄' 소리를 낸다.

가. 원인 분석

- 자기생각에 몰두되어 주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제한된 관심으로 단순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
  - 단순한 상동적인 움직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영아들은 다른 것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어려움
  - 상동행동을 못하게 하면 저항이 심함.

- 분리불안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시적으로 제한된 행동이나 관심을 보이기도 함.
  - 정서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 관심의 범위가 좁아지게 됨
  - 특정 행동이나 놀이의 반복을 통해 내적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려는 행동일 수 있음.

-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 애착형성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음
  - 생후 초기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에 돌보는 사람이 빈번하게 교체되거나 민감하게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면 애착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
  - 영아기의 애착장애는 이후의 또래관계,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자기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양육 환경은 아이의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 형편 및 환경적 조건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 생물학적, 유전적,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자폐스펙트럼일 가능성도 있음

나. 지도 방법

- 제한된 관심이 불안정한 애착이나 기질적인 자폐스펙트럼에서 기인될 수 있으므로 유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기

-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가 아님으로 상호작용 4단계를 순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영아의 관심 따라가기
  -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함께 관심 갖기
    - "커튼을 놓으니 스르륵 내려가는구나!"
  - 영아가 하는 행동 따라해보기
    - 영아가 내는 소리를 따라 내보기

- 관심을 적절하게 전환 시켜주기
  - 영아가 내는 소리나 동작을 교사가 조금 변형하기 해보기
  - 영아가 흥미를 가지기 쉬운 방법으로 분위기를 환기 시키기
    - "어? 00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친구들이 부르고 있네?"
  -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 시키기
    - "친구들에게 한 번 가보자."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지도 Tip
  - 부모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 어린이집 생활 중 관찰된 에피소드를 객관적으로 전달함
  - 불안정한 애착감이나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경우에는 편안한 태도로 바라봐주면서 앞서의 '아이의 관심 따라가기'와 같이 꾸준한 반영과 관심을 주면 아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관심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양육환경이 원인인 경우, 부모가 가질 죄책감에 대해 격려하고 교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돕는 태도 보이기

양육환경,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기
  - 영아의 기질에 맞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
- 일관적인 양육자가 보살핌을 제공함
  - 돌보는 사람이 일관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됨
-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환경 만들기
  -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욕구 및 감정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하게 반응함을 통해 영아는 사회에 대한 신뢰, 자존감 등을 형성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도움 받기

- 자폐증은 3세 이전의 발견이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므로 조기 발견과 함께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 성급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교사는 적절한 전문기관을 소개시키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

09 때리는 경우

만 5세/ 남아
유아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친구의 옆에 다가가 앉는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며 친구에게 “야 나 좀 치자~옆으로 좀 비켜봐”한다. 친구가 “왜! 내가 먼저 왔잖아.”하고 대답하자 유아는 “너 아까부터 많이 쳤잖아”한다. 그래도 친구가 피아노 치기를 계속하자 유아는 친구를 세게 치고 의자 밖으로 밀어낸다.

가. 원인 분석

대물다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적 기술을 다 사용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신체적인 공격성에 보이게 됨
- 갈등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아동은 공격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음

공격적 행동에 대한 잘못된 경험·기대

- 공격적 행동은 즉각적인 물질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강화됨
- 친구를 때려서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경험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할 수 있음
-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공격행동을 강화함
  -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부모가 떼를 쓰면 들어주거나 공격행동을 제재할 때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서 공격행동을 반복함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폭력적인 행동
  - 통제가 지나치면 유아의 욕구불만이 높아져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체벌 등을 사용할 때 오히려 모델링이 되어서 더 공격적으로 됨
-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 유아의 공격행동을 웃어넘기거나 어리광으로 받아주거나 묵인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남
- 부모의 과잉보호
  - 과잉보호를 받은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수 있음
- 부모의 방임
  -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부모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격 행동을 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단계: 감정 인정하기

- 맞고 밀쳐진 유아를 일단 안아주고 마음 읽어주기
  - “이런~ 피아노 치는 것 때문에 친구가 밀쳐서 아프겠네.”
- 갈등상황에 대해 말하도록 도움
  -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상황을 자기관점에서 바라보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함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밀친 유아에게 말하도록 요청하기

-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 꾸짖지 않고 유아의 말을 수용하기
-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지 않고 유아들이 말한 것을 수용하기
- 누가 옳고 그른지 보다 유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그래.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비켜주지 않아 답답했나보네."

상호작용 2단계: 친구 입장 이해하기

❖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을 조성하기
- 다른 친구의 감정이 어떠할지 말하도록 요청하기
- "그런데 친구 기분이 어떻지 한 번 말해보렴."

상호작용 3단계: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도하기

❖ 때리거나 던지기 등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을 발견한 직후 단호하게 대응하기
-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해야 돼"

상호작용 4단계: 친구와 화해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기

❖ 서로 더 나은 감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움주기
- "00이도 화가 났고 □□이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질까?"

2) 예방적 접근

갈등상황카드를 활용하여 공격적 행동 대안 가르치기

❖ 계획된 활동을 통해 유아가 공격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찾고, 말하고, 제시하는 능력을 향상시킴
- 손인형, 이야기책, 화이트보드, 개방형으로 끝나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유아에게 자기주장과 협상에 관련된 기술을 가르침
- "(개방형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들은 후)너라면 어떻게 해보겠니?"

대물다툼 상황을 예방하기: '차례 정하기' 규칙

❖ 수량을 늘릴 수 없고 많은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 예를 들면 피아노나 컴퓨터 영역에서는 차례를 정해서 사용하는 규칙을 정해서 유아에게 순서를 지키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

- 차례 지키기는 통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대물다툼으로 인한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의 신뢰를 느끼게 할 수 있음
- 차례 정하기를 통해 사회적 기술 및 문제해결력을 배울 수 있으며 차례 정하는 과정을 놀이보다 더 즐길 수도 있음
- 차례 정하기 방법
  - 모자에서 이름표 꺼내기(모든 유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
  - 번호표(원하는 친구만 참여하게 함)
  - 시간을 제한하는 자명종 시계나 모래시계 비치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또래 간의 갈등상황에서 교사가 친구를 때렸다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일방적인 피해자-가해자를 판결해주는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됨
- 갈등상황을 교육적 경험의 기회로 활용하여 갈등해결 능력을 길러줌
  - 갈등상황에서 유아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게 하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을 지도하는 가장 좋은 기회임

10 같이 안 논다고 말하는 경우

만 4세/ 여아

유아가 친구와 엄마, 아빠 놀이를 하기 위해 역할을 정하고 있다. 유아는 큰 목소리로 “음, 나는 엄마고, 아기는 누구 할래?”한다. 함께 놀이하던 친구가 아무 대답 없자 유아는 “그럼 00이가 아기 해! 할 사람이 없네~” 하고 말한다. 친구가 “나 아기하기 싫은데”하자 유아는 “그럼 난 너랑 안 놀래”하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힘의 욕구가 강함

- 소꿉놀이에서 엄마역할은 아이를 조절하는 힘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함.

- 역할 자체보다 친구가 시켰기 때문에 안하고 싶을 수 있음.

- 유아가 놀이를 주도하고 원하는 역할을 얻기 위해 공격적 언어 사용함
  - 권리에 대한 도구적 공격성
    - 언어적인 공격은 유아의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부산물임

- 자기주장과 고집이 세서 타협과 조율을 하기 어려움
  - 만2세경 혼자 밥을 먹고 옷을 입으려 하는 등 점차 강해지는 자율성을 유아기를 거치며 점차 관계 속에서의 자기주장, 주도성으로 영역을 넓혀가게 됨
  - 자기주장은 강하고 타협과 조율 등의 사회적 기술은 미숙한 경우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자율성이 친사회적인 주도성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또래간 갈등상황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적 기술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부모나 교사가 비난, 협박, 윽박지름 등 잘못된 언어경험 제공
  - 유아에게 의미있는 성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델링
    - 성인이 유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유아의 생각이나 무시하는 경험
    -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애정철회를 자주 사용한 경험
  - 성인의 부정적인 상호방식이 유아에게 주었던 강력한 영향, 통제의 경험을 학습하여 또래에게 사용하게 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감정과 생각을 읽어주기
  - 갈등상황에 대해 말하도록 도움
  - 꾸짖지 않고 유아의 말을 수용하기

- "00이는 친구가 아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나!"
- "○○가 엄마 하고 싶고, 그래서 □□이가 아기 했으면 하는구나."
- "○○이는 □□가 하라는 아기 역할을 하기 싫구나."
- "아기 역할이 싫은 건지 □□가 시켜서 싫은 건지 모르겠네."
- "엄마, 아빠 놀이를 못하게 돼서 □□가 속상하구나."

상호작용 2단계: 상황 설명하기

-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입을 조성하기
  - "엄마, 아빠 놀이를 하려는데 서로 하려는 역할이 맞지를 않아서 놀이를 못하네. 그래서 ○○가 속상해서 □□이랑 놀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
  - "○○이도 하고 싶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 "같이 안 놀겠다고 하면 친구 마음이 상해."

상호작용 3단계: 제한 행동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설명하기
  - "역할은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거지."
  - "친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지."
  -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은 친구를 말로 때리는 것과 같아."
- 제한된 행동을 했을 때 귀납적 훈육 적용하기
  - 예를 들어 때린 친구가 사과하고, 맞은 친구의 소원 한가지 들어주기로 약속이 정해져 있다면 실행하기
  - "친구를 때렸을 때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해야겠네. 먼저 사과하기!."
  - "때린 친구의 소원 한 가지 들어주기!"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모색하기

- 서로 조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돕기
  - "00이가 하고 싶은 것을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기다려주자"
  - "어떻게 하면 서로 재미있게 엄마·아빠 놀이를 할 수 있을까?"
  - "친구와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맞출 수 있다고 하였더라?"
  -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하는 건 좋은 생각이구나."
  - "친구와 서로 생각이 다를 땐 서로 조금씩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해야 해"
  - "하고 싶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해야 서로 속상하지 않지."

- "누가 먼저 할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 "두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정해서 놀아보자."

◆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주기
- "화내고 같이 안놀다 보면 혼자서 노는 아이가 되는 거야."
- "서로 양보해서 같이 놀다보면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지."

2) 예방적 접근

부모나 교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를 듣는 모델링 보이기

◆ 유아와 놀이할 때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요구는 어떤지 물어보기
- "선생님은 책을 읽고 싶은데, 00이는 무엇을 하고 싶니?"

◆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 요구는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하기

갈등을 줄이는 의사소통 기술 훈련하기: 제안하기

◆ 타협이나 협상을 위해 어떻게 말하여야 되고 행동하여야 하는지 가르치기
- 좋은 말로 부탁해보기
- 타협점(조건부 거래)를 찾아 제안해보기
- 일단 같이 놀아보기

(또래에게 끌려 다니는 유아에게) 자기주장을 격려하기

◆ 비합리적인 요구에 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기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역할을 말해줄 수 있어."
- "내가 아기 하기 싫다고 해서 너는 나랑 놀지 않을 거니?"

◆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기
- "그럼 이번엔 내가 아기 할 테니까 다음엔 네가 아기해."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역할 정하는 다양한 방법 소개하기

◆ 순서 정해서 하는 활동 활용하기

부모에게 발달적 특성 정보제공 및 협조요청

- 도구적 공격성은 전조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격 행동'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유아의 의도를 이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야 함
  - 가정에서 역시 유아의 공격행동이 아닌 적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를 사용한 적대적, 관계적 공격행동이 증가

- 언어적,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며 언어를 사용한 공격행동 증가
- 공격적 언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었던(도구적 공격) 경험은 이후 적대적, 관계적 공격행동을 시도하고 강화시킬 수 있음
- 적대적인 공격성은 또래간의 경쟁이 증가하면서 강화됨
  - 공격적인 전략으로 언어적 조롱, 놀리기, 별명 부르기 등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부모와 교사는 이에 대해 눈여겨보아야 함

11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

만 3세/ 여아
유아가 인어공주 퍼즐을 맞추고 있다. 또래가 유아에게 다가가 "00아! 퍼즐 몇 번하고 빌려줄 거야?" 하고 묻지만 유아는 대답이 없다. 다시 한 번 또래가 "00아 이거 몇 번하고 빌려줄 거야? 나도 할래" 하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또래를 노려보며 신경질적인 말투로 "아 몰라, 나 지금 하고 있잖아!"한다.

가. 원인 분석

친구가 빌려달라는 말에 주고 싶지 않은 것을 신경질적으로 표현함

"나도 할래"라는 친구의 말이 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져 저항이 강해짐.

미숙한 정서조절능력으로 타인의 정서표현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움

-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표현을 읽고 그에 따라 잘 반응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사회적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음

- 사회관계는 유아가 자기 정서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 있으며, 이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발달과 관계됨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

- 유아는 스트레스는 주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나 충동적 행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심리적인 불균형을 줄이지 못하면 짜증의 증가, 적대적인 태도 증가, 주위 산만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단계: 감정 인정하기

- 유아의 감정을 공감하고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기
  - "00이가 퍼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가 계속 물어봐서 짜증이 났구나."
  -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고 퍼즐놀이를 계속 하고 싶구나."

상호작용 2단계: 상황 이해하기

-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반응하기
  - "00이가 하는 퍼즐이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친구도 하고 싶었나봐."
  - "화난 말투로 이야기해서 친구가 놀랐을 것 같아."

상호작용 3단계: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 짜증이 난 경우에라도 친구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않는 나-전달법을 알려주기

2) 예방적 접근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기술 지도하기

- 유아의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감시하고 유아의 대처기술 관찰하기
  - 위축되거나 부정적 정서는 대놓고 표현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러한 태도를 무시하기보다 좀 더 건설적인 대처방식을 갖도록 지도해야함
- 비언어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 유아의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다른 언어적 속성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함
- 교사는 유아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몸짓을 하고, 교사 자신의 정서와 행동 역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일과에 휴식시간을 포함하기

- 스트레칭, 긴장 풀기, 근육 이완, 호흡을 이완하기 위한 운동과 같이 일정한 시간마다 모든 또래가 함께 참여하는 휴식 시간을 계획함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익히기

- 유아가 적절하게 정서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부모와 협력하기

- 유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스트레스 정보 공유하기
- 부모의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교사는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지레짐작하지 않아야 함

- 가정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음

12 떼쓰는 경우

두 친구가 다툰 후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시도하고 있다. 교사는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퉜는지 이야기 해줄래?” 라고 이야기한다. ○○ 는 “△△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가져가서 그런 거에요.”라고 이야기한다. ○○는 크기 소리를 지르며 “아니야! 그건 원래 내가 하던 거였어!” 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는 ○○이에게 질문을 하려 하지만 ○○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교사를 노려본다.

가. 원인 분석

- 싸움이 일어난 상황을 자기 식으로 설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울고 소리치는 것으로 자기가 맞다고 떼를 씀
- 흥분된 감정으로 인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이 어려움
-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 자신의 미안함에 대해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유아의 경우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정서적 상태를 읽어주기
  - 유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유아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유아의 과격한 신체표현으로 인한 결과를 유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기다리기
  - 유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이가 많이 속상했나보구나.”
- 상호작용 2-4단계: 상황을 이해하기와 대안 행동 제시하기
  - 떼쓰는 행동의 부정적 결과 알려주기
    -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소리 지르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랑 친구가 ○○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조금 진정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 “울고 소리 지르니까 우리 모두 놀라고 속상하다”
  - 유아가 친구에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 “○○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
    - “선생님이 기다릴게. ○○이 마음이 진정되면 이야기 해줄래?”
    - “○○이가 △△이와 놀이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

- 대안행동 탐색하고 제시해주기
  - "앞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 "○○가 왜 속상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말로 해주면 좋겠다, 말로 해보면 방법을 찾기가 더 쉽겠다."

2) 예방적 접근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유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기
  - 다양한 이유로 유아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으나 의사소통이나 또래 관계에서 이러한 감정 폭발 및 흥분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으므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함
  - 또래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유아와 교사만 함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야함
  - 유아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함
-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 다음 유아에게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기
  - 유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쑥쓰러워하거나 거부한다면 교사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 상황을 마무리 지을 것
  - 유아 스스로 모든 상황과 이야기를 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교사가 개입하여 질문과 지지하기 기술을 사용

감정조절이 어려운 유아들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유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의 높은 자존감 형성 돕기

-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지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하기

- 유아의 감정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유아의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며 해결하기
- 교사도 마음을 여유 있게 갖고 접근하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감정조절 연습하기

-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유아의 감정 표현하기 방법을 공유하고 이러한 감정 폭발이 미치는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영향과 정보 알리기

13 지기 싫어하는 경우

만 5세/ 남아
유아가 친구와 누가 블록을 높게 쌓는지 내기한다. 친구 것이 점점 더 높아지자 유아는 당황스러워 한다. 유아는 조금 더 속도를 내어 블록을 쌓다가 "아 망했어"라고 소리치며 블록 쌓던 것을 부수어 버린다. 유아는 주먹을 쥐고 "이씨~ 이씨"하다 울어버린다.

가. 원인 분석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좌절이 더해져서 공격적으로 행동함.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 지는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함
-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기는 것을 좋아함. 하지만 지는 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 역시 유아기 발달 과업 중 하나임
- 4~5세가 되면 유아는 경쟁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며 패배를 경험하게 됨
- 놀이 중 패배나 실패를 거듭하거나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강한 좌절감 혹은 분노를 낄 수 있음

강한 좌절감과 분노를 공격성으로 표현함

-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표현하고,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하며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움
- 유아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받아왔던 관심을 통해

이러한 표현방법이 강화될 수 있음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자아탄력성이 낮음

- 부모 양육태도
  - 부모가 엄격하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나 반대로 과잉보호적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 갈등과 경쟁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기술 모델링이 어려움
- 가족환경
  - 동생에 대한 지나친 경쟁심과 질투심을 겪고 있는 경우 또래 간 경쟁 상황에서도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할 수 있음

순간 속상해서 친구 것을 망가뜨렸지만 친구가 울자 걱정과 놀람으로 가만히 앉아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단계: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 흥분한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 울고 있는 대상 유아를 안아서 달래주기
- 또래와의 경쟁에서 좌절한 유아의 마음을 공감하고 격려하기
  - “친구보다 먼저 더 높게 쌓고 싶었는데 잘 안되어서 속상하구나.”
  - “선생님이 00이었어도 속상했을 거야. 빨리 더 높게 쌓으려다 무너져 버려서”
  - “속상한 마음에 친구 것도 부셔뜨렸는데, 친구가 우니까 미안하겠구나.”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친구가 속상해서 우네.”
  - “만약 친구가 00이가 열심히 쌓고 있는 블록을 망가뜨리면 어떨거 같으니?”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은 행동 일러주기

-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주기
  - “아무리 속상해도 친구가 쌓은 것을 부수뜨리면 안돼. 그러면 더 크게 지는 거야.”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바꾸어주기
  - "내가 더 잘할 때도 있고 친구가 잘할 때도 있는거야."

2) 예방적 접근

놀이경험에서 경쟁성 지도

-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승리를 조절
- 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말로 표현
- 유아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유도하지 않기
- 특별한 기술이나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게임이 아닌 운에 의해 승부가 나는 게임 방법을 정해 지나친 경쟁성 줄이기
- 유아들이 지나친 흥분이나 경쟁성을 보이면 흥분을 가라 앉히도록 돕기
- 유아가 시도 했던 과정에 대해 칭찬하기
  - "선생님이 봤을 때 00이는 블록을 하나씩 아주 튼튼하게 쌓아주던걸?"
  - "끝까지 쌓아보려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유아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그림책 등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 제공
  - "주인공 기분이 어떤 것 같니?"
  - "왜 화가 났니?"
  -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언어표현이 보다 능숙한 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공
  - "지금 너의 기분이 어떤지 이야기해줄 수 있니?"
  -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그림을 그려도 좋아."
- 감정의 표현을 통해 타인이 느끼게 될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기
  -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친구는 왜 00이가 속상한지 알 수 있을까?"
-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기
  - 역할놀이, 창의적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
  - 베토벤의 '운명' 슈베르트의 '마왕' 감상하며 느껴지는 기분을 신체로 표현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게임을 통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음을 경험시킴.
-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 활용하기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환경 점검하기

- 민주적이고 권위있는 양육태도인가
  - 실패했을 때도 부모에게 과정을 인정받고 수용받는 경험
- 형제관계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경쟁을 유도하는 양육방법을 사용하는가
  - “동생보다도 못하네.”

부모님께 양육기술 알려드리기

- 유아가 노력한 것 또는 과정에 대해 격려하는 방법 안내
  - 유아가 한 활동의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유아가 쉽게 좌절하게 할 수 있음
  - “열심히 하고 있네.”
- 승패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술 모델링 기회 주기
  - 부모가 늘 일부러 유아에게 져 주거나 무승부 상황만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래관계에서 경험할 경쟁과 승패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기술을 부모를 통해 모델링하고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14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경우

만 5세/ 남아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있는 유아들에게 교사가 책을 읽어주고 있다. 유아는 앞에 앉아 있는 친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킥킥’ 작은 소리로 웃는다. 친구가 유아의 손을 밀쳐내며 “00야! 하지마 불편해” 하고 이야기한다. 유아는 계속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또래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를 반복한다.

가. 원인 분석

타인을 방해하는 신체적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음

- 공격자의 분노, 좌절, 적대적 감정이 없는 표현적 공격행동임
- 의도하지 않은 불행을 주는 것에서 즐거운 감각적 경험을 느낄 수 있음

사회적 기술 부족

-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인해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적인 괴롭힘을 사용
- 친구에게 접촉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견하기, 위협하기, 무시하기, 비판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종종 거부당할 수 있음. 이러한 실패가 습관이 되면 유아는 더욱 위축되거나 적대적으로 행동하게 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단계: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 관심을 끌기 위한 욕구 때문이라면 이러한 마음 알아주기
  - "○○이가 △△랑 장난이 치고 싶었구나"
  - "○○이가 심심한 거야? 선생님 동화책이 재미가 없어?"

상호작용 2~3단계: 행동의 기준 및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 "○○이는 장난치려고 한 건데, △△는 귀찮고 짜증이 난대"
  - "○○이 심심해서 한 거지만 △△도 귀찮고, 친구들도 모두 선생님이 책 읽는 걸 들을 수가 없네"
- 친구의 행동 의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행동 지도하기

-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기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신체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 샌드백 치기, 블록 넘어뜨리기, 트램폴린 등 신체적인 감각적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

◆ 다른 차원(정서, 사회 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공함

2) 예방적 접근

친구에게 접촉하는 친사회적인 전략 가르치기

◆ 또래에게 접촉하기

- 예의바른 친사회적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으므로 인사하기, 관련 질문하기, 정보 제공하기, 놀이에 초대하기 등의 방법을 교사와 함께 경험함

◆ 긍정적인 관계 유지하기

- 관심 표현하기: 미소 짓기, 고개 끄덕이기, 눈 마주치기 등
- 협력하기: 차례 지키기, 나눠 쓰기, 함께 작업하기 등
- 수용 표현하기: 다른 아동의 생각에 귀 기울이기 등
- 칭찬하기: “잘 했어.”, “좋은 생각이야.”, “예쁘다.” 등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가족과 의사소통하기

◆ 가족은 유아의 친구 관계를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음

- 교사는 유아의 친구 관계의 정상적인 과정에 관해 설명함. 친구 관계의 발달단계 중 현재 유아가 경험하고 있는 단계의 속성을 이해하면 부모는 유아의 행동을 발달적 맥락 내에서 볼 수 있음.

너무 빨리 참견하기 않기

◆ 유아가 스스로 친구 관계 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많을수록,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더 빨리 배우게 됨

-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해결책을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제공.

15 힘 조절을 못하는 경우

유아는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술래가 된 유아가 흥분하여 뛰며 친구들을 잡으러 가고 가장 가까이 있던 유아의 등을 세게 치며 “잡았다!”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아악!”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한다. 술래인 유아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라고 하고 친구는 “아프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크게 운다. 술래인 유아가 민망한 표정으로 “세게 쳐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한다. 유아는 스스로 힘 조절을 하기 어렵고 과장된 행동으로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잦다.

가. 원인 분석

힘이 센 신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발적인 친구를 아프게 함

-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신체적인 공격성과 공격적인 충동이 높을 수 있음(Archer, 1994; Trembly et el., 1997)
- 월령에 비해 발달된 신체 조건들로 인해 유아 스스로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놀이에 빠져 흥분되면 힘 조절이 더욱 어려워짐.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2단계: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및 친구의 입장을 읽어주기

- 유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유아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유아의 과격한 신체 표현으로 인한 결과를 유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기다리기
- 유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 “○○이가 재미있게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조금 세게 쳤나보구나.”
  - “친구가 어떻게 느꼈을까?”

상호작용 3~4단계: 행동의 기준 및 적절한 대안 행동 생각하기

- 유아가 친구에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

- “○○이가 △△이와 놀이하다가 이렇게 세게 치면 친구는 어떨까?”
- “앞으로는 어떻게 놀이하면 좋을까?”
- “우리 조금 천천히 놀이하자.”

2) 예방적 접근

일과 중 유아가 신체적 균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 계획하기

- 신체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 실행하기
  - 집단생활을 장시간하는 유아들을 위해 신체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실행함
  - 유아의 적절한 에너지 발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에너지 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
- 일과의 균형성 확인하기
  - 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정적·동적인 활동을 균형있게 배치
  - 유아 스스로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을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
- 휴식시간 확보하기
  - 에너지의 양이 많다고 해서 휴식시간을 간과하지 않음
  - 충분한 에너지 발산 시간 후 휴식시간을 가져 신체적 긴장과 이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

신체놀이 시 유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놀이 준비 함께 하기
  - 놀이 시작 전 놀이 규칙과 약속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눔
  - 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조절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
- 만약 친구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함께 공유하기
  - “친구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우리 서로 많이 흥분하지 말고 즐겁게 놀이하자.”
- 적절한 신체조절이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 스스로 힘을 조절했을 때 강화함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흥분된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즐거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부모협조요청 및 정보제공하기

- 부모님에게 유아의 에너지 정도에 대해 알리고 가정에서의 협조 구하기
  - 유아의 에너지 양과 신체 조절에 대해 알리고 적절히 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함
  - 주말에도 적절한 신체 활동을 권장하여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도움
- 유아기 신체 조절이 또래 관계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알리기
  - 부적절한 신체조절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알리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전달함
  - 감정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여 유아의 표현 능력의 발달을 도움

16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언어영역에서 주말 지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유아가 극화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본다. 역할을 정하고 있던 친구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교사가 "○○아, ○○이가 저 역할 하는거 어때?" 라고 묻는다. ○○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교사는 "선생님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라고 한 번 더 제안한다. ○○이는 "안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며 음률영역으로 가 혼자 피아노를 친다.

가. 원인 분석

자신감이 부족하여 혼자 노는 것이 더 편함.

낮은 자아존중감 및 위축된 자아로 인한 의사표현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이 낮을 시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어 표현에 두려움을 느낌
- 유아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의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부족

- 예전에 함께 하는 놀이에서 좌절감을 경험했거나 성공 경험의 부재로 인해 유아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여러명의 또래가 놀이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개입하는 사회적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2단계: 유아의 분명한 의사 알아차린 후 읽어주기

- 유아를 관찰하기
- 유아와 의사소통하기
  - "○○아, 무엇을 하고 있니?"
  - "○○아, 같이 하자"

상호작용 3~4단계: 유아가 원하는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주기

- 놀이에 초대하기
  - "○○아, 이 것 좀 도와줘."
  - "○○이도 해볼래?"
- 놀이 개입 도와주기
  - "얘들아, 선생님이랑 ○○이랑 같이 하자"
  - "○○아, ○○이가 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

2) 예방적 접근

유아가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성공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이의 생각은 어때?"
  - "○○이가 이야기한 것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 "○○이가 혼자 만든 작품이구나."
  - 얼굴 표정이나 손짓, 몸짓 등을 이용한 자존감 높이기
- 모델링 보이기
  -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보이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유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기

- 표현 자체를 힘들어 하는 유아의 경우 교사가 개별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친밀해진 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 편안한 관계 속에서 유아들이 표현할 수 있음
  - 다그치거나 지나친 관심은 유아의 부담감을 가중시킴
- 유아가 표현한 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어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돕기
- 또래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부모님께 유아의 의사 표현이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지지하기를 전달하기
  - 유아 자신이 사랑받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기울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온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이 필요함을 공유함

17 선호하는 또래가 제한된 경우

만 3세/ 여아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 두명 씩 짝을 지어본다. ○○이는 △△이에게 "나랑 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잡는다. 자유 놀이 시간에 ○○이는 언어영역에서 책을 보고 있는 △△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책을 본다. △△이가 수과학영역으로 가 게임을 하자 "나도 게임할래. 같이 하자."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한번 애착이 맺어진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고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됨

-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유능한 유아와 함께 놀이하고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대리 만족을 느낌
- 불안한 정서를 한 또래와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안정을 찾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유아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또래와 놀이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놀이를 읽어주고 공감하기
  - 유아가 편안하게 놀이하는 것을 지지
    - "○○이는 △△이랑 놀이하는게 재미있겠다~"
    - "△△이가 이 역할을 맡아서 ○○이가 더 재미있나봐."
- 상호작용 2단계: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기
  - 유아의 다양한 놀이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해 교사가 먼저 적절하게 참여하기
    - "선생님도 ○○, △△이와 같이 해야겠다."
  - 유아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3단계: 다른 또래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 놀이에 다른 또래들을 초대하기
    - "◇◇이도 같이 할래?"
    - "○○이랑 같이 이거 할 사람~?"
  - 유아가 선호하는 또래도 다른 친구들과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 다른 영역에 어떤 놀이가 있는지 알려주기
  - 놀이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 억지스럽거나 교사의 의도가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기
- 상호작용 4단계: 교사와 단둘이 상호작용할 때 한 친구랑만 놀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다른 친구들이랑 놀이하지 않는 이유와 불편함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 친구가 해당 유아랑만 놀이하여 다른 친구와 놀이할 수 없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2) 예방적 접근

여러가지 놀이를 통해 유아의 다양한 또래경험 늘리기

- 둘이 하는 활동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의 다양한 또래관계경험을 돕기
- 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기
  - 유아가 한 친구를 선호하는 감정을 읽어주기

다른 유아들과 놀이한 후 긍정적으로 지지하며 회상할 수 있도록 돕기

- "오늘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다~"
- 유아가 선호하는 유아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갑자기 다른 유아와 놀이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점차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 성공적인 관계맺기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부모님께 알려드려 다양한 또래를 경험하고 관계 맺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 친구 초대하기
-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참여 권유하기

18 부끄러움이 많은 경우

만 5세/ 남아
월요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아들이 손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는 자리에 앉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를 마친 친구가 ○○이가 주말에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다고 하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교사도 ○○이에게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이는 울음을 터뜨리려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기질적으로 느리거나 타고난 낯가림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에 수줍음이 있음
- 새로운 환경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있음
- 타인과의 교류 기회가 적어 불안함을 느낌
-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함
- 환경적이나 후천적으로 자기자신이 집중 받았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일 경우 지나치게 수줍음을 느끼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함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의 경우 불안감을 느껴 부끄럼을 느끼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대체 표현할 수 있음
-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과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부끄러운 감정에 대해 지지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부끄러움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지지하기
  -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도 부끄럽고 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 “다른 친구들도 ○○처럼 부끄럽고 떨렸대.”
    - “선생님도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어.”
  - 다른 친구들에게도 유아의 부끄러움에 대해 설명해주기
    - “너희들도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조금 떨렸었지?”
    - “○○이에게 힘을 주자. ○○아, 힘내서 이야기해줘~”
- 상호작용 2단계: 유아에게 한 번 더 제안해보기
  - 다른 사람들이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궁금해 한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기

-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 이야기가 궁금한데 이야기해줄 수 있니?”
- “친구들도 ○○이의 이야기가 듣고 싶을 것 같아.”

상호작용 3단계: 시도해 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만들기

- 다른 유아들이 다그치지 않도록 돕기
  - “우리 조금 기다려주자.”
-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유아가 긴장되지 않도록 돕기
  - 유아가 부담되지 않도록 교사다 다그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만들지 않기
  - 친구들이 유아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돕기

상호작용 4단계: 유아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기

- 시도하거나 성공했을 때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기
  - “○○이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는 그랬구나.”
- 하지 않더라도 격려하기
  - 상심하지 않도록 돕고 다음 기회에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상황에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 친구들이 비난하지 않도록 상호작용하기
  - “괜찮아~ 다음에 해도 되~”

2) 예방적 접근

유아의 부끄러운 행동에 부정적인 반응 지양하기

- 유아의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한 특징 인정하기
  - 타인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잠재된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에게 강요하지 않기

다른 사람 앞에서 유아가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와 둘이 이야기 나누기

- 유아가 스스로 시도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자신감 불어넣어주기
  - 교사와 단둘의 시간을 만들어 왜 부끄러운지 유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기
  -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기
- 시도했을 때 교사가 지지하며 긍정적인 행동 강화
  - “우와~ 할 수 있구나.”
  - “이렇게 해보니 기분이 어때?”

익숙한 환경,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증가시키기

-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수의 사람들 앞에서 유아의 행동 읽어주지 않기
- 부정적인 강화가 될 수 있으므로 점점 긍정적인 경험의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유아의 행동에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 지양하기
  - 시도하였을 때 적절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감 상승
  - 시도하지 않았을 때 무심한 듯 다음에 할 수 있는 여지 남기기
- 다른 유아들이 해당 유아에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돕기

기질 이해하기

- 유아 개별적 기질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기
- 부모에게 기질적 특성과 지양해야할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정보를 알려 가정과의 연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 "왜 그러니?" 의 면박식 상호작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요,"의 낙인 시키는 것도 유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
  - 부모가 외향적인 모습을 강요하거나 실수에 대해 야단을 치면 유아는 더욱 위축될 수 있음

19 의존적인 경우

○○이가 미술영역에서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야, 정말 잘 그린다." 라고 이야기한다. △△는 "○○아, 너도 그릴 수 있어. 그려봐." 라고 이야기한다. ○○는 "아니야. 나 혼자 못 그려. 니가 그려줘." 라고 이야기하고 △△는 "니껀 니가 그려야지. 왜 나한테 그려달라고 해. 니가 그려." 라고 이야기한다. ○○는 "싫어. 나 못해. 니가 해줘. 빨리." 라고 이야기하며 종이를 민다. △△는 이렇게 매번 자신이 하지 않고 친구에게 해달라고 하는 ○○이가 부담스럽다.

가. 원인 분석

-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으며 혼자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낌
  - 낮은 자존감과 성공경험의 결여로 유아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함

- 부정적인 지지나 강화로 인한 유아의 정서적 고립이 일어날 수 있음
  -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활동과 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유아가 스스로 시도한 후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또래나 성인의 격려로 자신감 회복 가능
    - "혼자 할 수 있구나."
    -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 "○○이도 스스로 하네."

2) 예방적 접근

- 유아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 처음 시작할 때 그 행동과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지하기

- 유아가 성인이나 또래를 도우며 자신감을 회복하기
  - 활동이나 놀이, 또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만들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내가 한 것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리다의 인식을 갖지 않도록 돕기
    - 스스로 시도한 것부터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결과 중심의 강화는 지양해야함

20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우

수과학영역에서 같은 반 친구들 여럿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이는 혼자 주사위를 던지며 큰 목소리로 "6!" 이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아, 조용히 해. 우리 윷놀이하는데 방해되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6은 여섯 개야. 나 양말 6개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이가 주사위를 다시 던지며 "2! 2는 두 개야. 나 오늘 떡 2개 먹었어."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들이 "○○아, 목소리가 너무 커." 라고 이야기하며 윷놀이를 계속하고 ○○이는 자신만의 주사위 놀이를 반복해서 한다. 이렇게 6개월째 변화 없이 하고 있다.

가. 원인 분석

자폐라는 발달상의 장애일 수 있음

- 유아의 경우 자폐는 인지, 사회성, 정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느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2단계: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 "○○이는 주사위 던지면서 나온 숫자를 읽는 것이 재미있나보네. 그런데 그 소리가 친구들 놀이를 방해하네."
- "○○이도 친구들과 윷놀이하고 싶니?"

상호작용 3~4단계: 행동의 기준 알려주고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놀이를 해야 함을 설명하기
- 교사가 유아와 함께 놀이하기
  - "○○아, 같이 할까?"
- 유아가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기
  - "○○이도 친구랑 함께 놀고 싶을 때 나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해보자"

2) 예방적 접근

유아와 친밀감 형성하기

-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는 놀이 제공하기

유아가 자신이 하는 놀이 외에 다른 놀이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가 놀이에 초대하거나 놀이를 소개하기
- 교사가 유아와 함께 활동하며 또래와의 긍정적인 경험주기
  - "○○이랑 같이 하니까 좋다."
  - "△△아, ○○이한테 물어보자."

또래들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 함께 놀이하지 않거나 또래들의 놀이를 방해한다고 해서 유아를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도록 함
- 또래와 1:1 로 유아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을 주며 또래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유아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돕기

- 자신이 하는 놀이 외에 또래와의 경험, 다양한 놀이 등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으로 돕기
  -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일수록 놀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 점을 교사가 개입하여 발달을 촉진함

가정 및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유아의 사회성발달을 돕기

21 또래를 따돌리는 경우

만 4세 / 여아
극화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들이 역할을 정한다. 가위, 바위, 보를 하려고 하자 ○○이가 △△이에게 "△△이는 할 역할 없는데."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언어영역으로 가 책을 본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고 ○○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여기 같이 앉자. 그런데 어떡하지? △△이 앉을 자리가 없네."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자기중심적 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함
- 유아 자신의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
- 또래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따돌림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유능함을 잘못 판단
- 자신이 주도함으로써 또래들을 평가함
- 또래수용도가 낮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유아를 배척함
-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행동화
- 타인의 결함이나 어려움 고통에 대해 무감각 하며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을 갖고 있음
-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함으로 인한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함
-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으며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짐
- 처벌이나 감정폭발이 포함된 부모의 양육 태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또래를 배척하고 따돌리는 행동의 이유를 알아보고 그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가 또래를 따돌리는 이유 알아보기
  - 유아에게 친구에게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묻기
    - “친구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니?"

❖ 해당 유아들이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유아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함께 하기

상호작용 2단계: 입장을 바꾸어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가 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기

❖ 유아가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
- "친구의 기분이 어떨 것 같니?"
- "다른 친구가 ○○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한다면 ○○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기
- "친구와 이야기 해보는게 어떨까?"
-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모를 수 있어.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자."

상호작용 3단계: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보기

❖ 친구에게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기
-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 "어떤 친구만 못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닌 것 같아."

❖ 따돌리는 행동이 보일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조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행동 지도하기

❖ 사과하기

❖ 나-전달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시키기
- 유아 자신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 "친구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속이 상했어. 앞으로는 함께 ~하자."

❖ 다른 사람의 기분 생각해보기

2) 예방적 접근

유아가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상호작용에 신경쓰기

❖ 유아의 행동 유심히 관찰하기
- 유아가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는지 관찰하기

- 자존감과 타인이 자신을 보는 시선에 민감도를 관찰하기
-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기
- 유아가 다른 또래들과 배려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또래수용도 향상시키기

- 놀이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하기
- 또래수용도가 높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며 모델링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가 바른 상호작용과 표현을 할 때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친사회적 기술 익히기

- 극화 놀이에서 친사회적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 동화책 읽기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친구들 사이의 서열이나 우월감, 열등감 등이 있는지 관찰하고 교사가 유아들의 기질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 따돌림을 당하는 유아에게도 수정해야 할 언어나 행동이 있는지 관찰 후 함께 접근하여 해결하기

유아의 정서를 파악하고 공격의 대상의 변화를 꾀하기

-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언어적, 행동적인 공격이 미치는 영향을 유아와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가정에서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행동수정을 돕기

- 지속적으로 친구를 따돌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유아와 부모와 이야기 나누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하기

22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한명 씩 친구들 앞에 나와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친구가 나와 친구들에게 동물원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는 "아~ 재미없어." 라고 한다. 교사는 "○○야,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라고 한다. □□는 다른 쪽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다. 친구들은 "○○아, 안들려. 조용히 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는 "난 노래 부르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계속 부른다.

가. 원인 분석

- 자기중심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 활동에 요구되는 태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발달적 특성이 나타남.

- 유아기에는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타인 조망 수용 능력
  - 5세 이하의 아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Berk, 2006; Berkowitz, 2002).
  - 자기중심성이 강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깨닫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 재미없는 활동을 따라가기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강함

-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 선상에 있으므로 성인의 도움 필요
  - 자신의 언행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상호작용 1~2단계: 감정을 읽어준 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감정 읽어주기
    - "친구 이야기에 관심이 없나보네. ○○이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싶나봐."
    - "친구들도 ○○처럼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하나?"

- 유아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주기
  - "○○이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부르니까 친구들이 ○○이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 유아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주기
  - "○○이가 친구 이야기를 듣지 않고 노래를 부르니까 친구들은 ○○이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꺼야."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은 행동 알려주기

- 특정행동 제한하기
  - "○○아,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자."
  - "○○아,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행동의 방향 바꿔주기
  - "○○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도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들어보자."
-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기
  - "○○아,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끝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2) 예방적 접근

유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능력 배양하기

-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기
  - "○○이가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
  - "○○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노래를 부르면 ○○이는 기분이 어떨 것 같니?"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 유아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기
  - "○○아, 친구들이 왜 ○○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
- 유아에게 기대되는 기준 알려주기
  - "○○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유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교사의 상호작용 기술이 효과적
  - 적절한 발문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
  - 유아의 긍정적인 경험 지지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 부모님과 올바른 상호작용 기술을 공유

23 반항하는 경우

만 5세/ 여아
정리시간에 정리를 하고 있다. ○○이는 정리를 하지 않고 책을 본다. 교사가 "정리 한 후에 모일 꺼에요. 부지런히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계속 책을 본다. 교사는 "○○아, 우리 정리 다 끝난 다음에 모여서 활동할꺼예요. ○○이가 색연필 정리해줄래?"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제가 한거 하닌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교사는 "○○이가 하지 않았어도 함께 정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왜 나한테만 정리하라고 해요?" 라고 하며 색연필을 매우 세게 제자리에 놓아 색연필이 다 떨어진다. ○○이는 "에이씨, 짜증나." 라고 하고 교사가 ○○이 가까이 다가가자 "선생님, 비켜요."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자신의 감정표현의 방법을 무시나 무례한 방식으로 표현
-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강화
- 교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부정적인 경험 강화
- 선택의 결정권이 없는 양육태도로 유아가 명령에 반감을 갖게 된 경우
-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으로 인한 불안정한 애착 관계

- 완벽한 자아확립이 되기 전이므로 유아는 자기 멋대로 표현
- 불안감이 있어 자신의 불안감을 잊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말대꾸나 해야하는 것 하지 않기, 일부러 늦게 하기, 반대로 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
- 평소 욕구좌절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소한 단서에도 적대적인 감정반응을 표출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유아의 마음 상태를 읽어주고 왜 그런지 이야기로 할 수 있도록 돕기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의 마음 상태 읽기
  - 유아의 마음 읽어주기
    - "정리하고 싶지 않았구나."
    - "책을 보고 싶었구나."
    - "네가 하지 않은 걸 치우라고 해서, 너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억울하구나"
-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지금 현재 해야할 일과 그 다음 일과를 알려주기
    -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한단다."
    - "○○이가 놀이하지 않았어도 함께 정리하면 금방 정리를 마칠 수 있어."
    - "다른 친구들도 ○○처럼 더 놀이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지 않지만 다음 활동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었어."
  - 교사의 의도를 설명하기
    - "선생님은 ○○이가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고 부지런히 마무리한 다음 재미있는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 "선생님이 ○○에게만 정리하라는 걸로 들렸구나. 우리 모두 다 같이 각각 맡아서 정리하는 거야. 다 같이 다음 활동을 하기위해 정리했으면 좋겠다"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는 행동 알려주기

- 일부러 못 들은척 하거나 핑계를 대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대화를 통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 나누기
  - 하루 일과를 진행함에 있어 지켜야할 약속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 “○○이가 ○○이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 “어떻게 하면 좋겠니?
-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지켜야할 예의 알려주기
  - 바른 언어습관 지도하기
  - 비속어 언어사용에 대한 수정
  - “화가 나더라도 바른 언어로 표현하는게 좋을 것 같아.”
- 이러한 경우 반복해서 지도하기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행동 지도하기

- 부드러운 언어로 자신의 표현하는 연습시키기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 “이 책까지만 보고 정리하면 안될까요?“등의 대안적 표현 활용

2) 예방적 접근

명령의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기

- 유아에게 조금 더 친절한 말투로 이야기하기
  - 해당 유아가 더욱 민감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적절하게 조절
  - 유아의 감정 상태를 세심히 살피기
- 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기
  - 유아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발달적으로 ‘참기’가 가능한 월령이므로 함께 연습해볼 것을 권유하고 교사가 돕기

- 교사가 긍정적인 면을 지지
  - “○○이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 바른 언어를 사용할 때 격려하기
  - “친절한 말로 이야기해주니 참 좋구나.”

-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또래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자신의 불만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 교사와 둘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유아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 유아가 마음 속에 품은 진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기

동화책이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언어습관 및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교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안정된 자세 유지
-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내면에 있는 불안과 그 정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기

유아 시기 특성 알기

- 자신의 생각이 확립되는 시기
  -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 있으나 그것을 사회적 통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기
  - 교사가 단호하게 할 경우 더욱 반감이 들 수 있으므로 '유아의 편' 이라는 인식 주기
  -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아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형태가 아닌 선택을 하고 유아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 부모에게 유아에 대한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유하기

반항 행동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정서적 문제 이해하기

- 가정 내에서 빈번히 욕구가 좌절되거나 형제간에 지나친 양보나 책임을 강요받을 경우, 분노와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탐색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평소 충족감을 가질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4 고자질하는 경우

○○이가 만들기를 하며 물레방아 테이프를 쓴다. 옆에 있던 △△가 "너 왜 테이프 막 써? 선생님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나 많이 안썼어." 라고 이야기하고 △△는 "엄청 많이 돌려서 썼잖아. 이렇게 많이 썼네." 라고 이야기한다. ○○는 "아니야. 나 막 안썼어." 라고 이야기하고 △△는 "선생님, ○○이가 테이프 막 써요." 라고 이야기하며 선생님에게 간다.

가. 원인 분석

내가 친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임

- 친구를 지적하는 행동으로 힘을 행사하고 싶어 함
- 부모, 교사 등 성인의 가르침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

자신은 규칙을 잘 지키고 바른 아이라는 것을 인식시킴

- 자아존중감이 높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르는 행동이 나타남

우연히 성인이나 선생님에게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강화됨

-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성인이나 선생님이 지지하며 잘못한 아이나 그 잘못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화가 인정된 경우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2단계: 감정을 읽어주고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 "친구가 테이프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네. 그런데 친구는 그만큼이 필요해서 쓴다고 하고."

상호작용 3~4단계: 적절한 대안행동 지도하기

- 유아가 또래의 규칙위반이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직접 의사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 "00가 테이프를 너무 많이 쓸까봐 걱정이니? 그럼 00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해보렴"
  - "00도 테이프를 막 쓰면 안되는 걸 알고 있을 꺼야, 네가 물어보렴"
- 또래를 지적하였을 때 유아가 한 말은 수용하되 그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친구와 직접 이야기 나누기
  - "○○이가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친구가 ○○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 기분은 어떨까?"
  - "○○이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친구한테 이야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2) 예방적 접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유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
  - "친구의 생각을 물어보았니?"
  - "○○이는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 유아가 직접 또래와 이야기 나누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기
  - "○○이와 같이 이야기 나누어보자."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교사 스스로 유아들이 규칙위반이나 잘못을 이르는 행동에 강화를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적인 사고 해보기

- 교사가 긍정적인 지지와 행동 강화 방법으로 상호작용하기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가 자신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함

- 만약 형제아가 있을 경우 이르는 행동이 보편화 되고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전달이 필요함

25 거짓말 하는 경우

아기 인형으로 놀이를 하던 ○○이는 친구에게 "내 동생 이름은 △△야."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너 동생 없잖아. 왜 없는데 있다고 해?"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아니야, 나 동생 있어. 집에 있어. 이름이 △△야." 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는 선생님을 부르며 "선생님, ○○이가 동생 없는데 동생 있다고 거짓말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울먹이며 "선생님, 나 동생 있는데 친구들이 없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함

-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음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상상과 소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지적인 특성이 나타남

- 발달적으로 상상 속의 일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시기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상호작용 1단계: 아동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 유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지지하기
  - "○○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 "○○이는 동생이 있었으면 해서 말한 건데 거짓말이 되버렸네.

상호작용 2단계: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교사는 유아가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착각했음을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가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을 힘들어 할 경우 교사가 도움 주기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행동 지도하기

- 유아에게 사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 "○○이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적 있니?"

-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
- "동생이 있었으면 해서 상상해 본거야, 그냥 말해서 거짓말이 되었어, 미안해 라고 말해볼까?"

2) 예방적 접근

☑ 자기조절 기술 배워 나가도록 돕기

- 행동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한 훈육을 반복할 경우 아이는 위축되거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
-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모델링을 통해 아동이 자기조절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 유아의 기억의 오류가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일러두기

- 유아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거나 또래들이 그 유아와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가 적절한 대처

☑ 부모님께 거짓말이 아닌 기억의 오류임을 알려드리고 유아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기

26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만 4세/ 여아
엄마와 하원을 하려고 하는 ○○이는 서랍에서 양말을 꺼내 신는다. 엄마가 "○○아, 이 핀 뭐야?" 라고 묻고 "○○이는 △△이가 줬어."라고 이야기한다. 엄마는 "△△이가 줬어? 알았어."라고 이야기하고 교사에게 묻는다. "△△이가 우리 ○○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사가 △△이에게 묻자 △△이는 "아닌데. 나 그거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어요. 나 ○○에게 주지 않았어요. 제꺼에요."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발달 상 소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 갖고 싶은 친구 것에 대한 욕구가 인지적 오류로 인해 자신의 것으로 착각
-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의 경우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남
-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의 하나
-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만족이 되지 않아 나타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소유의 개념이 명확한지 파악한 후 상호작용
- 상호작용 1단계: 유아에게 사실 확인하기
  - 유아와 의사소통
    - "다른 친구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보았니?
    - "그 물건 ○○이 것이니?"
- 상호작용 2단계: 유아가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 유아의 감정 이야기 나누기
    - "어떻게 된일이니?"
    - "△△이 것이 왜 서랍장에 있니?"
    - "△△이 것 가져갔니?
    - "△△이 것이 갖고 싶었니?"
  - 친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
    - "○○이의 물건을 다른 친구가 말도 없이 가져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 상호작용 3단계: 용납되지 않는 행동 알려주기
  -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 "친구의 물건이 예쁘고 가지고 싶어도 말없이 가져가면 안된단다"
  - 물건의 소유에 대해 설명해주기
    - 자신의 물건, 친구의 물건, 부모의 물건, 어린이집 물건 등의 예를 들음

상호작용 4단계: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 "예쁘다."
  - "엄마, 갖고 싶어요."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2) 예방적 접근

소유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기

- 극화놀이나 동화책 속에서 소유에 대한 개념 명확하게 정의하기

유아가 친구의 물건을 가려가려고 하거나 눈치를 보면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 분위기 전환하기
- 소유에 대한 것을 놀이로 표현
  - 놀이 중에 "제 것을 말도 없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이야기 하고 가져가셔야죠!"
  - "꼭 돌려주세요~" 등의 표현을 놀이에서 활용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교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 왜 그랬는지 유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기

만약 물건을 가져갔다하더라도 도둑처럼 느끼지 않도록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기

- 잘못된 행동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친절한 어투로 표현하기
  - 지나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일러두기
- 항상 관심으로 긍정적으로 지지하기
  - 채워지지 않는 애정 욕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한번이 아니라 반복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하기

- 한번은 우발적일 수 있으므로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만 반복될 경우 유아의 정서, 사회 발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제5부. 각 론 : 정서발달영역

Ⅰ.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

01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영유아기 정서발달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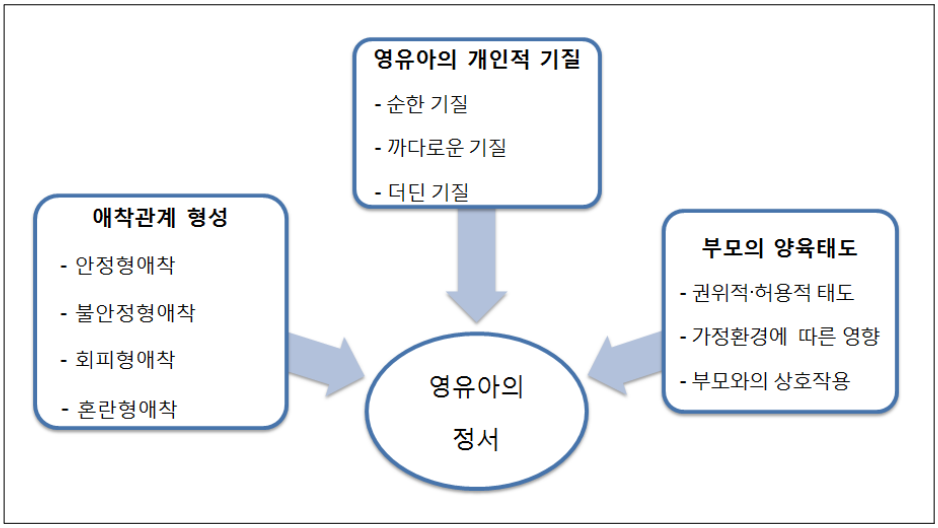
- 정서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말함(국어대사전, 2013).
  - 정서는 특정 장면이 유발하는 생리적 각성, 느낌, 인지 과정 및 행동 등 신체적·정신적 변화의 복합적 형태라고 정의함(임은미 외, 2013).
  - 정서란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보다 분화된 기분 상태로서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의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규정하고 유지하거나 종결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함(오영희·우수경·천호숙, 2004).

- 정서의 기능은 정서를 표현하여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여 특정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임(임은미 외, 2013).
  -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부모나 교사, 또래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리고 또한 주위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황에 적응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
  - 특정한 자극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분노'는 공격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포'는 회피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정서의 이러한 기능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로 볼 수 있음(정옥분, 2004).
  - 정서적 발달은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사회적발달의 기초가 됨(박나영, 2012).

영유아기 정서표현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점차 분화되어 감에 따라 복잡해짐.

- 기본적인 정서는 출생 시 부터 존재하지만 아직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연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확실한 형태의 정서로 분화함(김유미, 2010).
- 영아는 여러 기본 정서들을 나타내는데 생후 1년 6개월~2년 정도가 되면 공감, 질투 당황스러움 등이 표현되며, 2년 6개월이 지나면 자부심, 수치심, 죄책감 등의 정서로 분화됨(임은미 외, 2013).
- 영유아의 일차적인 정서는 예를 들면 영아의 몇 가지 제한된 정서만을 말하는데 이는 생의 초기에 나타나고, 얼굴표정만 보고도 정서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일차정서의 대표적인 예 : 기쁨, 분노, 공포, 호기심, 놀람 등).
- 이차정서는 일차정서보다 늦게 나타나고, 좀 더 복잡한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자아인식은 이차정서로 중요한 요소임(이차정서의 대표적인 예 : 당황, 수치, 죄책감, 질투, 자긍심 등). 영유아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여러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영유아기의 정서는 개인적 기질,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형성,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함.



[그림 Ⅰ-1-1] 영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기 정서는 개인의 기질에 영향을 받으므로 영유아 개인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영아와 양육자 간의 '조화의 적합성'이 중요하며 이는 양육자로부터 특정 양육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질에 기초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함(Susan, 2007).
- 기질이 체질적, 유전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환경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유아의 선천적인 행동 경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Susan, 2007).
- 일찍이 Thomas와 Chess(1976)는 종단연구를 통해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분류가 최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음.
- 영유아의 기질은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
-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주 양육자로부터 까다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음.
- 양육자의 같은 행동이라도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영유아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
- 순한 기질의 영유아의 특성(장세희·오정림·김경민. 2013).

- 항상 즐겁고 조용하며 낯선 사람을 만나도 미소 짓고, 낯선 음식을 줘도 잘 먹음
- 아이가 순하다고 부모의 편의대로 키우다 보면 오히려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언어발달과 운동발달이 늦어지고 자존감이 낮으며, 소심해서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음.
- 자기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에 따르는 경향이 있음.
- 평소 아이의 감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자주 함.
- 아이가 어렵게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했을 땐 부모는 어떤 것이든 충분히 공감해줘야 함.

- 까다로운 기질의 영유아의 특성(장세희·오정림·김경민. 2013).

- 신생아 때부터 먹고 자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 수유를 하는 것도 힘듦.
- 예민하고 겁이 많아 위축되어 있지만 부모가 적절하게 양육하면 자신감 있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변함.
- 예민한 감각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아이들보다 스스로 해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단추 끼우기, 숟가락질, 장난감 조립도 자신이 하고 싶어함.
-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부모가 관심 갖기를 바라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부모가 인정해주길 바람.
- 양육자가 감정적, 본능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하루 10분만이라도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 더딘 기질의 영유아의 특성(장세희·오정림·김경민. 2013).

- 잘 짜인 상황이나 규칙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해 무엇이든 습관이 되면 잘함.
- 보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보상을 하려면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고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함.
- 양육자를 귀찮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자만 양육자를 화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양육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성취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음.
- 아이에게 적당한 주도권을 갖게 함.
- 부모가 주도하는 것은 더딘 기질이 가진 단점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처음부터 잘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아이가 위축될 수 있으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도권을 주되 작고 쉬운 일부터 스스로 하도록 함.

애착 관계의 질은 이후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Barbara & Judy, 2013).

- 영아와 걸음마기 유아의 불안정 애착과 이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여전히 연구가 되고 있지만 영유아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 여부는 모든 맥락에 걸친, 그리고 생애 내내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침(Susan, 2007).

- 애착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 중의 하나임.
- 영유아기의 애착형성은 이후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의 기초가 됨.
- 애착의 유형으로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몹시 불안해 떨어지려 하지 않는 불안정 애착, 양육자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안았다가 내려놓을 경우에는 더 싫어하는 회피적 애착으로 구분함. 회피 애착은 양육자가 있어도 가까이하지 않고, 양육자와 떨어져도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철수하는(withdrawl) 유형임.
- 영유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시키는 것은 앞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임.

- 부모와의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이룬 영아는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의 신체적 접촉보다는 탐색활동과 또래집단에 더 흥미를 나타냄. 이들은 대개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고 어른에게 덜 의존함(이병준, 2013).
-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음(Barbara & Judy, 2013).

- 불안정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협조적, 비순종적이며 공격적임. 또한, 유아기 후반까지도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하고 신체적 접촉을 요구함(이병준, 2013).
- 회피형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자신의 욕구가 만족된 경험이 없어서 관계 자체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음. 겉으로 보기에 매우 독립적으로 보이나 이는 건강한 독립심이 아니라, 기대(욕구를 채워주거나 과한 감정을 진정시켜 주는 등)를 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으려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식임. 이런 유아는 향후 또래나 교사 등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회피적 성향을 띠게 됨.
- 혼란형 애착은 엄마가 돌아와도 혼란되고 모순된 행동을 보여 어머니가 안아줘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위로의 대상인지 또 다른 위협대상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임(한국아동학회, 2013).
- 영아의 애착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병준, 2013)

- 양육자는 영아의 애착신호를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함.
- 영아의 신호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해줘야 함.
- 일관성 있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영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친숙한 보육교사와 있도록 하며 영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최소화 함.

영유아의 정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기도 함.

-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혹은 허용적일 경우, 자기 통제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
- 영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유아는 잘못된 행동을 학습하기도 함.
-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부모의 이혼, 실직, 형제자매 간의 차별, 부부 싸움으로 인한 갈등, 빈곤, 유아에 대한 비난, 무력감 등으로 인해 가정의 정상적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영유아에게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영유아와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신뢰하고 바른 자아상을 키울 수 있음.

나. 영유아기 정서발달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1) 영유아기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범위(Barbara·Judy, 2013)

- 영유아의 인지발달, 사회발달, 정서발달을 방해하는 행동
- 영유아 자신이나 친구들 또는 성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 나중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습 실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 부적응행동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영유아가 자신의 생활을 적응적으로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는 행동

2)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원인

영유아의 개인적 취약성

- 영유아의 기질, 지능, 그 외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특정 문제행동을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취약성 중 대표적인 요인은 영유아의 기질임.
- 낯선 상황이나 자극에 겁을 많이 내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이 많으며, 예민하고 낯가림도 심한 경우, 영유아의 타고난 성향 자체가 불안과 관련된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됨.
- 충동조절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을 통해 유쾌감과 흥분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영유아는 그로 인해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주변 성인이나 또래에게 화를 표현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음.

환경적 요인

- 영유아의 문제행동 발생에 기여하는 환경적인 요인은 부모의 양육방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모의 정신병리, 부부갈등, 한부모나 조손가정 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 빈곤 등을 찾아볼 수 있음. 이 중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부모와 관련된 변인임.
- 부모가 쉽게 불안이나 우울감이 많거나, 분노 통제가 안되는 경우 영유아는 관련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쉬움.
- 부모, 특히 어머니와 영유아가 안정적이고 친밀한 애착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영유아는 안정감이 부족하여 새로운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자신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됨(염숙경, 2002).

- 부모의 양육행동이 일관성 없을 때 영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을 느끼거나 반항심을 가질 수 있음.
- 성인의 지나친 보호와 통제는 스스로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김광웅 외, 2011). 이로 인해 영유아는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좌절로 인해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음.
-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이나 우울감이 쌓여, 이로 인해 쉽게 긴장하거나 침울해질 수도 있으며 좌절감을 외부로 쏟아내 또래와 교사에게 거친 행동을 할 수도 있음. 적절한 좌절이나 제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도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음.

다. 영유아기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정서발달 문제행동의 원인과 치료를 위해 영유아기에 관심을 가짐.

- 사회부적응 행동 혹은 문제행동은 생의 매우 이른 시기 영아기에 시작됨.
- 시간이 흐르고 영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많지만, 문제 양상과 빈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빈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 영유아기의 가벼운 적응문제는 심각한 학령기의 문제행동의 기원(source)이 될 수 있음.

영유아기에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확정된 대상을 진단하여 치료하기 보다는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것과 같은 위험대상을 적기에 발견하여 보다 심각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임.

- 영유아기의 정서적 안정감은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아가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듦.

영유아기 근접한 환경에서의 경험은 이 후의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김광웅 외, 2011).

02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목록(표)

〈표 Ⅰ-2-1〉 영아·유아 정서발달 영역 문제행동 사례 목록

	번호	문제행동 사례	유형
영아	1	-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A. 분리불안
	2	- 교사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3	-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4	-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을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B. 대물애착
	5	-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6	-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C. 자주 우는 행동
	7	-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D. 우울
	8	-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E. 분노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9	-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10	-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F. 자위
유아	11	-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G. 분리불안
	12	-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H. 자주 우는 행동
	13	- 잘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I. 지나친 수줍음
	14	-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15	-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16	-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17	- 강박성향을 가진 경우	J. 강박성향
	18	-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19	-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K. 틱
	20	-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L. 우울
	21	-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22	- 정서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M. 분노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23	- 분노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24	-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N. 지나친 고집
	25	-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26	-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27	-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28	- 환경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O. 부주의와 산만
	29	-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30	-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 하는 경우	P. 자위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사례는 주제별로 12개로 분류되었음.

- 분리불안, 대물애착, 자주 우는 행동, 지나친 수줍음, 강박성향, 틱, 우울, 분노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지나친 고집, 부주의와 산만함, 자위로 나누어지며 이 중에서 분리불안, 자주 우는 행동, 우울, 분노 폭발 및 감정조절 불가, 자위는 영유아 공통 주제임.
  - 각 주제에 따라 영아, 유아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음.

03 정서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가. 영유아에 대한 이해

영유아의 개인적 기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함.

- 개별 유아의 기질적 특성, 특성에 따른 변인을 이해해야 함.
- 개별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수용해야 함.
- 개별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진행해야 함.

영유아의 스트레스 원인 찾아 대안 및 해결책을 계획해야 함.

- 영유아 관찰 및 부모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문제를 야기하는 스트레스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및 해결책을 찾아야 함.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대안 및 해결책을 함께 공유해야 함.
-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대안 및 해결책을 실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대비책을 찾아보도록 함.

영유아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고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할 수 있음 (〈부록 1〉 참고).

- 한국판 교사용 유아문제행동척도(K-Teachers Report Form: K-TRF; 오경자, 김영아, 2009)
- 한국판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Korean Junior Temperament & Character Inventory: K-JTCI; 오현숙, 민병배, 2007)
- 두 검사 모두 유료검사이며, 필요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교사가 직접 실시하거나(K-TRF),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K-JTCI)

영유아의 행동을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유아의 문제행동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교사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동료 교사나 원장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됨.
- 영유아를 명명하거나 낙인찍는 행동은 금물임.
- 영유아의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나. 부모와의 협력

교사는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함.

- 부모와 맺은 긍정적 관계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나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기초가 됨.
-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
- 영유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도 가능한 한 영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먼저 언급하고 강조해야 됨.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장점이 많은 영유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교사는 부모 자신의 문제나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영유아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양육관련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반영해주어야 함.
- 지금까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애써 온 부모의 노력과 애씀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됨.
- 영유아 양육 외에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감해 부모의 부정적 감정이 발산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가능한 해결책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음.

교사는 부모와 영유아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위해 부모 코칭 및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함.

- 부모 스스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 기질, 양육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해야 함.
- 부모 자신의 성격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진행해야 함.
- 자칫 지금까지 부모가 해 온 양육방식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됨. 긍정적인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 자녀의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상호작용 코칭법을 알려주어야 함.
- 자녀가 나타내는 정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함(박재규, 1980).
  - 사회적인 강화를 통하여 자신감을 길러 주면서 어떤 때는 행동의 규준이나 제한점을 제시해 주어야 함.
  - 영유아의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하여 동일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도움을 주어야함.

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의 지도

긍정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영유아–교사 간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권정윤 외, 2012).

-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유아-교사 간의 긴밀한 애착 형성이 필요함(심숙영, 2013).
-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진단하는 것은 영유아의 상황이나 행동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
- 문제행동의 수정에서 유아-교사 간의 신뢰가 기본적인 바탕이 됨.

바람직한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영훈·주연희·김성수, 2013).

-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킴.
- 교사 및 주변 성인들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함.
-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할 기회가 증진됨.
- 또래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도와줌.
-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킴.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이 중요함.

- 교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권정윤 외, 2012).
  - 유아의 문제행동을 다룰 때 교사의 감정조절이 힘들어 교사의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면 유아는 압도되고 죄의식을 갖게 됨.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함.
- 유아의 감정 다루는 5단계(권정윤 외, 2012)
  - 1단계 : 유아의 감정을 인식하기
  - 2단계 : 감정적 순간을 친밀감 조성과 교육의 기회로 삼기

- 3단계 : 유아의 감정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기
- 4단계 : 유아가 자기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 5단계 :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 정해주기

교사와 영유아간 효율적인 대화 전략(이영훈·주연희·김성수, 2013).

◆ 반영적 경청하기

- 영유아가 문제행동으로 교사나 또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상호작용의 시작은 반영적 경청임.
- 영유아가 어떤 표현이나 말을 할 때 가만히 귀 기울려 듣는 것은 대화의 기본적인 태도임.
- 교사는 영유아의 말이나 표현에 관심을 갖고 듣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그렇구나', '으응'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이나 미소 짓기나 고개 끄덕이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영유아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있음을 알도록 함.

◆ 적극적 경청하기

- 때로 단순한 경청이나 듣고 있다는 표시만으로 영유아는 아직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므로 유아가 표현한 감정과 태도를 다른 말로 표현해주는 것을 뜻함.
- 영유아의 말에서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행동, 표정, 또는 말 뒤에 깔려있는 감정을 되받아 표현해주는 것임.
- 영유아의 동기, 희망, 욕구를 읽어주고 받아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먼저 책을 주기를 기다렸구나. 알았으면 더 일찍 주었을텐데.' 라고 영유아의 마음을 읽어줌.

◆ 나-전달법(I-message) 활용하기

- 교사가 영유아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 영유아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나-전달법을 통해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 없이 서술함.
- 영유아의 문제행동이나 이로 인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교사의 감정이나 느낌을 서술함.
- 나-메세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 유아의 행동 : ~하면
▸ 교사의 느낌 : ~라고 느낀다.
▸ 유아의 행동의 결과 :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면, '자꾸 울기만 하지마'라고 하기보다는 '□□가 울기만 하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음.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함.

- 영유아가 만족감 및 성취감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해야 함.
- 교사의 모델링이나 구체적인 격려로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해야 함.

부모와 함께 찾은 영유아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을 실행함.

영유아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영유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영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교사의 주의, 기억, 문제해결, 동기에 영향을 줌(Barbara·Judy, 2007).
- 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영유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음.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됨(Barbara·Judy, 2007).

교사의 자기성찰이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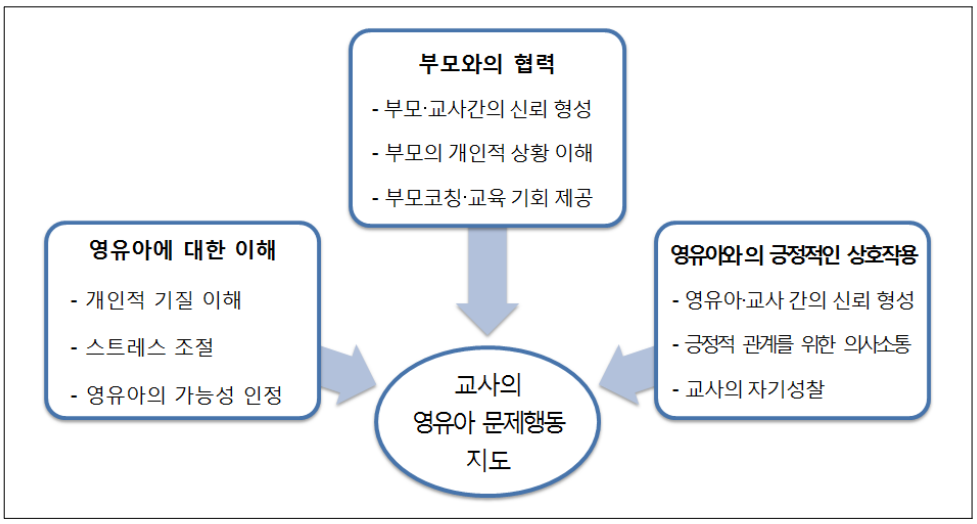
- 자기성찰은 태도와 방법으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략임.
-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실행하는 자발적인 의지임.
- 자신의 감정, 가치, 믿음에 대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더 의미있을 것임.

다양한 개입방안이 효과가 없고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심화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후 개입을 계획할 것을 기관장 및 부모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음.

요약하면, 교사가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영유아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영유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추후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될 경우 교사-부모 간 신뢰는 부모와 상담가와의 신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영유아와의 애착형성이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
- 영유아의 개인적 기질이나 스트레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가능성을 인정함.



[그림 Ⅰ-3-1] 교사의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방안

라.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발견시 조치 요령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보건복지부, 20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91(전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Ⅱ. 「정서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영아편〉

01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

연령 : 만 1세
부모와 헤어질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을 치며 울음을 보인다. 교사가 안아보려 하지만 발로 차며 거부한다. 부모와 헤어져 보육실에 들어오면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다. 저녁에 부모가 데리러 오면 갑자기 보육실에서 놀이를 시작하며 부모를 쳐다보지 않는다. 부모가 보육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가자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아를 안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친다. 부모의 신체 일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 보통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는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관계가 약하고 영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양육자가 즉각 반응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임(김태자, 2008).

- 영아는 양육자와 분리 시에 불안감이 높아지나 하원 시에 양육자를 다시 만나도 그 불안감이 해소 되지 않고 양육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임.
  - 영아가 양육자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였다면 양육자와 분리 시에 힘들었다가도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하원 후에 양육자를 다시 만났을 때 다가가 안기거나 기쁨을 표현함.
  - 그러나 양육자와 다시 만났을 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영아가 양육자와의 분리 시 보이는 불안은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영아–양육자 안정 애착형성을 위한 상호작용 방법 활용하기

-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항상 관찰하고 살펴보아 영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불편해 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여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예	
상황	영아가 우유를 보며 손을 내민다. 양육자는 "우유 줄까?"하면서 영아의 얼굴을 쳐다본다. 영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양육자를 본다. 양육자는 작은 우유팩을 영아에게 쥐어 주려 한다. 영아는 손을 흔들고 "으응"소리를 내며 우유팩을 받지 않는다.
발문	"우유가 싫어? 그럼, 무엇을 줄까?"영아가 우유팩 옆의 빨대 상자를 가리킨다. "빨대를 줄까?" 라고 말하자 영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양육자가 영아에게 빨대를 쥐어 준다. 영아는 빨대를 손에 쥐고는 무언가를 더 원한다는 듯이 서 있다. 양육자는 "우유도 줄까?"라고 이야기하며 우유팩을 영아의 손에 쥐어 준다. 영아는 한 손에는 빨대를, 한 손에는 우유팩을 들고 미소 짓는다.

- 따뜻한 상호작용을 위해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상호작용하기, 영아와 눈을 마주치며 상호작용하기, 안거나 무릎에 앉도록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며 상호작용을 진행하기

따뜻한 상호작용의 예	
상황	목욕 후 잠을 자려고 영아와 양육자가 함께 침대에 눕는다. 영아는 아직 잠이 오지 않는지 침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뒹굴거린다.
발문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야, 토닥토닥해 줄까? 자장자장 노래도 불러줄게~"이야기 한다. 영아가 다가오면 영아의 몸을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른다.

-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자녀가 즐거워하는 놀이, 상황을 부모가 함께 느끼고 즐거워하기
- 자녀가 느끼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 하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 아무리 어린 영아라도 양육자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 때문에 양육자는 영아의 놀이, 표현을 진심으로 즐기려고 노력하기

즐거운 감정 공유하기의 예	
상황	영아가 커다란 스폰지 블록을 2~3개 높이 쌓는다. 부모는 영아가 블록 쌓는 것을 보며 새로운 블록을 꺼내 옆에 놓아 준다. 스폰지 블록을 2~3개 쌓은 영아는 갑자기 손으로 블록을 친다. 블록이 무너지자 영아가 손뼉을 치며 웃는다.
발문	양육자는 영아가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블록이 무너졌네. 쿵! 소리가 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보인다.

교사의 부모 지원하기

- 일단, 양육자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기
- 양육자가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 사례를 가져오게 해 그 사례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예를 제시하기

양육자와 사례 나누기의 예	
상황	영아가 밤잠을 잘 때 양육자가 토닥여 주는 행동을 거부한다. 양육자는 영아에게 따뜻한 상호작용을 시도하려 노력했으나 영아가 거부하자 당황한다. 양육자는 교사와 사례를 나누고 도움을 받고자 한다.
발문	교사는 양육자의 시도를 격려하고 양육자의 마음을 읽어 준다. "○○에게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하셨군요. 그런데 ○○가 토닥이는 것을 거부해서 속상 하셨겠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한다. "○○에게 토닥여줄까?라고 물어 보시고 영아의 반응에 따라 상호작용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가 싫다고 하면" 그래, 그럼 토닥이지 않을게. 그런데 "○○가 잘 잘 수 있도록 옆에 있을게"라고 말씀해 주세요.

- 눈 맞추기, 영아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신체 접촉하기 등을 시범 보이기

시범 보이기의 예	
상황	양육자가 영아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대해 궁금해 한다.
발문	교사는 영아, 양육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등하원 시간에 간단히 시범을 보인다. "지금, ○○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죠. 무언가 불편한 것 같지요. 아, 앞을 보니 놀잇감이 바닥에 많아서 불편했나 봐요. 놀잇감을 치워주어 볼게요. 다시 움직이네요. 이렇게 항상 ○○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착을 돕는 가정환경 구성 유도하기

- 부드러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파스텔 톤 색감의 쿠션, 매트를 배치하기, 영아가 만질 때 촉감이 부드러운 인형 등도 준비하여 매트 위에 함께 놓아주기

- 영아에게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천정이 낮아 보이도록 캐노피 부착하여 아늑한 환경 구성하기
- 꽃, 나무 등 식물을 가정 곳곳에 배치하여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을 구성하기

양육자 면담을 통해 양육자가 스스로 수용성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 양육자가 면담을 통해서 스스로 수용성을 확대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도와주기
- 가정의 화목이나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기

양육자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기

- 양육자가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는 등 정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반응하기 어려워지므로 혹시 양육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양육자의 심리적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해주어 부정적 감정이 발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음.

02 교사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연령 : 만 2세
등원 시간에 담임교사가 맞이하면 부모의 품을 파고들며 울음을 보인다. 부모는 해당 영아가 집에 와서 교사가 무섭고 밉다고 한다며 걱정을 한다. 교사는 영아와 특별히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나누지 않았는데 왜 영아가 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지 고민한다. 일과 시간 중에 교사가 해당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시무룩해 하거나 놀이를 중단한다.

가. 원인 분석

어린이집에서의 분리불안은 때로 영아와 교사 간의 심리적 부조화로 생길 수도 있음.

- 교사의 성격이나 수용성, 민감성 정도 등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러 요인과 영아가 맞지 않을 시 영아의 분리불안을 가져오거나 심화시킬 수 있음.

- 교사는 위의 사례에서 영아와 특별히 부정적 상호작용을 나눈 기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영아는 교사에게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교사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는 교사가 특별히 다른 영아와 달리 해당 영아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했다기보다는 영아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음.

- 영아의 기질은 순한 기질, 더딘 기질, 까다로운 기질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아의 기질에 따라 영아에게 더 적절한 다른 교사가 있을 수도 있음.
  - 교사의 성격이나 수용성, 민감성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는데 이는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과 성장해 온 배경에 따라 달라짐.
  - 이와 같은 교사의 개인변인과 영아의 기질이 서로 '조화의 적합성'이 높을 때 영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음.

- 교사가 제시한 어린이집에서의 규칙을 영아가 버거워하는 경우도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영 외, 2011) 영아의 기관생활 적응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영아의 분리불안이 교사와의 부조화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아와 다른 교사의 상호작용, 영아에 대한 교사의 감정, 영아에 대한 다른 교사의 반응과 정서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 같은 영아를 대하는 다른 교사들보다 유독 내가 더 힘들게 느껴지고 부정적 감정이 들거나 관계가 나쁘다면 교사와 영아간 조화의 적합성이 어긋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됨.

나. 지도 방법

- 교사 스스로 자신의 성격, 수용성, 민감성 등을 점검하기
  - 교사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취약점을 항상 점검하여 개별 영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 일일보육일지의 실행 기록을 작성할 때, 영아와의 놀이 및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아가 보였던 반응, 교사 자신의 상호작용과 태도를 다시 떠올려 보고 자신의 상호작용과 태도가 영아의 기질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영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였는지 점검하기

〈표 II-2-1〉 교사의 일일보육일지를 통한 점검의 예

연번	내용
1	활동 전이가 쉽지 않은 영아가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정리 시간을 다른 영아 보다 미리 지속적으로 알려 주었는가?
2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영아는 그 욕구를 수용해 주었는가?
3	반응을 보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아를 기다려 주었는가?
4	보다 민감하고 큰 반응을 보이는 영아를 수용해 주었는가?
5	기분의 변화가 급격한 영아를 수용해 주었는가?

교사도 특정 영아에 대해 싫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기분을 분석하지 않고 누르고, 감추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김재은, 2013).

- 자신의 기분을 분석해보고 적극적으로 영아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함.
- 성격 중에 좋은 점이 보이면 칭찬도 해주고 그림을 그릴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함.
- 영아가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상호 교류할 수 있음.

개별 영아의 기질적 특성에 적합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 제시하기

- 순한 기질의 영아에게는 일상적이면서도 따뜻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와의 친밀감 높이기

순한 기질 영아의 예	
상황	영아가 놀잇감 컵을 입에 가져가서 마시는 척 놀이하고 있다. 교사는 교사가 이동을 하면 울음을 보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안고 있다.
발문	교사는 까다로운 영아를 데리고 멀리서 "○○가 컵으로 꿀꺽꿀꺽 마시고 있네"라며 눈을 마주쳐 준다.

-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에게는 보다 수용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제공해야만 안정감을 느낌.
- 그러므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수용성과 민감성이 높은 교사와 만난다면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훨씬 원활할 것이므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에게는 교사의 보다 더 큰 수용성과 민감성을 보여주기

까다로운 기질 영아의 예	
상황	정리시간을 힘들어 하고 정리 후 실내에서 실외놀이터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공간의 변화를 어려워하는 영아가 있다. 실외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중 교사가 정리시간을 알린다. "얘들아, 조금만 있다가 놀이 정리하고 보육실로 들어갈거야."라고 이야기한다. 해당 영아는 들은 척 하지 않는다. 5분 정도 후 교사가 "자, 이제 모래 놀잇감을 상자에 넣어 보자. 몸을 털고 보육실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 한다. 해당 영아는 계속 모래놀이를 한다. 교사가 영아에게 다가가 "○○야, 이제 정리하고 보육실 들어가자. 정리 해 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줄까?"하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다.
발문	모래놀이를 하던 중 다른 영아보다 먼저 해당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정리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다른 영아는 정리 5분 전에 알려 주면 되지만 해당 영아의 경우 정리 15분전에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곧 정리시간이란다"라고 알려준다. 즉,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해당 영아에게 정리 시간이 다가옴을 알려주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격이 급한 교사는 더딘 기질 영아를 불편해 하고 그 불편함은 영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서 영아 자신도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더딘 기질의 영아가 모든 활동에서 자신의 속도대로 표현하는 것을 재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기

더딘 기질 영아의 예	
상황	영아가 스푼을 들고 이유식을 먹으려 한다. 스푼으로 이유식을 뜨고 입으로 가져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영아는 입에 넣은 후 입을 다무는데 시간이 걸려 입에서 이유식이 흘러내린다. 영아는 이유식이 흘러내리는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발문	교사는 "○○가 혼자서 이유식 먹고 싶구나! 그래, 먹어보렴.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라고 반응하고 이유식이 흘러내리면 "입을 다물고 냠냠 먹어보자. 흘린 것은 선생님이 닦아줄게"라고 반응하며 영아를 재촉하지 않는다.

교사의 소진 방지하기

- 교사가 운동, 취미생활 영위 등을 통해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 교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인스턴트식품이나 나트륨,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지양하기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에게 유연하게 반응하기(김재은, 1993)

- 교사는 마음에 드는 어떤 한 가지 형의 아이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적극적으로 아이를 좋아해 주는 기법을 갖기

- 교사를 무서워하는 아이에게는 상냥하게 대하고 그림그리기나 만들기시간에 끝맺음을 잘하지 못할 때에 도와준다든지 자유놀이시간에 손을 잡아주기

- 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교사와 영아와의 애착 관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를 쌓도록 하기

03 아직 어려서 헤어지기가 어려운 경우

연령 : 만 0세
등원할 때 양육자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교사가 안아주면 울음을 보인다. 교사의 품에서도 쉽게 안정되지 않고 문을 바라보며 울음을 보인다. 오전 이유식을 주자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이유식 숟가락을 피한다. "오늘은 맛있는 닭죽이야. 한번만 먹어보자"라고 교사가 권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유식을 정리하고 영아가 관심 있어할 만한 '누르면 소리나는 놀잇감'을 권하지만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교사의 품에 안겨 있다. 교사가 "○○가 놀이하고 있으면 엄마(또는 아빠)가 회사 다녀 오실거야"라고 이야기해도 계속 교사의 품에 안겨 울음소리를 낸다.

가. 원인 분석

- 만0~1세 영아는 발달상 자연스러운 분리불안을 경험함.
  - 이 시기 영아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하원 시간이 되고 부모가 데리러 온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움.
  - 영아는 유아에 비해 낯선상황, 새로운 사건이나 자극 등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무서워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깨지기 쉬움.

- 분리불안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발달단계상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자연스러운 분리불안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영아에게 일관된 방식의 설명 제공하기
  - 교사는 분리불안으로 인해 영아가 부정적인 표현을 보일 때, 늘 부드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영아의 감정을 읽어 주기.

영아의 감정 읽어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자유놀이 시간에 누르면 소리 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소리 나는데에 집중하던 영아가 갑자기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다가가서 “○○는 엄마가 보고 싶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나는구나!”라고 말하며 토닥여 준다.

- 양육자와의 분리 이유와 양육자가 돌아오는 시간을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일과명을 넣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명해주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설명의 예	
상황	영아가 자유놀이시간에 누르면 소리 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소리 나는 데에 집중하던 영아가 갑자기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놀이하고 코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오신데. 엄마 빨리 오세요. 하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다.

영아의 발달 이해하기

- 영아가 새로운 환경과 낯선 성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영아가 서서히 새로운 환경과 교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아가 원하는 수준에서 교사의 접근과 상호작용 조절하기

불안함에서 벗어나 영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흥밋거리를 찾아 제공하기

- 끌고 다니는 놀잇감, 누르면 빛이 나는 놀잇감, 모양을 맞춰 놓는 놀잇감 등 영아가 흥미있어할만한 놀잇감을 제공하여 영아의 반응을 유도하기
-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을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물질(여러 가지 종이, 두부, 요플레, 다양한 과일과 야채 등)을 제공하기

04 아기 때부터 쓰던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연령 : 만 1세
영아가 손에 아기 때 쓰던 담요를 들고 부모님과 등원한다. 교사가 “안녕, ○○야, 어서와. 손에 담요를 들고 있네~”라고 이야기 한다. 영아가 보육실로 들어와 한 손에 담요를 들고 책을 보고

있다. 역할·쌓기영역으로 이동해 블록을 쌓더니 불편한지 담요를 바닥에 놓는다. 영아가 계속 담요를 놓은 채 블록을 쌓는다. 교사가 다가가 "○○야, 담요를 서랍에 놓고 올까? 자꾸 밟히네~"라고 이야기하자 영아는 "으흥"하고 큰 소리를 내더니 담요를 얼른 집어 품에 안는다. 영아는 쉬는 영역으로 이동해 담요를 품에 꼭 안고 누워 있다.

가. 원인 분석

대물애착은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음.

- 드물게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의 대물애착도 정상적인 것으로 분류하기도 함.
- 교사나 부모의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영유아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음.
- 대물애착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상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심해질 경우,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특정 사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형성될 수 있음.

- 양육자가 영아에게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함.
- 양육자가 수용적이지 않음.
- 양육자가 영아에 대해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영아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함.
- 위와 같은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아는 특정 사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기지를 탐색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편안함을 느끼던 물건이 대상이 됨.

가족관계의 문제가 있음.

- 가족간에 원만하지 않은 관계형성으로 인해 영아에게 불안감 조성함.

나. 지도 방법

영아의 반응 허용하기

- 해당 물건에 대한 집착을 허용하여 일과 중에 영아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의 예	
상황	영아는 등원하면서 손에 큰 목욕 수건을 들고 있다. 엄마가 "○○야,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수건을 사물함에 넣어 두자"라고 말하자 "이잉, 이잉"이라고 소리를 지른다.
발문	교사가 "○○가 수건을 들고 있고 싶구나. 그럼, 수건을 가지고 보육실로 들어올래? ○○가 들고 있고 싶은 만큼 수건을 가지고 있으렴"

- 담요, 스카프 등에 집착을 보이면 일과 중에 가지고 발로 밟아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도움을 주어 안전하게 일과를 보내도록 하기

안전에 유의하기의 예	
상황	영아가 애착을 보이는 큰 목욕 수건을 화장실 갈 때 손에 들고 이동한다.
발문	교사는 "○○야, 걸어갈 때 수건을 밟아 넘어질 것 같아. 선생님이 수건을 말아줄게. 자, 수건을 안고 가자"라고 이야기한다.

- 새로운 물건 제시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켜주기(서명원 외, 2010)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켜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한 손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다.
발문	교사는 "○○가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구나! 여기 블록이 있어. 블록으로 자동차길을 만들까?"라며 두 손으로 블록을 움직여 쌓도록 제안한다. 영아가 한 손으로 블록을 들어 움직이려다 잘 되지 않자 잠시 수건을 내려놓는다. 블록을 두 개 연결시키더니 주변을 살펴보며 다시 수건을 집어 든다. "수건을 찾았구나! 다시 들고 있고 싶어. 그래 수건을 들고 놀이해 볼까?"라고 이야기 한다.

영아–양육자 안정 애착형성을 위한 방법 제시하기

- 양육자와 헤어져도 만나도 힘든 경우에 「문제행동 사례 1」에 제시된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지도방법을 참조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기
- 양육자가 영아의 기질적,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일관성 있고 넓은 수용성을 증진시키도록 돕기
- 영아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온전히 영아에게 집중하고 자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하고, 이외에 로션 발라주기, 과자 먹여주기, 서로 얼굴 만져보기 등 긍정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도 도움이 됨.

가족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하기

- 가족면담을 통해 가족간의 원활하지 않은 관계가 영아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교사가 조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가족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문상담 기관, 또는 전문 치료 기관을 소개하여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05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는 경우

연령 : 만 2세 성별 : 여
어머니의 출산으로 가정에서 돌보아 줄 성인이 없어 할머니 댁으로 영아가 보내진다. 할머니 손을 잡고 등원한 영아는 놀이를 하지 않고 눈물을 보인다. 교사가 평소 영아가 선호하던 놀잇감을 제시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사에게 안아달라고만 요구한다. 교사가 영아의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바로 교사를 찾으며 울음을 보인다.

가. 원인 분석

가정에서 지내다가 기관에 처음 적응할 때 주위의 변화로 불안해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경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가 속함.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을 했다가도 새로운 교사와의 만남으로 불안할 수 있음.

- 새 학기 교사와의 만남으로 불안할 수 있음.
- 학기 중에 애착이 이미 형성된 교사와 헤어지고 새로운 교사를 만나는 경우가 속함.

가정에서의 변화가 기관생활에 영향을 미쳐 기관에서 불안해 할 수 있음.

- 이사로 인한 주위의 변화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낌.
- 동생 출생으로 인한 가정환경의 변화가 불안감을 야기함.
- 부모의 불화로 인한 불안감이 조성됨.
- 모의 취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거나 기관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느낌.

나. 지도 방법

영아의 반응 수용하기

- 갑작스러운 물리적, 인적 환경변화 때문에 영아가 불안감을 보이고 그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대물애착을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와 언어로 읽어주기

불안한 마음 읽어주기의 예	
상황	등원해서 시무룩한 얼굴로 또래가 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영아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뛰어가 엄마의 냄새가 베인 스카프를 가지고 온다.
발문	교사는 "○○야, 엄마가 보고 싶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스카프를 가지고 오고 싶었구나!"라고 이야기한다.

영아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원인 찾아 해결하도록 부모와 협력하기

영아에게 흥미 있는 놀이 안내하기

- 특정 대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영아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고 함께 놀이하기
- 0세는 까꿍놀이, 1세는 물 마시는 흉내 내기, 아기 안아주는 흉내 내기 등 간단한 모방행동과 관련된 놀이, 촉감길 걷기, 공놀이 등 신체활동놀이, 2세는 모형 자동차놀이, 음식 만들기놀이, 가위놀이 등을 제공하기
- 개별 영아를 세심히 관찰하여 선호하는 놀잇감과 놀이를 파악하고 영아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고 난 뒤, 영아가 놀잇감과 놀이로 관심이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선호하는 놀잇감과 놀이 제공하기

개별적이며 특별한 보살핌 제공하기

- 교사가 자신을 다른 또래보다 더 특별하게 여긴다고 느끼도록 1:1 상호작용 시간을 늘리기
- 영아와 1:1로 놀이하기, 낮잠 자기 전 토닥이면서 상호작용하기, 기저귀 갈이하면서 개별 상호작용 하기 등을 실행하기
- 영아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의 신체 접촉 이외에 영아와 코 비비기를 한다던가, 이마를 마주 대어 본다든가, 간지럼 태우기를 하는 등의 다양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기

06 무조건 울어 버리는 경우

연령 : 만 1세
영아가 보육실의 감각·탐색영역에 앉아 바닥에 쌓기 컵을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그 옆을 다른 또래가 지나가자 갑자기 영아가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가 다가가 "○○야, 뭐가 불편하니?"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옆을 지나갔던 또래를 가리킨다. "△△가 불편하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라고 교사가 이야기하자 계속 지나갔던 또래를 가리키며 운다. "○○가 이야기 해 주어야 선생님이 도울 수 있어"라고 교사가 이야기하자 영아는 손가락으로 다시 지나갔던 또래를 가리키며 "나를"하며 손으로 자신의 몸을 친다. 교사가 해당 또래를 쳐다보자 그 영아도 교사를 쳐다본다. 교사가 "○○야, △△가 몸을 치고 갔어?"라고 묻자 영아는 "응"하고 대답한다. 또래는 "아니야"하면서 교사를 가만히 쳐다본다.

가. 원인 분석

- 영아들 중에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이해능력이 낮아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영아는 상황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기 쉬움. 예를 들어, 또래가 옆을 지나가는 것을 자신을 때리려 한다고 생각한다든가, 또래가 물건을 짚다가 몸을 건드리면 자신에게 공격적 행동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경우임.
  -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영아들은 부정적 감정의 표현 중에 울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임.

- 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느끼고 울음을 선택함(서울시보육정보센터, 2012).
  - 자기의 요구, 불만, 호소 등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우는 것으로 나타내거나 요구함.

-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낮은데 문제상황에서 우연히 울었더니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잘못된 학습이 강화됨.
  - 울음이 관심을 끌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집중을 얻으려고 사용함(Eva L., 1988).
  - 잘못을 용서받거나 무마되고 난 후 자기방어의 용도로 사용함(이유미 외, 2003).
  -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는 것으로 나타내거나 요구함(김재은, 2013).
  - 책임회피의 수단으로써 비난받을 때 울면 상황을 피할 수 있음(김재은, 2013).

의사전달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임(이순례 등, 2001).

나. 지도 방법

영아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하기

- 상황을 정확히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하기

구체적인 상황설명하기의 예	
상황	영아는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또래가 자신의 몸을 스쳤을 때 자신을 때렸다고 이해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야, △△가 너를 때렸다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는 자동차를 잡으려고 했데. 자동차를 잡으려다가 너의 몸을 살짝 건드렸데"라고 이야기한다.

- 영아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 문장과 표정, 동작과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모두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설명하기의 예	
상황	영아는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또래가 자신의 몸을 스쳤을 때 자신을 때렸다고 이해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영아에게 움직임을 보이며 설명한다. "○○야, 네 옆에 자동차가 있지. △△가 선생님처럼 자동차를 짚으려다가 ○○의 몸을 건드렸데"

- 상황이 이미 지나간 후 설명하면 영아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류를 겪을 때마다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설명하기

상황 이해를 돕는 활동 진행하기

- 1~2세 영아에게는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1:1로 보며 상황에 대해 교사와 함께 이야기하기

그림책 보기의 예	
상황	한 명의 영아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림 즉, 한 명의 영아가 놀이하거나, 급간식을 먹는 등의 그림책에서 시작하여 두 명 이상의 영아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림 즉, 한 명의 영아가 블록을 쌓고 그 옆을 다른 영아가 지나가는 그림, 한 명의 영아가 블록을 쌓고 다른 한 명의 영아가 블록을 쌓고 있는 영아의 옆에 있는 놀잇감을 잡으려고 하는 그림 등을 함께 보며 정확한 상황을 교사와 이야기한다.
발문	"○○야, 그림책 속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친구가 옆을 지나가니까 나머지 한 친구가 울고 있네. 왜 울까?"

- 영아가 그림에 나오는 간단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언어로 명료화 해 주기
-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기

울음 외의 대안 찾기의 예	
상황	○○가 다른 영아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을 가지려고 하자 다른 영아가 놀잇감을 들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는 울면서 놀잇감을 가지고 간 다른 영아를 손으로 지목한다. 교사는 잠시 동안 모르는 체 놔 두었다가 등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교사를 보게한다.
발문	"○○야, 왜 우는거지? 이유를 말해 줄 수 있어?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 수 없잖아." 이유를 듣고 난 뒤, "아아, 그런 일이라면 울지 않아도 될 걸 그랬구나. 다른 놀잇감을 같이 찾아보자." 하고 충분히 격려해준다.

우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김재은, 1993)

- 아이가 슬플 때나 짓궂은 일을 당했을 때, 아플 때, 분할 때 등은 위로해 주기
-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나 주목을 끌려고 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자기방어를 하려고 할 때의 울음에는 오히려 위로가 역효과를 내므로 위로해 주지 않기

여러 개입이 효과가 없을 시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교사의 개입에 따르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 강화해 줌(이순례 등, 2001).

07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연령 : 만 2세
오전실내자유놀이시간에 휴식영역으로 간다. 쿠션에 기대어 눕는다. 시무룩한 얼굴로 역할·쌓기 영역에서 놀이하는 다른 또래들을 가만히 쳐다본다. 교사가 다가가 "○○가 쉬고 싶구나!"라고 이야기 하자 영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조금 쉬다가 놀이하러 오렴"하고 이야기 한 후 다른 또래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10분정도가 지난 후 교사가 다시 가서 "○○야 다 쉬었어. 놀이할까?"라고 묻자 영아는 고개를 젓는다. 영아는 점심을 먹고 나서도 휴식영역에 누워 있고 오후자유놀이시간에도 시무룩한 얼굴로 휴식영역에 누워 있다. 그 다음날도 놀이시간에 시무룩한 얼굴로 휴식 영역에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가. 원인 분석

영아 중에 기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기분(mood)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음.

- 기질적으로 일과가 불규칙적이며 반응성과 민감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가 행복하지 않은 기분(mood)을 타고 나는 경우가 다수임.
- 감정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되나, 4세경에는 말로 호소할 수 있게 되므로 그다지 울지 않는 것이 보통임(이유미 외 2003).
- 감정면에서 자립성 발달이 다소 더딘 경우가 있음(김재은, 1993).

영아–부모 관계가 불안정하여 영아가 늘 우울한 경우가 있음.

-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부모에게서 만족스러운 정서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 좋지 않은 기분이 계속 유지됨.

특정 시기에 특정한 문제(부모 불화, 이사, 가족의 질병, 동생의 태어남)로 인해 부정적인 기분이 많은 경우도 있음.

- 부모간의 싸움을 영아가 목격하고 부모의 불화를 인지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뀐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가정 분위기가 우울하다든지, 동생의 태어남으로 동생에게 양육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든지 하는 특정한 문제로 영아가 우울한 정서를 유지하는 경우도 나타남.

나. 지도 방법

개별 영아의 기질 이해하기

- 「아동발달」 등의 이론서를 바탕으로 영아의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 기질적 요인으로 인해 영아의 기분이 늘 가라앉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가장 힘든 사람은 영아 본인임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개별 영아의 기질 수용하기

- 기질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타고난 것이므로 교사가 이를 바꾸려 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영아를 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영아의 기분을 읽어 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휴식영역에 앉아 있다.
발문	교사는 "○○가 휴식영역에서 쉬고 싶구나!"라고 영아의 기분을 읽어 주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 개별 영아를 관찰하여 영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질 파악하기

영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영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휴식영역에 앉아 있다.
발문	교사는 영아 옆에 앉아서 "그래, 다시 놀이하고 싶으면 오렴. 선생님이 놀이를 도와줄게"라고 이야기 한다.

부모 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하기

-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영아의 우울한 분위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인지,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면담 진행하기
- 영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영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영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을 통해 원인을 인식하기
- 부모면담을 통해 교사와 부모가 원인을 찾는 가운데서 해결책도 함께 구상하기
- 교사는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견에 대한 전문적 조언, 견해를 첨가하기
-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찾기

부모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의 예	
상황	양육자가 교사에게 와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 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선생님 ○○가 집에서 내내 울음을 보여요. 밥을 먹자해도 울고 이를 닦자 해도 울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문	"○○가 우는 행동에 대해 감정을 읽어 주세요. 예를 들어 ○○야 이닦기가 싫구나! 이렇게 아무 것도 하기 싫고 짜증날 때도 있는 거래. 조금 쉬었다가 기분이 좀 나아지면 해볼까?"라구요. 그리고 대안으로 영아에게 선택권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칫솔이 여러 개 있어. 그 중에서 ○○가 마음에 드는 칫솔로 닦을 수 있는데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부모–영아 안정적 관계형성 유도하기

- 관찰 결과 영아의 기질이 우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면담 실시하기

- 영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영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영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가 문제라면 교사가 부모가 영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코칭하기

특별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기다리기

- 이사 등의 환경적인 변화가 문제라면 환경 변화에 영아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가 기다려 주기
- 동생이 양육자에게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생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하여 퇴행이 나타나며 울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는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영아에게 여러가지 영향을 줌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 보이기
-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영아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아와 1:1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08 아직 어려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경우

연령 : 만 1세
교사는 낮잠 시간이 끝나가자 커튼을 걷고 불을 켠다. 개별 영아들에게 다가가 “얘들아, 일어나자”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영아들이 하나 둘씩 낮잠 매트에서 일어난다. 교사는 “얘들아, 선생님이 낮잠 매트 정리할게. 조용한 놀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중 한 명의 영아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발버둥을 치며 울기 시작한다. 교사가 다가가 “○○가 왜 화가 났을까? 더 자고 싶니?”라고 묻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발버둥을 치며 화를 낸다. “○○가 더 자고 싶으면 누워 있어도 돼”라고 교사가 이야기해도 반응하지 않고 발버둥을 친다.

가. 원인 분석

신경학적 미성숙으로 인해 영아가 자신의 분노를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남.

- 목적이 좌절되거나 방해받았을 때 강한 분노로 나타남(이영 외, 2011).

- 행동화하고 난 후 관심을 받거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잘못 강화되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음.
- 주변어른의 행동 양식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큼(신혜영, 2013).

나. 지도 방법

- 영아가 신경학적으로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기
  - 언어, 인지, 사회, 신체영역의 신경학적 발달이 진행되는 것처럼 정서영역의 신경학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 신경학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이해하기
- 영아가 분노를 폭발할 때 영아의 옆에서 영아의 감정을 읽어 주며 감정이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리기
  - 영아가 표현하는 감정을 그대로 읽어 주기
  - 분노의 원인을 알면 그 내용을 반영해 읽어 주고 분노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현하는 감정 자체를 읽어 주기

감정 읽어 주기의 예	
상황	낮잠시간이 끝나 모든 영아가 일어났다. 해당 영아도 일어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발문	"○○가 더 자고 싶었구나! 기분이 좋지 않구나~ 선생님이 알겠어."하며 영아의 감정을 읽어 준다.

  - 분노폭발이 사그라질 때까지 영아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읽어 주며 옆에서 기다려 주면서 진정시키기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낮잠시간이 끝나 모든 영아가 일어났다. 해당 영아도 일어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발문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르면 "○○야, 선생님이 ○○가 발을 구르지 않을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이야기 한다. 영아의 발버둥과 바닥 구름이 잦아들면 "○○야, 선생님이 좀 안아줄까?"라고 이야기하며 영아를 안아 달래주면서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한하기

주변 환경 정리하기

- 영아가 분노에 대한 표현 중 발버둥을 치거나 바닥을 구를 때 주변의 사물, 비품에 영아의 신체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기

주변 정리하기의 예	
상황	놀잇감 다툼으로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른다.
발문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르면 "○○가 놀잇감을 갖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하지. 선생님이 그 마음을 알겠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라고 이야기 하며 주변의 사물을 치운다.

- 분노의 표현으로 가까이에 있는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주변 또래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가까이에 있는 또래가 물러서도록 하기의 예	
상황	놀잇감 다툼으로 영아가 발버둥을 치고 바닥을 구른다. 분노 폭발을 보이는 영아 옆에 또래가 다가가려고 한다.
발문	교사는 "△△야, ○○가 화가 많이 났어. 옆으로 지나가면 더 화를 낼 것 같아. △△는 끄적이기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모델링을 통해 상황별 정서에 대해 이름 붙이기, 변별하기, 정당화 해주기를 알려주기

- "속상했지" "서운하구나" "아주 흐뭇하구나" "짜증났나보네" "슬프구나" "화가 났나보네?" 와 같이 영아의 상황에 맞는 감정을 찾아 이름 붙여주기
- 행동의 원인을 찾아주어 그런 상황에서 해당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함을 인정해주기
- "친구가 장난감을 뺏으면 속이 상할 수 있어", "엄마가 가셔서 슬프지? 그런데 엄마는 약속한 시간이 되면 00를 만나러 오실거래", "친구가 나눠줘서 기분이 좋구나? 00가 웃으니까 선생님도 기분이 좋네!"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행동화하더라도 아동 요구가 관철되지 않도록 하여 이 방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 "00가 속이 상해서 눈물이 자꾸 나는구나. 그런데 00가 운다고 선생님이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 내용상 제한을 가해야하기 때문에 단호해야 하지만, 태도는 부드러워야 하고 신경질이나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기

09 선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

연령 : 만 0세
교사가 영아를 무릎에 안고 누르면 빛이 나는 놀잇감으로 함께 놀이하고 있다. 놀이집 앞의 다른 또래가 넘어지자 교사가 영아에게 "○○야, 잠깐만 △△한테 갔다올께"라고 일어서자 갑자기 울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한다. 교사는 넘어진 또래를 일으켜 세워 안아주고 나서 해당 영아에게 다가간다. 교사는 "○○야, 선생님이 친구가 아파해서 갔다 왔어. 이제 다시 안아줄 수 있는데... 안아줄까?"하고 영아의 어깨에 손을 대자 영아는 머리를 바닥에 박기 시작한다.

가. 원인 분석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남.

- 높은 민감성, 반응성과 낮은 규칙성 등을 나타냄.
- 분노의 표현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 충동 조절성이 낮을 가능성 있음.

부적 정서에 민감함.

- 어린이집 환경, 또래에게 불편함, 불만을 느끼기 쉬움.
- 불편함, 불만을 분노로 표현함.

가계의 특성이 있음.

- 부모면담을 통해 부모도 영아와 마찬가지로 분노폭발의 성향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해야함.
- 양육대상이 적절하게 감정을 읽어주고 달래주었던 경험이 부족한지 확인함.
- 부모는 성인이기 때문에 영아보다는 분노폭발의 빈도와 강도가 약하더라도 분노조절이 어려운 성향이라면 영아가 유전적으로 분노조절에 취약한데다가, 환경적으로도 분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성인 모델에 노출되어 있는 셈임. 이 경우 유전적 취약성과 환경적 위험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분노조절이 어려운 경우라 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까다로운 기질 이해하기

- 까다로운 영아는 전체 영아의 10% 정도로 나타남.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항상 각성되어 있어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반응함.

- 주위 환경에 민감하지만 자기주장이 강하여 스스로 일처리를 잘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호기심과 창의력이 높은 편임.
- 한 가지 일에 강한 집중력을 보이므로 주의를 적절히 전환해주고 하루 일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됨.
- 까다로운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충동 조절성이 낮은 영아의 예	
상황	미끄럼틀 계단 위를 오르던 영아는 갑자기 아래를 보더니 뛰어 내린다.
발문	영아가 미끄럼틀을 오르기 전에 안전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다. "○○야, 미끄럼틀은 계단으로 다니자. 계단 위에서 뛰어 내리면 다칠 수 있어."

민감성, 반응성이 높은 영아의 예	
상황	놀잇감을 가지고 가다가 지나가는 영아가 살짝 스쳤다. 스친 또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고 운다.
발문	교사는 "많이 아팠구나! 친구랑 스쳐서 아팠어. 살짝 스친 거라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대"라고 이야기 한다.

- 순한 기질의 영아보다 모든 부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놀잇감 선택, 공간 이동 등에 대해 다른 영아보다 미리 알려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 또래보다 민감하고 반응성이 큰 영아는 주변의 자극이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진정시키기

영아의 행동을 가계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 부모면담을 통해 영아의 기질이 가계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 영아의 분노폭발이 타고난 특성이므로 쉽게 조절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영아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감정을 행동화(acting out)하는 것은 제한하기

부모가 자신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도록 코칭하기

- 부모의 분노폭발 모습이 영아에게 모델링 효과를 가져다줌을 부모가 인식하도록 부모면담 진행하기
- 부모가 자녀의 분노폭발 모습을 관찰하고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서 연유했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기

- 부모 자신이 스스로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성격 검사(예를 들어, MBTI, 애니어그램 등)를 소개하기
- 성격유형검사, 원가족 경험을 통해 부모의 정서 상태를 알아보고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 부모 자신이 분노조절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스스로 조절해 볼 수 있도록 부모의 '일일분노저널'쓰기 제안하기

까다로운 아이에게 적합한 양육태도를 부모에게 알려주기

- 주변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접하게 하며 미리 계획 알려주기
- 양육자의 인내심과 침착함을 필요로 하기
- 영아의 감정을 받아주고 감정에 공감하기
- 영아가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
- 영아가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기

10 우연한 반복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위안 받고 싶은 욕구를 자위로 표출하는 경우

연령 : 만 0세 성별 : 여
낮잠을 자던 영아가 눈을 뜬다. 심심한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가 다리를 만져본다. 영아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꼬아 올린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는 양 손으로 기저귀를 만지기 시작한다. 다리에 힘을 준채 계속 양 손으로 기저귀를 만진다. 교사가 그 모습 보고 "○○야, 잘 잤니? 우리 일어날까?"하고 말한다. 영아는 교사를 쳐다보고 웃는다. 교사가 영아를 안아 놀이 공간으로 이동한다. 놀이 공간 매트 위에 영아를 앉히고 영아가 평소에 좋아하던 딸랑이를 손에 쥐어준다. 영아는 딸랑이를 흔들어 보더니 다시 매트 위에 누워 다리를 꼬아 올린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기저귀를 계속 만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날도 낮잠 자기 전과 낮잠 자고 일어나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

연령 : 1세 성별 : 여
교사가 영아의 손을 함께 잡고 커다란 종이가 붙여져 있는 바닥에 앉는다. 교사가 영아에게 "크레용으로 끄적여 볼까?"하며 활동을 제안한다. 영아는 크레용 상자에서 파란색 크레용을 들고 종이에 끄적여 본다. 교사는 영아가 끄적이기를 시작한 모습을 살펴보더니 다른 영아들이 놀이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영아는 이동하는 교사를 보고는 우는 소리를 내며 따라간다. 영아는 교사의 다리에 매달린다. 교사가 "○○가 선생님이랑 함께 있고 싶었구나!"라고 말하며 영아를 안아 올린다. 영아는

우는 소리를 멈추고 교사의 가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다. 빨간 자동차를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다른 영아의 모습을 보고 교사가 "얘들아, 여기에도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라고 말하며 안고 있던 해당 영아를 바닥에 내려 놓고 다투는 영아들에게 간다. 영아는 교사를 보며 "이잉"울음을 보이더니 교구장 모서리에 성기를 문지르기 시작한다. 교사가 다시 영아에게 오자 성기 문지르기를 멈추고 교사에게 다시 안아 달라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영아들은 보통 15~19개월 때 자위를 시작하며, 이 시기에 자위를 하는 것은 성기 부위를 자극하면서 오는 쾌감과 자신의 몸을 탐구하는 욕구의 결합 때문임.
- 혼자 있거나 무료할 때 자신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자위를 하게 됨(이영, 2011).
- 우연한 기회에 성기의 자극으로 쾌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됨(이순례 등, 2001).
- 적절한 행위를 구별 못할 경우에 행하게 됨(이순례 등, 2001)
- 호기심과 탐색을 좋아하는 유아의 습성 때문에 행하게 됨(교육부, 1997).

나. 지도 방법

- 자위나 성 관련 문제는 각 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지도법이 있다기보다는 각 유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통의 지도법을 제시하기
- 자위로 인한 쾌감을 넘어서는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
  - 영아를 관찰하여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파악하여 영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놀이 활동 제공하기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 활동 제공의 예	
상황	영아가 바닥에 누워 손을 바지 속에서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다.
발문	교사는 영아가 평소에 선호하는 촉감공을 꺼내 든다. 교사는 "○○야, 여기 공이 있네. 선생님이 ○○에게 공을 굴려 볼께. ○○가 선생님한테 다시 공을 주렴"라고 이야기한다. 영아는 몸을 일으키고 공을 쳐다본다. 공이 굴러 오자 영아는 바지에서 손을 빼고 공을 잡는다.

- 발달수준을 파악하고 영아의 발달수준에서 쉽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영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제공의 예	
상황	영아가 역할영역에서 한 손은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강아지 인형을 만지고 있다.
발문	교사는 "선생님은 침대를 만들어서 강아지를 재워줘야지!"라며 옆에서 병행놀이를 시작한다. 해당 남아가 교사의 구성물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교사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래? 자, 우리 침대를 만들어보자."라고 상호작용한다. 영아는 구성을 하기 위해 바지 속에 넣었던 손을 뺀다. 완성 후 교사는 "와, 강아지를 토닥토닥 재워줘야지. ○○가 도와 주니까 금새 만들 수 있었네~"라며 영아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아의 지루함 덜어줌.

- 낮잠 자기 전,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아는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자위를 나타내는 영아 옆에서 토닥여 주거나 두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마사지를 해 주는 등 교사가 함께 시간 보내 주기

함께 시간 보내기의 예	
상황	영아가 낮잠시간이 되어 매트에 눕는다. 베개 위에 엎드려 눕더니 베개에 몸을 문지르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영아의 매트 옆에 앉아 "○○야, 선생님이 토닥토닥해 줄게. 똑바로 누워 보자."라며 베개를 제자리에 놓고 영아를 똑 바로 눕힌다. 교사는 영아의 가슴을 손으로 가볍게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준다. 영아가 잠들 때까지 계속 옆에 앉아서 토닥인다.

- 일상생활 활동 진행시 책보기, 감각·탐색활동 등 조용한 놀이를 함께 제시하여 영아가 개별적으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나머지 영아는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기다리는 시간 줄이기의 예	
상황	여러 명의 영아가 동시에 밥 먹기를 끝내 이 닦기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벽면 모서리에 성기를 비비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그 중 한 명의 영아는 이를 닦도록 돕고 나머지 영아에게는 "입에 음식물이 묻었네. 선생님이 닦아줄게. 물티슈를 닦고 우리 책보기 할까?"라고 이야기하며 영아가 책보기, 감각·탐색 놀이 등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가 성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보 제공하기

- 0~1세 영아는 정해진 장소에서 기저귀 갈이하기, 개별 영아의 신체 부위 노출을 최소화하기.

- 2세 영아는 나와 다른 성에 대한 그림책 보기,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것 알도록 돕기

다. 유의사항

- 자녀가 자위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면 부모는 당황하게 되어 자녀에게 위협을 하거나 처벌을 해서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함.

-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위협과 처벌은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오히려 지나친 위협과 처벌은 영아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자꾸 하는 나쁜애'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로인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자위에 몰두하게 할 수도 있음.
  - 성이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은연중에 부모에게 방치되고 있거나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영아들에게서 보다 빈번히 자위행위가 관찰됨.
  - 이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부모와 가정에 관한 부분임.

- 지나치게 자위에 탐닉하는 영아가 있다면 혹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서운 부모,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아 늘 영아를 평가 절하하는 부모, 너무 바빠 자녀에게 깊이 관심보이기 어려운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부모–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면, 교사는 부모에게 영아의 자위는 성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며 보다 관심 받고 애정 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그럽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영아가 부모와 보다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해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유아편〉

11 이전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경우

연령 : 만 3세
부모와의 입소 전 상담을 통해 해당 유아가 현 어린이집에 오기 전 만 2세 때, 한 달 동안 다른 어린이집에 다녀본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유아가 이전 어린이집에서 적응 기간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특별히 거부하지 않다가 최초 등원 2~3주 후 갑자기 등원시 심하게 울음을 보이며 집에서도 불안정 행동을 보였다고 전달하였다. 부모는 이전 어린이집 교사가 급간식을 매번 다 먹도록 강요하고 영아반인데도 집단 활동을 진행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다. 부모가 원인을 파악한 후에 곧장 이전 기관을 퇴소하였고 1년 동안 가정에서 할머니와 지낸 후 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다. 유아는 현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부터 부모와의 분리시 심한 울음을 보이며 이후 일과 생활도 힘들어 한다.

가. 원인 분석

- 이전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어린이집을 옮겨서 현재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시도하는 경우, 이전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아는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어린이집에 대한 거부와 양육자와의 분리불안으로 나타냄.

- 이전 어린이집에서 적응하지 못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 교사와 기질적으로 조화되지 않음.
  -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함.
  - 어린이집 하루일과에서 부정적인 경험함.
  - 어린이집 프로그램에서 부정적인 경험함.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특성 이해하기
  - 영아의 민감성, 반응성, 활동성, 규칙성 등 기질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입소 전 면담과

관찰을 통해 이해하기
- 영아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에 적합한 접근 시도하기
- 이전 기관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동했으므로 현재 어린이집 적응에 이전 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인식하기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 요인 점검하기

- 양육자와의 입소 전 면담을 통해 이전 기관의 하루일과, 프로그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양육자가 유추하는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기
- 이전 기관에서 유아가 힘들어했던 요인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기관의 대처 등을 파악하기
- 양육자와의 입소 전 면담을 통해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판단하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부정적 경험이 될 만한 위험요인을 찾아 대책 마련해 보기
- 이전 어린이집에서 이유식, 급·간식 먹기와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유아에게는 분리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먹기와 관련된 활동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유아의 욕구를 최대한 배려하기

유아에게 일관성 있고 수용적인 태도 유지하기

- 유아의 동일한 행동에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유아 행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 상호작용 지침 마련하기
- 예를 들어, 급·간식을 거부하는 경우, 한번 맛보도록 권유하지만 권유를 거부할 때는 정리한다라는 기준을 정하면 급·간식 지도를 할 때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적용하기

일관성 있는 태도 유지의 예	
상황	오전 간식 시간이다. 오전 간식으로 제시된 시금치 죽을 교사가 먹어보자고 하자 유아는 머리를 절래절래 흔든다. 교사가 한번만 맛을 보자고 하자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야, 시금치 죽을 먹기 싫구나! 그래도 맛은 한번 봐야하는 거래. 한번만 맛을 보면 어떨까? 시금치 죽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않니?" 라고 말한다.

- 유아의 행동에 대한 수용 범위를 점검하고 유아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수용 범위 결정하기

수용적인 태도 유지의 예	
상황	오전 간식 시간이다. 오전 간식으로 제시된 시금치 죽을 교사가 먹어보자고 하자 유아는 머리를 절래절래 흔든다. 교사가 한번만 맛을 보자고 하자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유아는 교사가 한번 맛을 보자는 제안에도 계속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며 울음을 보인다. 교사는 "그래, 맛보기가 싫구나! 알았어. ○○가 맛보고 싶을 때 먹어보자. 조금 있다가 맛보고 싶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렴."이라고 말한다.

양육자가 양육자–유아 분리 시 나타낼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하기

- 「적응프로그램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양육자가 유아와의 분리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 양육자-유아 분리 시 나타날 수 있는 유아의 부정적 행동과 표현 즉 울음, 떼쓰기, 양육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먹는 것 거부, 자다가 깨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육자의 이해 구하기

양육자가 퇴소 결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하기

- 재퇴소시 유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즉, 앞으로 더욱 어린이집 적응이 어려워짐, 분리불안의 심화 등을 설명하기
- 이전 기관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양육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자는 새로 만난 교사에게 신뢰감을 보이기보다는 탐색의 자세로 살펴본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기
- 어린이집과 교사는 유아의 이전 경험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나 적응기간 동안 유아가 부정적인 표현,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양육자에게 재설명하고 어린이집 및 교사에 대해 양육자가 신뢰하고 유아의 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기
- 양육자의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신뢰감은 유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와 유아 적응을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와 같은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혹은 더 심해진다면 전문가를 찾아볼 것을 고려해야 됨.

등원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신체증상이 나타나며(복통이나 두통의 호소 등), 부모와의 분리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이와 관련한 악몽을 꾸며, 부모에게 안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하고, 부모가 없으면 잠을 자지 않으려하고, 계속 부모와 함께 있으려 하는 등의 행동이 지속되는지 점검해야 됨.

12 울어서 얻고 싶은 것을 해결하는 경우

연령 : 만 3세
보육실에서 다른 또래들이 구성해 놓은 블록 집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다. 또래들이 "선생님, ○○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을 발로 찼어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유아에게 다가가 "○○야, ○○가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집을 발로 차서 무너뜨렸니?"라고 이야기 하자 갑자기 "엄마, 엄마"라고 울음을 보인다. 교사가 "○○야, 엄마 보고 싶니?"라고 묻자 "응"하며 계속 울음을 보인다. 교사가 "그런데 ○○가 왜 친구들의 블록을 무너뜨렸을까?"라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엄마가 보고 싶다구"라고 소리 지르며 울음을 보인다. 교사는 더 이상 블록과 관련된 갈등을 이야기 하지 못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가 우연히 문제상황에서 울음을 보이자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우는 행동이 강화됨.
-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문제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얻고 싶은 결과를 획득하고자 함.
- 언어발달이 늦거나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딘 경우에도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울음을 선택하기도 함.
- 감정면에서 자립이 다소 늦기 때문에 도피 목적으로 울음을 이용하기도 함. 잘못했을 때 울면 용서받을 수 있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관심을 끌기 위한 울음은 무시하고, 울지 않을 때 칭찬해주기
  - 처음 자신의 울음이 무시되면 평소보다 더 크고 오래 울지도 모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
  - 유아가 울음을 그치는 즉시 유아에게 가서 관심을 보이고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기

울어도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도록 하기

- 유아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어보기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기의 예	
상황	또래들의 블록 구성물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 다음 울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교사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자 대답하지 않고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야, 선생님은 ○○가 친구들이 만든 집을 왜 발로 찾는지 물어 보았어. 그런데 ○○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하니까 선생님이 ○○ 마음을 잘 모르잖아. 울지 말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 해주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다.

-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유아에게 울어도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여 우는 행동을 포기하게 하기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하기의 예	
상황	또래들의 블록 구성물을 발로 차서 무너뜨린 다음 울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교사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자 대답하지 않고 "엄마, 엄마"하며 울음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단호한 태도로 "○○야, ○○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왜 ○○가 블록을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속상한 친구들에게 ○○가 어떻게 해야할 지 결정할 수 있단다. 계속 울고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 우는 행동을 보일 때 교사는 유아의 옆에서 유아의 우는 행동을 그대로 읽어 주되 울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온화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유아의 행동 그대로 읽어 주기의 예	
상황	또래가 가진 놀잇감을 갖고 싶자 또래를 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 울고 있네. ○○가 울음을 그치고 이야기 해 주면 왜 우는지 알 수 있을 텐데...계속 우는구나!"라고 이야기한다.

- 이 때, 유아를 혼자 두지 않고 교사가 계속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상호작용해주기
- 유아의 우는 이유를 교사가 알 수 있더라도 유아가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언급하지 않기
- 유아의 우는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여 울기를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유아의 우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 유아에게 우는 행동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음을 알려 주나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해 둔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아가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어 유아에게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유아 옆에서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또래가 가진 놀잇감을 갖고 싶자 또래를 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 ○○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 ○○가 왜 울고 있는지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 줘. 선생님은 계속 옆에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한다.

울음을 그치고 대안을 찾도록 하기

- 유아가 울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울음을 그치면 '울음을 그침'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지 말고 격려해주기

'울음 그침'을 격려하기의 예	
상황	급간식 시간에 시금치가 나오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그대로 읽어 주며 옆에서 기다려 준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유아는 울음을 멈춘다.
발문	교사는 "○○가 울음을 멈추었네. 힘들었을 텐데 울음을 뚝! 그쳤구나!"라며 손으로 토닥여 준다.

- 유아가 원하는 것, 해결하고 싶은 문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울음 외의 대안을 찾아 그 중에서 유아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대안 찾기의 예	
상황	급식 시간에 시금치가 나오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을 그대로 읽어 주며 옆에서 기다려 준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유아는 울음을 멈춘다.
발문	"○○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났어? 아, 시금치가 먹기 싫었구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반찬부터 먹어 볼까? 어떤 반찬이 맛있어 보여? ○○가 좋아하는 반찬을 밥에 올려볼까?"

가정에서도 언제 우는지, 울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등을 관찰하도록 하기

- 아이가 조용히 요구할 때는 모른 척 하다 울고 때를 써야 관심을 주지는 않는지, 아이가 울면 부모가 져주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고 부모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함.

- 언어발달이 늦거나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딘 경우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자기방어, 도피 방법으로 울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울음은 자신감이 없고 자기표현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아가 속상함을 말로 표현하도로 가르치고 적절한 자기방어도 할 수 있게 도와줌.

13 잘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연령 : 만 5세
미술영역에 점토와 여러가지 재료로 자신의 얼굴을 꾸미기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유아는 점토를 들고 미술영역에 앉아 다른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교사가 "○○도 점토로 얼굴을 꾸며 볼까?"라고 제안하자 "나는 못하는데... 내가 하면 이상한데... 선생님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스스로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 하자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라며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교사가 함께 하면서 격려하여 완성을 한다. 또래에 비해 기술이 부족해 완성도가 낮긴 하다. 유아는 완성한 작품을 보며 "내가 한 것은 이상해"라고 표현한다.

가. 원인 분석

- 수줍음은 자신감 부족, 개인적인 부족감,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기인될 수 있음(정지선, 1991).

- 유아기에 들어서면 자르기, 오리기, 찢기, 붙이기, 묶기, 벗기 등 다양한 기술과 표현하기, 분류하기, 범주화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기도 함.

- 위와 같은 사례의 유아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의 발달이 비슷한 또래의 유아보다 더디거나 낮아서 활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임.

-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평가될까, 행여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수줍어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더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수줍음으로 나타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수준 조절하기

- 관찰을 통해 정확한 유아의 발달수준을 파악하기
-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유아가 비슷한 또래의 평균 발달수준에서 나타내는 기술과 능력보다 더디거나 낮아서 동일 학급에서 하나의 수준으로 제시된 활동에서는 성공적인 경험을 갖기 어려움을 인식하기
- 동일한 활동을 제시하더라도 활동 재료, 활동 방법을 수준차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기
- 수준차를 고려하여 동일 학급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가령, 「자동차 모양으로 상자 꾸미기」 활동을 제시할 때 자동차를 직접 가위로 모양대로 잘라 붙이도록 준비한 재료 이외에 자동차 모양으로 미리 잘라져 붙일 수 있는 종이, 접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 모양의 스팽글, 자동차 모양 스탬프 등을 준비해 놓아 유아가 스스로의 기술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수준차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 개발의 예	
상황	교사는 공을 골대에 넣기 활동을 제안한다. 발로 차서 넣어 보아도 되고 손으로 공을 던져서 넣어 보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유아는 "나는 못해요"라고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공을 한번 골대에 넣어 볼까? ○○가 원하는 방법으로 골대에 공을 넣을 수 있어. 발로 차도되고 손으로 던져 넣어도 된단다.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한다.

- 유아가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갖는 것은 이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접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낮은 수준 활동에서 점차 높은 수준 활동으로 확장시키도록 돕기

낮은 수준 활동에서 높은 수준 활동으로 실행의 예	
상황	교사는 공을 골대에 넣기 활동을 제안한다. 발로 차서 넣어 보아도 되고 손으로 공을 던져서 넣어 보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유아는 "나는 못해요"라고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공을 손으로 잡아서 던져볼까? 선생님과 함께 던져보자."라며 제안한다. 유아가 손으로 골대에 공을 던져 넣는 것이 익숙해지면 "와, 잘 던진다. 그럼. 이번에는 발로 차서 넣어볼까?"라고 격려하며 높은 수준 활동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경험과 자극 제공하기

- 교사는 개별 유아를 잘 관찰하여 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촉진될 필요가 있는 기술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 제공하기
-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한 「다양한 경험 및 자극을 유아에게 제공하기」개입에 대하여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가정에서도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가정과의 연계 예	
상황	유아가 스스로 신발신기를 시도해 보지 않아서 실외놀이터나 산책을 나갈 때 늘 교사의 도움을 기다린다. 또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넌 왜 혼자 신발을 못 신어? 아가 같아"라고 이야기 하고 유아는 속상해한다.
발문	교사는 등하원 시간에 양육자에게 "○○ 어머님! ○○가 혼자 신발을 신지 못한다고 또래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해요. 신발 신기가 잘 안되어 자신감을 잃으니 다른 활동도 스스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어린이집에서 ○○에게 스스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사가 도와주면 시도해 보려구해요. 가정에서도 ○○가 스스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 한다.

14 주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

연령 : 4세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언어 영역에서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친구를 보며 "너는 잘해서 좋겠다. 나도 잘 하고 싶은데..."라고 이야기한다. 교사가 "○○도 ○○가 생각한대로 그리거나 써보면 돼요"라고 제안하자 "난 못해요"라고 대답한다. 교사가 "이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가 생각한대로 표현하면 돼"라고 하자 "우리 엄마가 글씨 못 쓴다고 소리 질렀어요. 난 잘 못써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의 격려에 힘입어 유아가 글씨를 쓰는데 또래에 비해 또박또박 예쁘게 잘 쓴다. 교사가 하원 시간에 ○○의 어머니를 만나 언어 영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가 글씨를 모르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요즘 집에서 좀 야단치며 가르쳤더니 그렇군요"라고 답변한다.

가. 원인 분석

- 대인간의 평가와 관련이 있어 양육자를 비롯한 주위 어른이나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는 유아를 수줍게 만들거나 위축시킬 수 있음.

-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유아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떨어뜨려 지나친 수줍음을 초래할 수 있음.
  -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비난적 태도를 보이고 부정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경우나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의 수줍음 정도가 높음(김영숙, 윤여홍, 2009; 박현정, 2013).

- 유아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양육자 중 일부는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양육자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형성할 수 없는 유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음.

- 양육자는 대부분 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영유아의 외모, 기술, 능력, 태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유아에게 표현함.

나. 지도 방법

- 유아 개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 격려하기
  - 유아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개별 유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보기
  - 유아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기술, 태도 등을 찾아 격려하기

구체적으로 격려하기의 예	
상황	유아는 또래가 넘어져 울고 있자 수줍게 다가가 또래를 일으켜 세우고 "울지마"라고 이야기 한다.
발문	"○○가 넘어진 친구를 얼른 일으켜 세워주는구나! 친구를 달려주기도 하네. 친구가 많이 고마워하겠다. ○○는 힘든 친구를 정말 잘 도와주는 어린이구나!"

- 양육자에게 유아의 장점 알리기
  - 교사가 세심한 관찰을 통해 파악한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부모에게 소개하기의 예	
상황	하원시간에 교사가 양육자와 만나 유아의 하루 지낸 이야기를 전달한다.
발문	교사는 "○○가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잘 도와줍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위로하기도 하고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서 공감해 주기도 합니다."라며 유아의 장점을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 교사가 발견한 유아의 장점과 자원이 유아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기
- 가정에서도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양육자의 관찰을 통해 찾도록 이야기나누기
- 매일 등·하원 시간에 양육자가 관찰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관찰 내용 중에 유아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부모 코칭하기

유아의 장점과 자원을 가정에서 양육자가 찾도록 돕기의 예	
상황	교사가 등·하원 시간에 양육자를 만나 유아에 대해 비정기적 면담을 나눈다.
발문	교사는 "가정에서도 ○○가 동생이나 부모님을 돕거나 감정을 공감해 주는 모습이 관찰되나요? 아직 보시지 못했다면 귀가 후 가정에서 생활할 때 살펴봐 주세요. ○○의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

양육자에게 연령에 적합한 발달정보 제공하기

- 가정과 연계하여서는 양육자가 유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유아 행동과 태도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갖도록 하기
- 양육자가 유아발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유아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경우, 교사는 유아 연령에 적합한 발달정보를 가정 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공하기
- 양육자가 면담을 통해 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례를 교사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교사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발달이 해당 연령에서 적절함을 이야기 해 주어 양육자가 유아에 대해 적절한 기대수준을 갖도록 하기

양육자의 스트레스 해결하기

- 교사는 부모면담을 통해 양육자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들어 주어 양육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 교사의 조력으로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육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해 보기

15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에 너무 부끄러운 경우

연령 : 만 3세
등원하는 길에 유아와 유아 어머님이 다른 반 교사를 만난다. 교사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 ○○야"라고 인사하자 유아의 어머니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유아는 그 옆에서 손을 입에 넣고 자신의 치마를 손 끝에 말아 쥐고 뱅뱅 돌린다. 유아의 어머니가 "○○야, △△반 선생님이시네. 인사드려야지"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치마 끝을 뱅뱅 돌린다. 유아의 어머니가 계속 인사하라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눈물을 보인다. 교사가 "인사하기가 힘들구나! 다음에 인사해 줄래?"하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가. 원인 분석

- 수줍음의 원인은 주로 성격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격이 유전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수줍음 또한 선천적으로 타고나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영유아는 외부적인 자극에 또래보다 민감함(정일호, 1990에서 재인용).

- 이런 유아는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수줍어하여 자기표현이 적으며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볼 때 성격이나 기질에서 오는 수줍음으로 진단할 수 있음.

- 가정에서는 다른 또래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기관이나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거나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표현하는 경우, 이 반대의 경우에도 선택적 함구증을 의심해볼 수도 있음.
  - 언어발달 시작시기의 충격적 경험(형제출생, 가족의 죽음, 엄마와의 분리), 언어능력이 늦게 발달하여 놀림받을 것에 대한 대처방안, 발달초기에 나타나는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이 고착 또는 퇴행된 것이 원인이 되거나 강박장애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동의 불안과 부모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기도 함.
  - 선택증 함구증을 보이는 유아는 이중적인 특성을 드러내는데 가정 내에서는 부정적, 적대적이고 고집이 세고 조종하려는 반면 낯설거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수줍어하고 예민하며, 공포감에 경직되는 특성들이 많이 관찰됨(염숙경, 2002).

나. 지도 방법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타고난 수줍음을 수용하기의 예	
상황	6~7명의 유아들이 모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모두 돌아가면서 주제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해당 유아의 차례가 되었다. 해당 유아는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몸을 뒤튼다. 다른 유아들이 "야, 빨리 이야기해봐." "야, 우리 기다리잖아. 빨리 이야기해"라고 말한다
발문	교사는 "○○도 이야기 해 볼래?"하자 유아는 계속 어색한 미소를 띄운다. 교사는 "지금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힘드니?"라고 묻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선생님한테 살짝 이야기 해 줄 수 있어?"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얘들아, ○○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이 드나봐. 그런데 선생님한테 따로 이야기 할 수는 있데. 선생님이 ○○이야기 듣고 나중 놀이 평가시간에 이야기 전할게"라고 말한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나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 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하지만 교사의 제안을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하기

새로운 활동 제안하기의 예	
상황	교사가 새로운 조작 놀잇감을 수조작영역에 배치하고 놀이 계획 시간에 소개한다.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시작되자 2~3명의 또래가 새로 배치된 조작 놀잇감을 꺼내 놀이한다. 유아는 다른 유아들이 새로운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손가락을 물고 쳐다보고 있다.
발문	"○○야, ○○도 새로운 조작 놀잇감으로 놀이해 볼래? 선생님과 같이 해 보자"

- 지나치게 수줍어서 새로운 활동을 매번 시도하지 않는다면 유아는 적절한 경험과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인식하고 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기
- 유아에게 교사는 '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기
- 교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음을 제안 전에 미리 알리기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의 예	
상황	교사가 새로운 조작 놀잇감을 수조작영역에 배치하고 놀이계획시간에 소개한다.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시작되자 2~3명의 또래가 새로 배치된 조작 놀잇감을 꺼내 놀이한다. 유아는 다른 유아들이 새로운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손가락을 물고 쳐다보고 있다.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의 예	
발문	교사는 새로운 놀이를 하도록 "○○도 새로운 놀잇감을 해 볼까?" 라고 제안하고 "○○가 놀이해 보고 싶으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고 ○○가 지금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가 원할 때 놀이하렴"이라고 표현하여 교사의 제안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때는 구체적인 격려를 통해 강화하기

-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아 평소에 새로운 활동 접근이 힘든 영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을 때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를 격려함으로써 영유아의 시도를 강화하기
- 새로운 활동의 강화는 이후에 영유아가 다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원동력이 됨을 이해하기

새로운 활동 시도 격려의 예	
상황	또래들이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몇 일째 살펴보던 유아가 새로운 놀잇감에 다가가 살며시 만져보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유아가 놀잇감을 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가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구나! 둘이서 같이 하는 게임이네. 선생님이랑 같이할까? 와, ○○의 말이 선생님말보다 앞서 가네~"라고 이야기 한다.

선택적 함구증에 대해서는 벌을 주거나 말하도록 해 보상을 주는 것은 불안정을 유발해 오히려 침묵을 유지시키도록 함(염숙경, 2002).

- 성인과의 비언어적 활동을 격려함.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사나 부모는 아동에게 정상적으로 말해야 한다.
- 말할 기회를 주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사나 부모는 정상적으로 유아에게 말함.
- 교사와 유아 간에 애착이 성립되면 교사는 조심스럽게 아동이 사적으로 말하도록 격려함. 처음에는 한 단어의 답으로 충분하고 교사가 말하도록 재촉하지 않아야 하고 아동이 불안해하면 비언어적 활동을 계속함.

16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경우

연령 : 만 4세
블록영역에서 4~5명의 유아가 함께 우리 동네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한 유아가 교사에게 다가와서 "친구들이 저 보고 놀려요."라며 울음을 터뜨린다. 교사가 유아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막 웃었니?"라고 묻자 "우리는 그냥 웃었는데...○○보고 웃은 거 아닌데요"라고 대답한다. 해당 유아는 "아니야, 너희들이 나 보고 놀리면서 웃었잖아"라고 소리친다. 교사는 다른 유아들을 놀이영역으로 보내고 해당 유아와 이야기 나눈다. "○○는 친구들이 웃는 것이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그런데 친구들은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데"라고 교사가 이야기하자 "아니예요. 놀리려고 한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구. 그 전에도 그랬어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는 "그래, ○○가 많이 속상했구나!"라고 이야기 한다. 하원 시에 부모에게 관찰했던 상황을 이야기하자 부모는 ○○가 동네 놀이터에서 나이 많은 형들에게 놀림을 당한 다음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 특정한 사건 특히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부정적인 경험이 영유아를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게 만들어 결국 과도한 수줍음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영유아가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시도한 일이 실패하여 좌절감을 맛보았거나 반복되는 실패 상황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경우, 굉장히 무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경우 뒤에는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에 닥치면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어 과도하게 수줍어할 수 있음.

- 유아는 형들에게 놀림을 당한 후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주눅이 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울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 특정 사건이 영유아의 수줍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유아에게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이전 성장 과정에서의 특정 사건이나 트라우마 파악하기
  - 유아가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활동을 회피하거나 시도하지 않으려 하는지 지나치게 자신감 없어 하는지를 관찰하기

-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여 교사가 관찰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유아의 성장기에 있었는지 알아보기
- 유아의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 부모와 함께 분석하고 공유하기

유아에게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도록 배려하기

- 유아에게 지나친 수줍음을 야기 시킨 사건에서 유아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도록 교사가 세심하게 활동을 조절하고 개입하기
- 또래가 놀리는 경험이 있어 다른 또래들이 함께 웃고만 있어도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는 유아가 있다면, 또래의 웃음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에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놀이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 유아가 관련된 사건에서 경험한 성공적인 경험을 반복하여 경험하여 자신의 인식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돕기

관련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갖도록 적절한 개입하기의 예	
상황	교사는 또래들이 웃는 것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는 유아에게 블록으로 함께 집을 구성하고 완성된 즐거움을 함께 느끼도록 개입한다.
발문	"○○야, 친구들이랑 함께 집을 다 만들고 나니 너무 즐겁구나. ○○가 웃고 있네. ○○는 왜 웃고 있니? △△도 웃고 있네? ○○야, △△는 왜 웃고 있을까? 그래, △△도 집을 다 만들어서 즐거워서 웃고 있구나!"

17 강박 성향을 가진 경우

연령 : 만 4세

미술 영역에서 유아가 색종이를 꺼내든다. 종이 접기 전개도를 쳐다보다니 "나는 이 꽃 접을 거야" 라고 이야기 한다. 사각 색종이의 꼭지점을 맞추려고 한다. 잘 되지 않자 다시 해 본다. "끝이 꼭 맞지 않네" 라며 다시 시도한다. 한참을 참을 동안 꼭지점을 맞추려고 하면서 종이접기를 시작하지 못한다. 교사가 "○○야, 끝이 맞는 것 같은데. 반으로 접어보렴"이라고 이야기 하자 "아니예요. 꼭 맞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한다. 시간이 더 흘러도 종이접기를 하지 못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부모 등의 양육자가 강박 행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아에게도 강박적 특성이 보일 수 있음.
  - 부모가 지나치게 꼼꼼하거나 깨끗함을 많이 강조하는 등의 강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유아에게 그 영향이 미쳐 유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양육자의 지나치게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양육태도도 원인이 됨.

- 규칙에 맞게 배열하기, 대칭 맞추기, 의례(ritual)나 의식을 지나치게 준수하려 하기(예: 점심 먹기나 낮잠 자기 전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하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매우 불안해하고 순서의 처음부터 다시 하고자 해 이로 인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 순서 지키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강박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손이 깨끗한데도 자주 손을 씻거나 옷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으면 갈아입으려고 하며 물과 흙을 가지고 놀이해야 하는 바깥놀이를 하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부모 성향 확인하기
  - 강박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부모에 대해 등하원시 부모 행동을 관찰하거나 부모면담을 통해 강박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성향을 살펴보기
  - 교사회의를 통해 관찰된 부모 성향을 원장, 선임교사와 함께 논의하여, 유아의 강박 행동이 부모로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난 행동임을 확인하기
  - 부모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융통성이 없거나, 통제적인 양육방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 이런 특성이 유아의 강박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알리기

- 가정과의 협력으로 유아 강박적 행동 완화시키기
  - 유아가 지나치게 더러움을 참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아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안에서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김태훈, 2013).

- 집안의 규칙을 줄이고 단순화하는 것이 좋으며 융통성을 가지고 유아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함(김태훈, 2013).
- 부모가 유아의 집착을 억지로 꺽으려고 하지 말고 유아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해야 함. “옷에 먼지가 묻어도 괜찮아. 털면 되잖아”,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아.”라고 안심을 시켜줌(김태훈, 2013).

유아의 개인적 기질 수용하기

- 유아의 강박적 행동이 부모로부터 전해진 것임을 이해하기
- 관찰, 면담, 교사회의를 통해 부모의 강박 관련 성향이 확인된 강박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기질적으로 강박적 성향을 타고 났음을 이해하기
- 기질적으로 강박 성향을 타고 났으므로 바꾸려 할 때 오히려 행동이 강화됨을 인식하고 유아의 강박 행동을 수용하기

유아의 강박 행동 수용하기의 예	
상황	유아가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꼭지점을 꼭 맞추려고 계속 활동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발문	교사는 “○○야, 색종이 끝이 꼭 맞게 접고 싶구나!. 선생님이 도와 줄까?.”라며 활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 특정 상황에 유일한 해결책(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음을 알도록 설명해주기

강박증은 어른이 된 후에도 치료가 힘들지만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바로 잡아주면 쉽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김태훈, 2013) 부모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의 강박 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임.

유아 강박증은 취학 전이나 학령기 초기의 유아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김태훈, 2013).

- 이는 정상발달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현상이므로 교사나 부모의 관찰을 통해 호전 정도를 살펴봄.

18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

연령 : 만 4세
교사는 놀이 평가 시간이 끝나자 유아들에게 “이제 화장실 들렀다가 실외 놀이터 갈 거예요. 화장실 다녀와서 문 앞에 줄서 보자”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들 중 한 명이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는 “그래? 그럼, 줄을 서 보자”라고 이야기한다. 유아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해당 유아가 “선생님 재는 화장실 다녀오지도 않고 줄을 서요”라고 말한다. 교사가 “응. 화장실 가고 싶지 않데. 그래서 줄을 선거야”라고 대답한다. 해당 유아는 그래도 화를 내며 “야, 왜 화장실 다녀오지 않고 줄을 서냐구. 화장실 다녀와야 줄을 설 수 있다구”라고 말한다. 교사가 다시 한번 왜 그런지 설명을 해도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을 다녀와야 줄을 설 수 있다구요”라고 이야기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가 원하는 대로 특정한 상황이 통제 되지 않아 유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됨.

- 그 불안감을 주변환경을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통제하거나 자기자신의 행동을 일정 방향대로 통제하여 억제하려고 함.

나. 지도 방법

- 유아에게 불안을 상승시키는 요인 확인하기
  - 일상생활과 놀이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강박 행동 사례를 관찰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 1회성 행동이 아닌 여러 번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 관찰 기록을 근거로 유아의 강박 행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공통점을 찾아보기
  - 공통점을 분석하여 유아에게 불안을 상승시키는 요인 찾기

- 유아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 확인한 유아의 불안요인이 어린이집 일과 중과 가정에서의 생활 중에 나타나는 경우 찾아보기

- 최대한 어린이집 일과 중과 가정에서의 생활 중에 유아의 불안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횟수를 없애거나 줄이기
- 어린이집 규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 실행 전에 미리 언급하기 등을 통해 불안요인 제거하기
- 실외놀이 나가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와 줄서기가 어린이집의 규칙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은 또래가 화장실을 가지 않고 줄서기를 한다면 화장실 이동 전에 미리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은 유아는 가지 않고 줄을 서도 된다고 교사가 언급하여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유아의 불안요인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제거하기의 예	
상황	실외놀이터를 나가기 전 교사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줄을 서자고 한다. 유아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박 행동을 보인다.
발문	교사는 화장실 다녀와서 줄을 서자고 이야기 하는 동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 친구는 바로 줄을 서도 된단다. ○○야, 화장실을 가고 싶은 친구는 화장실 다녀와서 줄을 서고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 친구는 바로 줄을 서도 된단다. 우리 모두 똑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 한다.

- 유아의 불안요인이 어린이집 생활 중에 나타나면 개입하여 제거하기

유아의 불안요인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개입하여 제거하기의 예	
상황	실외놀이터를 나가기 전 교사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줄을 서자고 한다. 유아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박 행동을 보인다.
발문	교사가 미리 화장실 다녀오고 싶지 않으면 바로 줄을 서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실을 다녀오지 않고 줄을 선 친구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야,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 하지 못했는데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은 친구는 바로 줄을 설 수도 있단다"라고 이야기 한다.

- 실외놀이를 나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만을 교사가 언급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지 않은 또래가 줄을 미리 서서 유아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즉시 개입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유아가 그 상황을 인정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 양육자와 협의하여 가정에서도 불안요인이 나타나면 개입하여 제거하기
- 여러 노력에도 유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강박 성향이 더 심해져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부모에게 전문가를 만나 보도록 권유하기

19 불안감과 긴장으로 틱(tic) 현상을 보이는 경우

연령 : 만 4세
유아가 갑자기 놀이에 잘 참여하지 않고 또래의 놀이를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또래의 놀이를 쳐다보거나 교사와 이야기 할 때 코를 킁킁 거린다. 어린이집 일과나 또래관계 등에서 변화한 부분이 없어서 부모면담을 진행하자, 요즘 특정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유아 앞에서 자주 큰 소리를 내며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 틱 현상의 가장 주된 심리적 원인은 해소되지 못한 불안과 긴장임.

-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틱 현상이 나타났다가 1개월 안에 사라지기도 함.

- 이때 유아에게 불안이나 긴장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자료는 가정일 수 있음.
  - 부부 갈등 등 가정불화는 유아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요인임.
  - 특히, 유아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많음.
  - 동생의 출산, 주양육자의 변화 등 인적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함.

- 양육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 상호작용도 문제가 됨.
  - 양육자가 제한적이며 억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다면 유아가 양육자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고, 적절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발산하기 어려움.
  - 양육자의 덜 민감하고 무감각한 상호작용은 유아가 양육자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요소가 됨.

- 어린이집의 이동, 거주지의 이동 등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함.

- 틱의 원인이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인 원인에 있기도 함.
  - 부모 중에 틱이 있으면 자녀에게 틱이 나타나기도 함.

나. 지도 방법

- “눈 깜박이지 마” “킁킁대지 마라” 등 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지는 틱을 없애지 못하며 오히려 유아를 긴장하게 해 틱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 교사도 직접적으로 틱을 지적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유아를 긴장시키는 요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기
- 직접적인 가정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조력을 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유아의 긴장을 심화시키는 행동(언성 높이기, 비난하기 등)을 삼가기
-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자가 바람직한 양육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특히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해 허용하고 용인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 환경 변화가 유아에게 긴장과 불안을 높일 수 있음을 이해하기
- 유아 관찰과 부모면담을 통해 유아에게 긴장과 불안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을 찾기
  - 어린이집의 이동, 교사 교체, 부모출산 등 유아에게 익숙함과 안정감을 제공했던 물적, 인적요인의 모든 변화를 검토하기
-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 환경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공유하여 진행하기
  - 어린이집의 이동이 유아에게 불안감을 조장했다면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서히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교사에게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 양육자와 교사가 유아의 긴장이나 불안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이를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기
- 위와 같이 지도할 경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음성 틱(“킁킁” 등 소리 내는 경우)과 운동 틱(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 몸을 움직이는 경우)이 함께 관찰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함.

- 틱 증상 외에도 주의력 결핍증, 강박장애, 학습장애, 불안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필요한 검사를 함께 시행할 수도 있음(조수철, 2007)

틱 증상이 유전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교사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함.

틱 현상을 또래가 인지하고 지적할 수 있으므로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지도가 필요함.

- 또래가 지적하게 되면 유아는 이로 인해 더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틱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유아들이 틱을 보이는 유아를 놀리거나 지적하지 않도록 교사가 개입해야 됨.

20 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

연령 : 만 5세
유아가 수조작영역에 앉아 그룹 게임판을 보고 있다. 교사가 다가가 "○○야, 선생님하고 함께 놀이할까?"라고 묻자 교사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떨어뜨린다. 교사가 "○○야, 왜 울어? 무슨 일이 있니?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보렴"하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교사가 재차 묻자 "그냥, 눈물이 나요"라고 유아가 대답한다. 유아는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원내 활동에도 관심이나 의욕이 없다. 다음날도 지속된다.

가. 원인 분석

기질적 요인

- 우울한 기분(mood)를 타고난 경우가 있음.

유아–부모 관계가 불안정하여 유아가 늘 우울한 경우가 있음.

-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부모에게서 만족스러운 정서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 좋지 않은 기분이 계속 유지됨.
- 부모가 민감하게 유아의 요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려도 이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유아의 우울감이 지속될 수 있음.

- 특정 시기에 특정한 문제(부부 갈등, 부모와의 관계 변화, 부모의 질병, 동생의 출산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기분이 많은 경우도 있음.
  - 부모간의 싸움을 유아가 목격하고 부모의 불화를 인지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뀐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가정 분위기가 우울하다든지, 동생의 태어남으로 동생에게 양육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든지 하는 특정한 문제로 유아가 우울한 정서를 유지하는 경우도 나타남.

- 우울한 경우, 유아는 짜증이 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두통이나 복통 등 신체증상을 호소할 수 있음.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신체적 호소가 지나치거나 잦을 때 심리적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나. 지도 방법

- 개별 유아의 기질 이해하기
  - 「아동발달」 등의 이론서를 바탕으로 유아의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 기질적 요인으로 인해 유아의 기분이 늘 가라앉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가장 힘든 사람은 유아 본인임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 개별 유아의 기질 수용하기
  - 기질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타고난 것이므로 교사가 이를 바꾸려 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유아를 보다 더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기.

유아의 기분을 읽어 주기의 예	
상황	유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휴식영역에 앉아 있다.
발문	교사는 "○○가 휴식영역에서 쉬고 싶구나!"라고 유아의 기분을 읽어 주며 공감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 개별 유아를 관찰하여 유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유아의 기분이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주기의 예	
상황	유아가 침울하고 우는 듯한 표정으로 언어영역에 앉아 책을 들고 있다.
발문	교사는 유아 옆에 앉아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선생님이 옆에 함께 있을까? 들고 있는 책을 함께 읽을 수도 있겠네~"라고 이야기 한다.

부모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하기.

-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유아의 우울한 분위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인지,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면담 진행하기.
- 유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유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유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을 통해 원인을 인식하기.
- 부모면담을 통해 교사와 부모가 원인을 찾는 가운데서 해결책도 함께 구상하기.
- 교사는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견에 대한 전문적 조언, 견해를 첨가하기.
-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찾기.

부모면담·공동의 해결책 강구의 예	
상황	교사는 부모에게 유아가 어린이집 일과 중 많은 시간에 울음과 침울한 표정을 나타냄을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도 그런지 물어본다. 부모가 가정에서도 요즘 동일한 상황이 반복됨을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부모에게 "제가 어린이집에서 ○○를 관찰해 보니 특별히 또래 관계 등에서 변화한 것이 없는데요. 혹시 요즘 가정에서 변화한 점이 있나요? 부모님 간의 관계의 변화라든가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등이요. 작은 변화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유아 안정적 관계 형성 유도하기.

- 관찰 결과 유아의 기질이 우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면담 실시하기.
- 유아 관찰기록을 부모와 함께 보며 유아의 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유아-부모 관계, 가정에서의 특별한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가 문제라면 교사가 부모가 유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코칭하기.

특별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기다림.

- 이사 등의 환경적인 변화가 문제라면 환경 변화에 유아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교사가 기다려 주기.
- 동생이 양육자에게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동생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하여 퇴행이 나타나며 울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는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유아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줌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 보이기.

-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유아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유아와 1:1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교실이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기

- 유아가 좋아하거나 관심보일 만한 활동을 고안하여 이를 제안하고 유아를 참여시키기. 이를 통해 적게라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됨.
- 우울한 유아는 자칫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저하시켜 또래에게 인기가 없거나 교사도 이런 유아를 반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유아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의 신체적 표현으로 친밀감과 따뜻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은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 문제행동이 심각해진다면 전문가 평가를 고려해 봐야 됨.

일과 중 대부분을 심드렁하고 울적하거나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고, (의학적인 이유없이 혹은 그에 비해 과하게) 자주 아프며, 신경질이나 짜증이 부쩍 증가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와 관심이 저조해지며, 안절부절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하고 활기가 없어질 때, 입맛이 없어지거나 체중이 줄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관찰되는 지 살펴봐야 됨.

21 기분 변화가 심한 경우

연령 : 만 4세
아침에 등원을 할 때 유아의 어머니가 "선생님 오늘 ○○가 기분이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유아는 보육실로 들어와 가만히 언어 영역에 앉아 책을 집어 든다. 또래가 "○○야, 안녕" 인사하자 유아도 "안녕,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 유아는 곧 미술영역에 가서 종이를 꺼내고는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않는다. 교사가 "○○야, 왜 그래? 어디가 아프니?" 물어보니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이 후 ○○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가 오후에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 또래와 즐겁게 활동하였다.

가. 원인 분석

유아의 기질적 특성

- 지나치게 예민하여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조절이 어려움.
- 부모나 조부모 혹은 친척 등 가족 내 기분 변화가 잦고 그 폭이 큰 성향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음.
- 물리적 환경, 양육자, 또래 등의 관계 변화에 민감함
- 동일한 상황, 사건에 또래보다 과도한 반응성을 보임.
- 또래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도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음.

정서적 미성숙

- 자신의 기분을 전환하기 어려움.
- 자신의 기분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어려움.

유아의 특성상 감정 기복이 심해서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이 쉽게 변하며, 과거에 비해 유아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므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조운주·최일선, 2008).

나. 지도 방법

유아의 기질 이해하기

- 유아 행동 관찰,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유아의 기질을 파악하기
- 전문 서적을 통해 유아의 기질적 특성 알아보기

유아의 기질 수용하기

- 유아의 행동이 기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기
- 유아의 행동이 기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단시간에 쉽게 변화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 유아의 기질을 바꾸기 보다는 수용함으로서 유아의 기분이 조절되도록 돕기

수용하기의 예	
상황	유아가 언어영역에 가만히 앉아 있다. 교사가 역할영역에서 "○○야, 옷 사러 오세요. 여기는 옷 가게예요"라고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해도 쳐다 보지 않는다. 교사가 유아에게 다가가 "○○야, 놀이하고 싶지 않니?"라고 묻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가 지금 놀이하고 싶지 않구나! 왜 그런지 선생님은 궁금하네. 선생님에게 왜 놀이하고 싶지 않은지 이야기해 줄래?"라고 묻는다. 유아는 "그냥, 기분이 나빠요"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그렇구나! ○○가 그냥 기분이 나쁘구나!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선생님이 옆에 있어줄까?"라고 묻자 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물, 모래, 점토, 물감놀이 등 비구조적인 재료의 놀이로 기분 조절하기

- 유아가 조작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고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비구조적인 재료의 놀이로 기분을 전환하기

비구조적인 재료의 놀이로 기분 조절하기의 예	
상황	유아가 언어영역에 가만히 앉아 있다. 교사가 "○○야, 우리 함께 놀이할까?"라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고개를 젖는다.
발문	교사는 "○○가 지금 놀이하고 싶지 않구나! 선생님이 미술영역에 여러 가지 색깔 점토를 준비했어. ○○가 만지고 싶은대로 해 볼 수 있는데 놀이 해 볼래? ○○가 기분이 나쁘면 여기 있는 망치로 점토를 쿵!쿵! 두드려 볼 수도 있어. 어때?"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유점토를 꺼내 망치로 두드리자 유아가 다가온다.

그림책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분 전환 방법 알아보기

- 자신에게 직접 닥친 상황에서 기분을 조절, 전환하기 어려우므로 그림책, 상황극 등을 보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기분을 조절,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유아의 심한 감정 기복은 유아의 식사나 수면, 유아의 또래 관계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됨(조운주·최일선, 2008).

22 정서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은 경우

연령 : 만 4세
또래가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있는데 실수로 친구의 팔을 쳐서 그림을 망치게 된다. 그림을 그리던 유아는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정작 팔을 친 ○○는 "야, 다시 그리면 되지 뭘 그러냐?"며 속상해서 우는 친구를 오히려 놀린다.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서 시무룩하게 등원한 친구를 다른 유아들은 위로해주며 양보해주는데, ○○는 친구의 시무룩한 얼굴을 향해 왜 자신에게 화를 내냐며 때리려는 시늉을 보인다. ○○는 글을 읽고 쓰거나 셈하기 등 인지발달은 또래에 비해 빠르나,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는 서툴러 늘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가. 원인 분석

- 유아의 부모 등의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적 표현에 부적절하게 반응한 것이 유아의 정서발달 지연을 초래한 경우임.
  - 정서는 성장하면서 분화되고 양육자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 발달함.
  - 정서가 분화되는 시기에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적 표현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정서발달에 문제가 발생함.

- 유아가 정서 표현을 나타내었을 때 유아의 감정 상태를 읽어 주고 함께 공감해 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모델링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서발달이 지연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정서 표현, 조절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 점검하기
  - 양육자의 성격이 반응이 적고 민감성이 떨어지는 경우 유아의 정서 표현, 조절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함.
  - 부모면담, 교육이나 등하원시 또는 어린이집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양육자 자신의 정서 표현, 조절 정도를 점검하기
  - 반복 관찰로 양육자의 반응 양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양육자의 반응 양식과 유아의 행동 특성 연결하기

- 양육자의 반응에 대해 교사회의에서 논의하여 양육자 반응의 부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유아의 정서 표현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하기

-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 표현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기
- 매일 가정에서 보이는 유아의 정서 표현 사례를 가지고 양육자와 이야기 나누기
- 양육자가 유아의 정서 표현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교사가 모델링 보여 주기
- 사례에서 나타난 유아의 정서 표현이 어떤 상태인지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돕기.
- 양육자와 면담을 통해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해 양육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지 이야기 하고 모델링 해 주기

유아의 정서 표현, 조절 돕기

- 유아가 자신이 나타내는 정서 표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상황별로 즉시 개입하여 이야기 나누기
- 교사가 정서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유아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정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기
- 유아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또래가 나타내는 정서를 보고 어떤 정서 표현인지 이름을 붙이도록 하기

상황별 정서에 이름 붙이기의 예	
상황	유아가 이젤에 걸린 종이에 물감을 칠하다가 또래 여아의 옷에 물감이 묻힌다. 여아는 "아,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물감이 묻었어. 어떻게 하지?"라고 한다. 교사가 다가가 물티슈로 물감을 닦아내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옷을 닦고 돌아온다.
발문	교사는 유아에게 또래 여아를 가리키며 "○○야, △△가 좋아하는 옷에 물감이 묻었을 때, △△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래, 많이 속상했겠구나! 그럼 △△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라며 또래 유아의 정서를 느끼고 이름을 붙여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정서 표현을 보고 정서를 변별해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기

상황별 정서 변별하기의 예	
상황	유아와 함께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고 있다.
발문	교사는 "맥스가 저녁을 먹지 못하고 방에 들어 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유아의 대답을 들으며 "그래, 슬펐구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중에 슬픈 거였네"라고 정서에 이름을 붙인다.

- 유아 자신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서 표현을 나타내었을 때, 공감해 주고 해당 정서 표현이 적절했음을 격려해 주기

상황별 정서 표현, 조절에 정당화해 주기의 예	
상황	또래가 블록을 모두 가지고 가서 유아가 "나도 쓸 수 있게 줘"라고 소리친다.
발문	교사는 "○○가 쓸 수 있는 블록이 모자라서 속상하구나! 그러면 ○○이가 하고싶은 것을 못하니까 속상할 수도 있겠네. 속상해서 친구에게 이야기했구나!"라고 이야기한다.

23 분노폭발로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연령 : 만 5세
유아가 쌓기영역에서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다. 원하던 대로 구성이 되지 않는지 "아이 왜 이렇게 안돼"라고 소리를 지른다. 유아는 사각 단위 블록을 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를 친다. 옆에 있던 또래가 놀라서 "선생님, ○○가 블록으로 자기 머리를 때려요"라고 이야기 한다. 교사가 그 말을 듣고 "○○야, 다치겠다. 그만해"라고 이야기하자 교사를 힐끗 보더니 다시 블록으로 머리를 때린다. 다른 영역에 있던 또래들이 "○○좀 봐"라고 쳐다보자 다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친다.

가. 원인 분석

분노폭발 후 양육자의 특별한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분노폭발 행동이 강화되고 지속됨.

나. 지도 방법

먼저 유아가 분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공감하기

- 유아의 분노를 인정해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유아의 분노가 풀리기도 함.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 유아가 모방학습할 수 있는 모범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관심을 끌기 위한 분노폭발에 관심 철회하기

- 유아가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양육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분노를 보일 때 깜짝 놀라거나 제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유아의 분노폭발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기
- 부정적인 반응이라도 관심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분노폭발로 유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도록 하기

- 유아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노폭발을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분노폭발을 실행하지 않도록 미리 상호작용하기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의 예	
상황	산책을 가기 위해 보육실 문 앞에 줄을 선다. 유아가 갑자기 "야, 내가 먼저 왔다구. 내가 맨 앞에 설거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또래가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라고 이야기 하자 "내가 먼저 왔어. 비켜"라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려 한다.
발문	교사는 유아의 손을 잡아 유아가 바닥을 내려 치는 행동을 중지하도록 하며 화난 이유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한다. "○○야, 네가 맨 앞에 서고 싶었구나! 그런데 맨 앞에 서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바닥을 내리치는 것은 안돼."

- 유아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노폭발을 하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 주지 않기
-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구 사항을 교사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교사와 이야기 나누기의 예	
상황	산책을 가기 위해 보육실 문 앞에 줄을 선다. 유아가 갑자기 "야, 내가 먼저 왔다구. 내가 맨 앞에 설거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또래가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라고 이야기 하자 "내가 먼저 왔어. 비켜"라며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려 한다.
발문	교사는 "소리 지르고 바닥을 내리친다고 해서 맨 앞에 설 순 없어. 자, 맨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하고 이야기 해 볼래?"라고 이야기 한다. 많은 또래들이 기다리고 있어 즉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면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미안해! 지금은 선생님이 ○○하고 오래 이야기 나누기 어렵구나! 산책가서 놀이를 시작하면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자꾸나"라고 이야기한다.

제한하는 행동을 계속 할 때는 타임아웃(time-out)을 할 수도 있음

- 타임아웃은 강화, 보상 및 관심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함(Lynn, 1995, 홍성윤·김유미 역, 1998)

- 나쁜 행동이 일어난 직후(가능한 한 10초 이내)에 강화적이거나 즐거운 상황에서 아이를 빨리 격리시켜서, 강화적이거나 즐겁지 않은 조용하고 지루한 장소에 아이를 두는 것임.
- 타임아웃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행동: 때리기, 성질 부리기, 다른 아이 괴롭히거나 화나게 하기, 화가 나면 고함지르고 괴성 지르기, 장난감 던지거나 뺏거나 부수기, 다른 사람 물거나 물려고 위협하기, 물건 던지기, 침 뱉거나 그러겠다고 위협하기, 꼬집거나 할퀴기, 징징대기, 약 올리기, 욕하기, 경고를 받고 나서도 어른의 대화에 계속 끼어들기
- 타임아웃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행동: 삐지기, 뾰로통하기, 짜증내기, 옷과 장난감 치우지 않기, 숙제나 각종 연습을 하지 않기, 의존적이거나 수동적인 행동, 혼자 있으려함, 교사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행동
- 타임아웃의 절차
  - 미리 타임아웃을 정할 대상행동을 한 가지 정함
  - 그 대상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세어 봄
  - 미리 타임아웃 장소로 사용할 따분한 공간을 정함 (무섭거나 재밌는 곳은 안됨)
  - 미리 타임아웃에 대해서 설명함
  - 대상 행동이 나타나면 10초 이내, 10마디 이하를 사용해서 타임아웃 장소로 보냄
  - 휴대용 타이머(타임아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됨.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정확한 신호가 될 수 있음)로 시간을 맞춤. 연령당 1분씩 타임아웃 장소에 있어야 함.
  - 타이머가 울리기까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말아야 됨.
  - 타이머가 울린 후에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를 말해보도록 함.

24 잘못에 대해 제지 받은 경험이 없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

연령 : 만 4세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쌓기영역에서 유아가 갑자기 덤블링을 한다. 교사가 “친구들 놀이에 방해되니까 덤블링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했더니 “나 덤블링 안했어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며 큰 소리를 지른다. 교사가 “선생님하고 이야기 해 보자. ○○가 쌓기놀이에 덤블링 하지 않았니?” 라고 다시 이야기하자 소리를 지르며 “안했다니까요.”라고 이야기한다. 하원시에 엄마를 만나자 “엄마, 선생님이 나에게 나쁘게 이야기 했어”라고 한다.

가. 원인 분석

- 유아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차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남.

-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지 않도록 양육자가 제지해야 함.

- 또한, 잘못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어 행동해 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함.

- 이런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양육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거나 양육자에 의해 잘못된 행동을 제지를 받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시정해 본 경험 부족한 경우에 나타남.

나. 지도 방법

- 양육자 교육하기
  - 유아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양육자가 행동의 제한과 시정에 대한 경험을 적절히 주지 않아서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 양육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가적 견해가 보이도록 원인에 저술된 내용을 참조하여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 양육자가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제한을 할 수 있는 ACT(Acceptance, Communication, Target behavior) 방법 교육하기
  - ACT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 A: 감정에 대한 수용하기: 감정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알아주기
  - B: 제한하기: 감정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행동은 모두 받아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리기,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제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
  - C: 대안행동 제시하기: 잘못된 행동을 대신하면서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대안행동 제시하기
  - B단계에서 제한한 행동 대신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주고 이를 행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교사에 의한 적절한 제한하기

- 교사와 양육자가 일관성 있게 유아의 행동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양육자와 비정기적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기
- 양육자의 가정에서의 대처에 대해 조언하면서 교사 자신의 유아에 대한 상호작용도 점검하기
- 양육자와 마찬가지로 ACT방법 실행하기

ACT의 예	
상황	쌓기영역 교구장에서 블록을 꺼내려다가 또래가 실수로 자신의 블록 구성물을 무너뜨리자 "내가 쌓아 놓은 걸 무너뜨리면 어떡해?"라고 말하며 친구의 블록 구성물을 일부러 무너뜨린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친구가 실수로 ○○ 탑을 무너뜨려 속상하구나(감정의 수용),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일부러 친구의 작품을 망가뜨려서는 안돼(제한에 대한 의사소통), 그 대신 화나는 마음을 블록 쌓았다가 무너뜨리기로 풀거나, 종이 구기기로 풀 수는 있어(대안 행동). ○○이는 무엇을 해보고 싶니?"

25 이후 상황이 두려워서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령 : 만 4세
역할영역에서 병원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유아가 또래와 서로 의사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교사가 "너희들, 무슨 일이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해 보자"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는 "저 아닌데요. 제가 그런거 아닌데요"라고 이야기 하며 손을 내젓는다. 교사가 "○○야, ○○야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해 보자는 거야. 우리 함께 이야기 해 볼까?"라고 말하자 고개를 숙이고 입을 꼭 다문다.

가. 원인 분석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여, 결과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양육자, 교사 등 성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거나 성인에 의한 훈계나 질책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남.

나. 지도 방법

유아 개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 격려하기

- 유아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기
-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개별 유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보기
- 단순히 "너는 멋지구나! 잘 할 수 있어"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유아가 격려받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늘 교사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로 인식하기 쉬움.
- 유아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 기술, 태도 등을 찾아 격려하기

유아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유아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놀이 활동, 일상생활 활동을 찾아 그 활동을 해보기를 권유하기
- 유아의 장점이 활동에서 드러나면 또래, 교사가 주목하기
- 유아의 장점이 활동 속에서 드러나면 이를 언어,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여 또래, 교사의 관심이 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유아의 장점이 드러나면 주목하기의 예	
상황	매트 위에서 구르기 활동을 하고 있다. 또래가 옆으로 구르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는 앞으로 구르기를 한다. 몸을 동그랗게 굴려서 앞으로 구르기를 하고 있다.
발문	교사는 또래가 유아의 행동을 보도록 유도하며 "○○가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앞구르기를 하고 있네. 와, 앞으로 데굴 굴러가네. 얘들아, ○○가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앞으로 쑥! 구르기를 하네. 대단하다~"라고 말한다.

성취감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활동수준 조절하기

- 관찰을 통해 정확한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수준을 파악하기
- 파악된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유아가 쉽게 스스로 교사의 큰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안심시키기

- 유아에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음을 유아가 선호하는 대상(교사, 부모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
- 유아의 실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며 실수가 엄청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유아가 실수를 가볍게 느끼도록 하기의 예	
상황	미술영역에서 종이를 자르다가 책상 위에 덮어 놓은 비닐지를 함께 잘랐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고 "○○야, 괜찮아. 선생님도 지난번에 미술영역에서 한지를 자르다가 옆에 있는 다른 색 한지를 함께 자른 적이 있단다. 모두 원하지 않지만 가끔 실수를 한단다."라고 말한다.

- 교사는 유아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어려운 과정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을 힘들게 인정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격려하기의 예	
상황	미술영역에서 종이를 자르다가 책상 위에 덮어 놓은 비닐지를 함께 잘랐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그래, ○○가 종이와 비닐지를 함께 잘랐구나! ○○가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먼저 얘기해 주어 정말 선생님은 기쁘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유아를 토닥인다.

-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격려하여, 실수나 잘못을 인정해도 자신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안심시키기

안심시키기의 예	
상황	유아가 미술영역에서 종이를 자르다가 책상 위에 덮어 놓은 비닐지를 함께 잘랐다.
발문	교사는 "책상 위에 씌운 비닐지가 오려졌지만 조금 벌어졌을 뿐이네. 우리 함께 테이프를 잘라 붙여보자."라고 제안하고 유아가 테이프로 비닐을 붙인 후 "금세 붙었네. 별일이 아니구나!"라며 안심시킨다.

26 마음속에 가득 찬 화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령 : 만 5세
유아가 미술영역에서 크레파스로 '주말 지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몸을 옆에 돌리던 유아가 옆 또래의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줄을 긋는다. 또래가 "야, 내 그림에 그리면 어떡해?"라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또래가 울면서 "선생님, ○○가 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요"라고 이야기 하자 유아는 또래의 얼굴에 입을 대고 "네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 보았잖아"라고 소리를 지른다. 교사가 "무슨 일인지 함께 이야기 해 볼까?"라고 이야기 하자 "나는 잘못한 것 없어요. 얘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서 그런거에요"라고 이야기 한다.

가. 원인 분석

-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 형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유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만이 내적으로 쌓여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유아가 있음. 이럴 경우 또래들은 별문제 없이 넘어갈 일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사소한 일로도 쉽게 불쾌해짐.

-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수한 상황이 되어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화를 폭발시킴.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심리적 불만의 원인 찾기
  - 유아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기
  -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 원인 파악하기
  - 가정에서 나타나는 유아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장면이 있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양육자와 면담하기
  -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 원인 파악하기

- 유아의 불만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린이집-양육자 공동책 마련하기
  - 유아의 불만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공동으로 실행하기

- 유아의 불만요인이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에서 시작된 경우에 양육자가 유아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기
- 어린이집에서도 양육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경험한 즐거운 상호작용 내용을 격려해주기

✓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경험 제공하기

- 유아의 발달수준에서 쉽게 스스로 할 수 있고 선호하는 활동이여서 두려움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긍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명료화 시켜 주고, 작은 긍정 정서를 증폭시켜 유아가 무심코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기

✓ 위와 같은 개입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평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자주 버럭 화를 내고, 어른과 논쟁하고, 적극적으로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하며,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타인에 의해 쉽게 기분이 상하고 쉽게 신경질을 내며, 화내고 원망하고, 앙심을 품고 있는 행동이 연령이나 동일한 발달수준의 또래에 비해 더 빈번한지를 고려해봐야 함.

27 겁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경우

연령 : 만 4세
수조작영역에서 주사위 게임을 또래와 유아가 하고 있다. 교사가 다가가 "우리 이 게임 여러 번 해서 익숙해졌지? 좀 더 재미있게 규칙을 바꿔서 해 볼까?"라고 이야기 한다. 또래는 "좋아요. 어떻게 바꿀까요?"이야기 한다. 유아는 "싫어요. 나는 그냥 할래요."라고 말한다. 교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하자 소리를 지르며 "싫다니까요. 그냥 할래요."라고 말한다.

가. 원인 분석

현재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새로운 상황, 활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안함을 억제함.

나. 지도 방법

유아의 기질에 대해 이해하기

- 유아가 교사의 지도나 제시에 불만을 갖고 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 상황이 두려워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 유아의 기질상 새로운 상황,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기
- 유아의 기질을 바꾸려하기 보다 유아의 기질을 수용하여 기다려 주기

유아의 기질 수용하기의 예	
상황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신체게임활동을 대집단으로 하고 있다. 유아가 끝까지 하지 않겠다고 한다.
발문	교사는 "○○가 게임을 하고 싶지 않구나! 새로운 게임이라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렴. 그리고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 한다.

새로운 활동, 상황에 대해 미리 자세히 설명하기

- 유아가 새로운 활동,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또래보다 미리 새로운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유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기

새로운 활동, 상황 미리 설명하기의 예	
상황	수·조작영역에서 새로운 놀잇감을 배치한다. 교사는 놀이소개시간에 대집단으로 새로운 놀잇감을 소개하기 전 유아와 1:1로 새로운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오늘 수조작영역에 새로운 교구를 준비했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개의 주사위에 그려진 나뭇잎 수만큼 말을 움직이는 게임이야. 오늘 놀이소개시간에 이야기 할텐데 ○○에게 먼저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 새로운 활동, 상황을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하기
- 자세한 설명으로 새로운 활동,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새로운 활동, 상황 자세히 설명하기의 예	
상황	수·조작영역에서 새로운 놀잇감을 배치한다. 교사는 놀이소개시간에 대집단으로 새로운 놀잇감을 소개하기 전 유아와 1:1로 새로운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발문	교사는 "○○야, 놀이소개시간에 게임 소개에 대해서 들었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떤 게임인지 이야기해 줄게."라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 한다.

유아 참여에 대한 기대치 조정하기

- 유아가 새로운 활동,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이 길고 처음에는 소극적 참여로 일관할 것임을 인식하고 유아 참여에 대한 기대치 낮추기
- 소극적 참여의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고 익숙해지면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격려하기

28 환경 변화로 인해 산만해진 경우

연령 : 만 3세
어머니가 출산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기거하는 바람에 갑자기 할머니와 함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하는 유아가 있다. 이 유아는 어머니가 출산하기 직전 한달 동안은 이모댁에서 등원하였는데 어린이집과 거리가 멀어 지각이 잦고 밤에 잠드는 시간도 늦어졌다 한다. 어느 정도 적응할 무렵 할머니댁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아이방이 따로없고 식사, 취침, 놀이 등이 거실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었다. 이 유아는 최근 놀이시간에 한 가지 활동에 몰입하여 놀이하지 못하고 영역에 있는 놀잇감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 교사가 "○○야, 여기 역할영역 음식점으로 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고 있답니다."하며 자연스럽게 가작놀이 참여를 유도하자, 힐끗 쳐다보고 역할영역에 왔다가 바로 조작영역으로 가서 끼우기 놀잇감을 꺼내 든다. 끼우기 놀잇감을 쳐다 보다 금세 언어영역으로 이동한다.

가. 원인 분석

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 어린이집 환경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유발함.

스트레스는 유아의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이끌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스트레스 원인 찾기

-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갑작스러운 환경, 상황 등의 변화 찾기
- 양육자와의 면담을 통해 갑작스러운 환경, 상황 변화 중 유아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추측해 보기
- 추측한 내용으로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유아와 이야기 나누어 스트레스 원인 확인하기

원인에 따른 해결책 마련하기

- 부모의 장기 출장으로 인한 부모의 부재와 양육자 변동이 문제라면 유아에게 부모의 부재에 대해 정확히 다시 설명하고 전화 등을 통해 부모와 잦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돕기
- 유아의 스트레스 원인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

수용하기의 예	
상황	쌓기영역 교구장에서 블록을 꺼내려다가 또래가 쌓아 놓은 블록 구성물을 무너뜨렸다. 또래가 "내가 쌓아 놓은 걸 무너뜨리면 어떡해?"라고 이야기하자 유아는 "네가 다른 곳에 쌓았어야지. 왜 나한테 소리질러"라고 말한다.
발문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표정으로 "○○야, ○○가 블록을 꺼내고 싶었구나! 블록이 필요했구나!"라고 이야기한다.

- 갑작스러운 유아의 산만, 부주의에 지나친 관심 표현하지 않기
- 확인된 스트레스 원인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양육자-교사가 함께 모색하기

과제나 놀이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기(양옥승·정채옥·조유나, 2011).

- 주어진 과제나 놀이 상황이 너무 쉽거나 지루한 경우에도 유아가 집중하지 못해 집중하지 못할 수 있음.
-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유아는 달리기나 스포츠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음.

29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한 경우

연령 : 만 4세
유아가 미술영역에서 가위를 들고 있다.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쳐다보았다가 가위를 보았다가 다시 벽을 보았다가를 한다. 결국 자유선택활동이 끝날 때까지 오리기를 하지 못한다. 하원시간에 엄마가 데리러 오자 엄마를 본체만체하더니 복도를 끝에서 끝까지 뛰어 다닌다.

가. 원인 분석

-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 가족 간의 문제 등 심리적 문제가 지속되어 유아에게 우울이나 불안을 야기시켜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

나. 지도 방법

- 유아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함.
  - 양육자와의 면담, 유아 행동 관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아가 지닌 심리적 문제의 원인 찾기
  - 유아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단시간에 표면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양육자와의 면담, 유아 관찰을 통해 찾아보기
  - 부모의 솔직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에게 갖고 있는 관심과 진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 지속적인 양육자와의 면담, 유아 관찰을 통해 유아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추론하고 확인하기

-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찾음.
  -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 감소시키기
  -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을 단시간에 제거하기 힘듦을 이해하기
  - 점차적으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 유아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기꺼이 부모와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달하기
  - 유아가 심리적 문제 때문에 산만, 부주의 행동이 나타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차분한 수동적인 놀이를 유도함.

- 점토로 만두 빚기, 칠판에 그림 그리기, 큰 상자에 작게 자른 색종이 붙이기 등 손가락을 사용해 몰두할 수 있는 활동하기
- 유아가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듣거나 보는 '수용놀이'하기
-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기

유아의 산만한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부모에게 알려주기

- 먼저 자녀의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도록 함. 부모가 잘못 양육한 것이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기질임을 이해하도록 하며 부모가 자책하지 않고 좀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기
-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을 말해줌.
- 여러가지 단계의 복합적인 지시나 추상적인 내용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어라"하는 표현보다는 "텔레비젼을 끄고 밥 먹자", "숟가락을 들고 밥 먹어라" 등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진 명확한 자극이 도움이 됨.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칙 말해주기의 예	
상황	유아가 교실에서 여러 영역을 돌아다니며 기웃거리기만 한다.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 교사가 "○○야, 하고 싶은 활동이 뭐니?"하고 묻자 "쌓기영역에서 블록으로 성도 만들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라고 대답한다.
발문	"○○가 하고 싶은 것이 많구나. 그럼 먼저 쌓기영역에 가서 블록으로 성을 만들면 선생님이 보러갈게. 그 뒤에 그림을 그려보자. 지금 성 만들기를 시작할까?"라고 하자 ○○는 쌓기영역에 앉아서 블록을 꺼낸다.

- 유아의 행동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반응해주기
-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더 반응을 보이도록 안내하기
- 산만한 유아의 경우, 잘못하는 행동에 자꾸 주의를 받게 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상호작용을 차지하게 되어 위축될 수 있음을 알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얼른 칭찬하고 지지해주기

기관이나 가정에서 유아의 행동을 재촉하는 경우에도 유아는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질 수 있음 (양옥승·정채옥·조유나, 2011).

- 유아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성인의 생각 속도에 맞추어 빨리 행동할 것을 요구하거나 유아가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도 집중력이 떨어짐.

30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거나 다른 성의 친구를 궁금해 하는 경우

연령 : 만 3세 성별 : 여
낮잠시간에 유아가 매트에 누워 두 다리를 꼬면서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두 손으로 매트를 잡으며 힘을 준다. 곧 이어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진다. 교사가 보고 제지할 때까지 그 행동은 계속된다. 하원시에 교사가 부모와 만나 관찰된 상황을 전달한다. 부모는 유아가 밤에 갑자기 잠이 깨서 부부 관계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한다.

연령 : 만 5세 성별 : 남
자유선택활동시간에 동일 학급 여아가 교사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옆에서 놀이하던 남아도 교사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다. 교사가 다녀오라고 한 후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다. 궁금한 교사가 화장실로 찾아가니 여아와 남아가 서로 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교사가 "얘들아, 뭐하고 있니?"라고 하자 여아가 "○○가 쉬하는데 서로 보여주자고 했어요"라고 말한다. 교사가 남아에게 "△△가 그랬니?"라고 묻자 남아는 "네. 궁금했어요"라고 대답한다.

가. 원인 분석

- 혼자 있거나 무료할 때 자신을 달래주는 수단으로 자위를 하게 됨(이영, 2011).
- 부모의 성관계나 동영상을 보고 무심코 따라 하기도 함.
- 유아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녀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져보기도 함.
- 기타 이유로는 부모를 화나게 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몸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동생이 생기는 등 신변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관심을 받고 싶은 경우, 성추행 후유증 등이 있음.

나. 지도 방법

- 자위나 성 관련 문제는 각 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지도법이 있다기 보다는 각 유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통의 지도법을 제시하기

- 우연히 시작한 행동이 즐거움을 주어 반복하게 되거나 우연히 부모의 성관계 또는 동영상 등을 보고 그 행위를 따라하게 되는 등 시작의 원인은 다르나 나타나는 결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적 문제의 고착과 성적 호기심으로 표현되기 때문임.

자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끈질기게 주의를 주거나 꾸짖지 않도록 함.

- 가볍게 "하지 말아라" 정도로 말함.
- 사소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안아주는 등 아이의 기분을 바꿔주도록 하는 노력하기

자위로 인한 쾌감을 넘어서는 즐거운 활동 제공하기

- 유아를 관찰하여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파악하여 영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놀이 활동 제공하기

유아가 선호하는 놀이 활동 제공의 예	
상황	만3세 남아가 쌓기영역에서 한 손은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블록을 쌓아 올리고 있다. 교사가 "○○가 블록을 쌓고 있구나!"라고 이야기 하자 "자동차야"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그렇구나!"라고 답한다.
발문	교사는 "선생님은 불을 끄는 소방차를 만들어봐야지!"라며 옆에서 병행놀이를 시작한다. 해당 남아가 교사의 구성물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교사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래? 자, 우리 사다리를 만들어보자." 라고 상호작용한다. 유아는 구성을 하기 위해 바지 속에 넣었던 손을 뺀다.

- 유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유아의 발달수준에서 쉽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활동 제공하기

유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제공의 예	
상황	만 3세 남아가 쌓기영역에서 한 손은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블록을 쌓아 올리고 있다. 교사가 "○○가 블록을 쌓고 있구나!"라고 이야기 하자 "자동차야"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그렇구나!"라고 답한다.
발문	교사는 "○○가 다른 자동차도 만들어볼까?"라고 제안한다. 유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번에는 병원차도 만들거야."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는 작은 블록으로 자동차를 길게 만들고 미술영역에서 구급차 표시를 만들어 오더니 자동차에 테이프로 부착한다. 교사는 "와, 구급차네. 아픈 사람을 태우러 가야겠구나! 구급차 표시도 되어 있구나!"라고 격려한다.

유아의 지루함 덜어주기

- 낮잠 자기 전,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유아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자위를 나타내는 유아 옆에서 토닥여 주거나 두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1:1 상호작용을 주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 주기

함께 시간 보내기의 예	
상황	유아가 낮잠시간이 되어 매트에 눕는다. 베게 위에 엎드려 눕더니 베개에 몸을 문지르기 시작한다.
발문	교사는 유아의 매트 옆에 앉아 "○○야, 선생님이 토닥토닥해 줄게. 똑 바로 누워 보자."라며 베게를 제자리에 놓고 유아를 똑 바로 눕힌다. 교사는 유아의 가슴을 손으로 가볍게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준다. 유아가 잠들 때까지 계속 옆에 앉아서 토닥인다.

- 전이활동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노래 부르기, 동시 읽어 보기, 개별적으로 책 보기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전이활동 하기의 예	
상황	여러 명의 유아가 동시에 밥 먹기를 끝내 이 닦기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서 기다린다. .
발문	교사는 세면대 수 만큼 유아 수를 조절하고 나머지 유아는 화장실 밖에서 개별적으로 책을 보도록 한다. 교사는 "세면대가 2개라서 2명이 이를 닦을 수 있겠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와 △△는 이를 닦고 나머지는 화장실 밖에서 책을 보자. 선생님이 오늘 읽을 책을 바구니에 담아 왔어. 바구니에 있는 책 중에 보고 싶은 책을 차례 차례 골라 읽어 보자."라고 이야기 한다.

- 유아에게 질문하기, 제안하기, 자료 선택하기 등을 시도하여 유아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대소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소집단 활동 진행하기의 예	
상황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가 지루한지 이야기 나누기를 하며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진다.
발문	교사는 융판 자료를 보이며 "○○가 앞으로 나와서 다음에 친구들이 볼 그림을 융판에 붙여 줄래?"라고 이야기 한다.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성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보 제공하기

- 만 3세 이상이 되면 점점 성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나의 성적 특징과 나와 다른 성의 특징에 대해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 출생과 관련된 내용, 성기의 정확한 명칭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기

다. 유의사항

- 자녀가 자위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면 부모는 당황하게 되어 자녀에게 위협을 하거나 처벌을 해서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함.

-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위협과 처벌은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오히려 지나친 위협과 처벌은 유아에게 '해서는 안될 짓을 자꾸 하는 나쁜애'라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로 인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자위에 몰두하게 할 수도 있음.
  - 성이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은연중에 부모에게 방치되고 있거나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유아들에게서 보다 빈번히 자위행위가 관찰됨.
  - 이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부모와 가정에 관한 부분임

- 지나치게 자위에 탐닉하는 유아가 있다면 혹시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서운 부모,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아 늘 유아를 평가 절하하는 부모, 바쁜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부모–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면, 교사는 부모에게 유아의 자위는 성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며 보다 관심 받고 애정 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그럽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유아가 부모와 보다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내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김재은(1993).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유아 문제 행동의 특징과 지도 방법. 국민서관.

김태훈(2013). 결벽증으로 보이는 유아 강박 증세. http://kimthmd.mdtoday.iamdoctor.com /302에서 2013년 11월 15일 인출.

권정윤(2013). 유아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서명원·유경량·채소희(2010). 영유아 생활지도. 양서원.

서울시보육정보센터(2012). 좋은교사되기 핸드북.

신혜영(2013).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상담. 서울: 파란마음.

양옥승·정채옥·조유나(2011). 부모교육 백문백답: 영아기(3~6세 미만)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

염숙경(2002). 아동의 특성과 문제별 아동상담과 놀이치료. 서울: 상조사.

오경자·김영아(2008). K-CBCL 1.5-5 유아 행동 평가척도-부모용. 서울:(주) 휴노.

오경자·김영아(2009). K-TRF 1.5-5 유아 행동 평가척도-교사용. 서울:(주) 휴노.

오현숙·민병배(2007).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 서울:(주)마음사랑.

이병준(2013). 영유아기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양육 기술. http://cafe.daum.net/ bluereborn에서 2013년 10월 17일 인출함.

이영·강민주·우현경(2011). 부모교육 백문백답: 영아기(0~3세 미만)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

이영훈·주연희·김성수(2007). 유아문제행동의 이해 및 지도. 서울: 태영출판사.

이유·류윤석·김오남(2002). 부모교육. 양서원.

임은미·강지현·권해수·김광수·김정희·김희수·박승민·여태철·윤경희·이영순·임진영·최지영·최지은·황매향(2013). 인간발달과 상담. 학지사.

장세희·오정림·김경민(2013). 아이의 기질을 알면 육아가 쉬워진다. 맘&앙팡 (2013년 9월호).

조운주·최일선(200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지도. 창지사.

최명선·차미숙·김난희(2012). 엄마와 아이 애착 다지기. 아담북스.

Barbara, K. & Judy S. R.(2013). 유·아동기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이병인·윤미경·이지예·강성리 역). 시그마프레스.

Clark. L.(1998). SOS!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홍성윤, 김유미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Eva L. Essa(1988.) 유아행동지도: 생활지도와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지침(지성애 역). 양서원.

부 록

부록 1. 정서발달 관련 검사

한국판 유아문제행동척도(K-CBCL 1.5-5)의 교사용(K-Teachers Report Form:K-TRF)을 소개함.

-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TRF를 오경자와 김영아(2008, 2009)가 표준화함.
- 1.5세-5세 유아의 문제행동을 부모와 교사가 평정함.
-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기술한 99개의 문항과 개인 고유의 문제를 기재한 후 심각도를 표시하도록 한 3개의 문항을 합쳐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됨.
- 하위척도로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주의집중문제, 수면문제, 공격적인 행동과 기타 문제들 등의 문제증후군척도가 있음.
-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부터 2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됨.
-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척도 등 36문항임.
-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주의집중문제, 공격적인 행동문제 척도 등 24문항이 포함됨.
- 부모가 평정한 미국판 유아용 CBCL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89,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92.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87,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는 .89임.

한국판 유아용 기질 및 성격검사(Korean Junior Temperament & Character Inventory)를 소개함.

- Goth, Cloninger와 Schmeck(2003)이 개발한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3-6)를 오현숙과 민병배(2007)가 표준화함.
- 기질차원과 성격차원으로 구성됨.
- 기질차원: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등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됨.
- 성격차원: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등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됨.
- 주양육자가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86문항으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 및 성격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교사나 주양육자 등 성인의 기질 및 성격에 대해서 동일 구조의 척도도 측정 가능함.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프로그램 개발」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

[연구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총괄 책임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 1부 총론		
책임연구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2부 각론: 기본생활영역		
책임연구원	김의향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장
공동연구원	민미희	서경대학교 대우교수
	김수진	한국보육진흥원 대리
간사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3부 각론: 신체운동발달영역		
책임연구원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이사
공동연구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손승희	대천청사새롬어린이집 원장
간사	김영란	한국보육진흥원 사원
제 4부 각론: 사회성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심미경	인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유주연	CJ키즈빌어린이집 원장
간사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제 5부 각론: 정서발달영역		
책임연구원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서원경	중앙청사어린이집 원장
간사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제 6부 각론: 언어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유희정	광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안현숙	안산삼성어린이집 원장
간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제 7부 각론: 인지발달영역		
책임연구원	최혜영	창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혜원	영등포구보육정보센터 센터장
간사	윤지연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연구자문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제 2부 각론: 기본생활영역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문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 3부 각론: 신체운동발달영역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문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태은	한양사이버대학 아동학과 교수
제 4부 각론: 사회성발달영역		
	최지영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 임상심리실 교수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슬기	서울대병원어린이집 원장
제 5부 각론: 정서발달영역		
	정성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최지영	상계백병원 정신과학교실 임상심리실 교수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슬기	서울대병원어린이집 원장
제 6부 각론: 언어발달영역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손은남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신동주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 7부 각론: 인지발달영역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박진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전임강사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2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02) 2023-8944
팩스: 02) 2023-892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132-01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 사회성발달영역
· 정서발달영역

2

KICCE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